

2013 |  
ANNUALLY | 제 29 호

The Sokcho Culture Journal

# 속초문화





## 문화의 온기가 전해지는 속초문화원

문화를 통해 세상과 만납니다

### 속초문화원 주요 사업

#### ❶ 향토문화 연구 및 활동 기능 강화

- 향토문화의 체계적 관리 및 전승
- 향토사연구소 활동 및 기능 확대

#### ❷ 사회 교육사업

- 실질적인 문화학교 운영으로 문화교육 기회 마련
-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속초의 뿌리 교육정착

#### ❸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 문화DB 구축

- 인터넷 홈페이지의 디지털화 변환
- 관련기관 홈페이지와 DB 연계 구축

#### ❹ 속초시의 종합 문화예술기관으로 위상 정립

- 속초시 각종 행사에 속초 전통문화 공연 계획
- 어르신문화학교를 통한 실버문화종합기관 구축

#### ❺ 속초의 문화 재조명

- 속초시사 홈페이지 체계적 관리
- 속초북청사자놀음 전승 및 보존
- 속초 도문농요의 문화재 지정에 따른 체계적 전승
- 실향민 문화콘텐츠 개발과 보존 및 전승



The Sokcho Culture Journal

# 속초문화



## Contents



### cover story

청초천과 달마봉(1958년)  
(32p 관련기사)

- |     |  |
|-----|--|
| 005 | 권두시 청호동이 지워지고 있다 / 김종현                     |
| 006 | 권두휘호                                       |
| 008 | 기을 낭비 / 박명환 · 代嚴君次韻酬姜正言大晉 / 전재남<br>발간사 박무웅 |

### 속초문화 365

- |     |  |
|-----|--|
| 012 | 제32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잔치                        |
| 013 | 제21기 향토문화학교                                    |
| 014 | 2013 노인일자리사업 “실버문화관광해설사”                       |
| 015 | 2013 학교문화예술교육 ‘국악이랑 놀자’                        |
| 016 | 속초도리원농악대 운영                                    |
| 017 |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                                 |
| 018 | 속초북청사자놀음 전수 및 공연                               |
| 019 | 속초문화원 산하 문화예술동아리                               |
| 020 | 2013 문화유적답사                                    |
| 021 | 2013 어르신문화학교 ‘풀묶음문화나눔봉사단 season2’              |
| 022 | 제48회 설악제례                                      |
| 023 | 청소년축제기획단 ‘이을’                                  |
| 024 | 2013 강원도 청소년 인문학프로젝트 영상인문학                     |
| 025 | 청소년방학프로그램                                      |
| 026 | 2013 청소년문화전수교육<br>‘속초시 승격 50주년, 이제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
| 027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그리움(green+museum)문화학교’              |
| 028 | 속초문화해설사 양성 교육                                  |
| 029 | 속초시 승격 50주년 기념 종체극                             |
| 030 | 속초문화원 발간 책자                                    |
| 031 |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

■ 217-010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영랑동 570-5) Tel.033)632-1231, 639-2439 Fax.033)632-1241  
■ <http://www.sokcho-culture.com> · <http://www.sokcho-history.com> · E-mail : sc2439@sokcho.org  
■ 페낸곳 속초문화원 ■ 발행인 박무웅 ■ 편집인 김안섭 ■ 사진제공 속초시립박물관 ■ 발행일 2013.12.31

《속초문화》는 속초시 보조금 및 강원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글과 사진은 속초문화원과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비매품)



The Sokcho Culture Journal

속초문화

ANNUALLY 2013 · 제29호

### 사진으로 보는 속초의 옛 모습

- 032 사진으로 만나는 속초의 옛모습과 오늘 지상 전시

### 특집

- 038 지정 신청 문화재 조사 보고서/ 최현식  
042 속초의 옛지명/정상철

### 문화논단

- 060 설악산 영문기행 일기/장정룡  
082 공유경제와 문화예술/장재환

### 기획 – 2013 속초문화원 문화예술교육

- 094 토요문화학교  
098 청소년죽제기획단 '이을'  
106 영상인문학  
110 청소년지역문화창조

### 속초옛이야기

- 114 '속초 물 사이길'에서 '길'을 묻다. / 이수영

### 특별기고

- 122 크레마 (crema for PC)로 읽은 영상 책 한 권 / 박영도  
124 장창영(張昌榮)회장을 회고하며 / 동문성  
128 뜻밖의 증서, 애국의 길을 돌아보다 / 문화원 가족 소식

- 130 2013 속초문화예술 해적이  
146 제25회 속초시 문학상  
147 속초문화원 임직원 현황



# 속초문화 29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석봉도자기미술관

관장 조무호

사공수산

대표 박영남

두메산골

대표 박영선

속초도문농요보존회

회장 오순석

## 청호동이 지워지고 있다

김 종 현

물길을 트느라  
사람의 발길을 끊었다  
아바이 마을의  
새로운 38선

이제 더 이상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20분과 5분의 차  
야경 사진의 멋진 배경이 된  
두개의 철제 다리

잃은 것에 대해 누구도 말이 없었다.

가을동화 은서네 집  
1박 2일이 다녀간 집  
입맛이 아닌 입소문을 팔고  
삶이 아닌 드라마가 사는 곳

발뒤꿈치로 늘려서 팔던 말린 오징어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고향을 잊지 않으려던 이들과  
그들의 삶을 나르던 갯배마저  
편도 200원짜리 인증샷의 배경이 되어버린  
오늘 저녁 무렵

청호동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김 종 현  
2001년 문학마을 시 등단  
설악문우회 동인  
현 속초문인협회 자부장  
영랑초등학교 교감

夢梧起床  
不桐香頭  
勝秋灰禪味  
塞雨夜欲瀉如水  
急壘窓萬葉吹  
錄萬海先生詩

東岩朴明煥



만해 한용운 선생의 詩  
가을 밤비(秋夜雨)

床頭禪味澹如水(상두선미담여수)  
정(定)에 드니 담담하기 물 같은 심정

吹起香灰夜欲瀉(취기향회야욕란)  
향불 다시 피어나고 밤도 깊은 듯

萬葉梧桐秋雨急(만엽오동추우급)  
문득 오동잎 두들기는 가을비 소리

虛窓殘夢不勝寒(허창잔몽부승한)  
으스스 새삼스레 밤이 차구나



박명환

동아미술대전 은상 1회  
강원서예대전 입선 2회  
만해서예대전 입선 2회

寒碧領僊境爲樓清丹臺(한벽령선경위루청단호)

한벽루가 선경을 차지해 정자모습이 맑고도  
시원해라

能今忘寵辱可以渾山毫(능금망총욕가이흔산호)

사람으로 하여금 은총과 오욕을 잊게하고  
초목과 더불어 잘 어울리네

長瀨聲客好群峰氣象高(장뢰성객호군봉기상고)

긴 여울은 소리와 모양이 좋고 뭇봉우리의  
기상도 높아라

沈阿難호승携賞豈言勞(심아난호승휴상기언노)

고질병이 고치기 어렵지만 이끌고 구경하는데  
어찌 수고롭다고 하랴



전재남

강원서예대전 입선 1회  
님의침묵서예대전 입선 1회  
동해무릉서예대전 입선 1회

寒碧領僊境爲樓清丹臺  
令忘寵辱可以渾山毫  
聲客好群峰氣象高  
沈阿難호승携賞豈言勞

歸庄金在南

고산 윤선도의 詩  
代嚴君次韻酬姜正言大晉 (대엄군차운수강정언대진)  
아버지 대신 차운해정언 강대진의 시를 갚다

## 누구나 함께 뛰놀 수 있는 문화마루를 꿈꾸며



박 무웅  
(속초문화원장)

올해 문화원장에 취임하여 바쁘게 활동하다보니 벌써 속초문화의 발간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 1년 활동의 결과물인 속초문화를 세상에 내놓는 시간이 되니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2010년부터 중점사업으로 진행해온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이제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한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과 '영상인문학'은 문화예술 향유의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문화학교 풀무음문화나눔봉사단' 회원들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지역단체에 그동안 갈고 닦은 문화적 재능을 나누어 주는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지역문화콘텐츠 발굴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속초북청사자놀음은 강원민속예술축전에 참여하여 전승기반을 더욱 출렁히 갖추었고, 공연콘텐츠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련갯마당, 신천무용단, 설악시낭송회 풀니음, 소울시어터 등 지역예술단체와 함께 손을 잡고 속초시승격 50주년 기념 총체극을 제작하여 설악문화제 기간 중 공연한 것은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담은 작품을 개발했다는 점과 처음으로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인의 협력으로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더 많은 세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질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예술인들이 서로 함께하며 협력할 수 있는 마당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든든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리며,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3. 12.

##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 제22기 수강생 모집

속초문화원은 전통문화 계승과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강좌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모집시기 : 2월

■ 신청방법 : 속초문화원 방문접수

■ 등록비 : 연 3만원(재료비 별도)

※ 문화원 회원은 1만원 할인혜택 및 1강좌 무료 수강 가능(정원 미달시)

■ 문의 : TEL 632-1231/ FAX 632-1241/ [www.sokcho-culture.com](http://www.sokcho-culture.com)

## 속초문화원 회원 모집

속초문화원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기관으로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 ▲회원혜택

1. 매년 발간되는 향토사안내서와 『속초문화』, 소식지 등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관내 문화예술체험 행사를 빠르게 알려드리며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3.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도서, 음반, DVD, 악기)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4. 문화유적답사 및 문화학교 수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원 자격으로 문화원 운영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회원회비 : 연 4만원

■ 문의 : TEL 632-1231/ FAX 632-1241/ [www.sokcho-culture.com](http://www.sokcho-culture.com)

# 속초문화 365

정월대보름  
향토문화학교  
노일일자리사업  
학교문화예술교육  
속초도리원농악  
속초도문농요 보존 전승  
북청사자놀음 전수  
문화동아리 활동  
문화유적답사  
어르신문화학교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청소년축제기획단  
영상인문학  
청소년방학프로그램  
청소년문화전수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속초문화해설사  
속초시 승격 50주년 기념 총체극  
속초문화원 발간 책자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 The Sokcho Culture Journal



## 제32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잔치

제32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가 2월 24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에서 지역민들의 전통축제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문화원이 주관하는 본 행사는 전통재연 및 체험 행사, 민속놀이 체험행사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꾸며졌다. 전통민속 재연행사는 액집태우기와 지신밟기가 진행되었다. 액집태우기는 행사장에 액집(달집)을 만들고 참가자들이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행사로 강원도 최대규모를 자랑했다. 체험행사로는 가훈 써주기, 소원지 쓰기, 부럼 깨기 등이 열려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을 즐겁게 하였다. 이 밖에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한화리조트, 속초신협, 속초양양축협 등 금융기관과 기업체가 각각 제기차기, 널뛰기, 투호, 윷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마당을 진행하며 지역주민과 흥겨운 한마당을 함께했다.



- 행사명 : 2013(제32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
- 일 시 : 2013년 2월 24일 15:00~19:00
- 장 소 : 청초호 유원지 상설이벤트장
- 주 최 : 속초시, 속초문화원
- 주 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외 6개 기관 및 단체
- 향유자 : 동별 행사 참가자 및 행사 향유자 약 1,200명
- 내 용 : 전통재연 및 체험행사, 동별 민속놀이 경연대회

행사 종 목	행사 내용	주 관
전통 재연	액집태우기	속초시시설 관리공단
	판굿, 속초사자놀음	속초시박물관, 런갓마당
	지신밟기	속초문화원
체험 행사	가훈써주기	속초문화원
	전통문화 체험	속초문화원, 런갓마당
	민속놀이 체험	한화리조트
민속 놀이 경연 대회	제기차기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널뛰기	속초신협
	윷놀이	속초양양축협
	투호	



## 제21기 향토문화학교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는 지역의 전통 있는 평생교육강좌로 올해 21기생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강좌는 3월부터 '장구교실, 사물중급, 한지공예, 서예교실, 민요교실, 고전무용반, 노래교실' 등 7개 강좌가 11월까지 진행되었고, 11월 27일 ~29일 3일간 향토문화학교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가졌다.

### - 수료식 및 전시, 발표회

- 일 시 : 2013년 11월 27일~29일
- 참가자 : 문화학교 수강생 등 100명
- 장 소 : 속초시문화화관 소강당, 제1전시실
- 내 용 : 개전식 : 11월 27일 10:00  
수료식 : 11월 27일 11:00  
전시회 : 11월 27일~29일 / 한지공예, 서예 작품 전시  
발표회 : 11월 27일 10:30 / 노래, 장구

### - 문화학교 일정

강좌명	요일	교육시간	교육회차	교육장소	향유인원	강사
장구교실	월·목	10:00~12:00	55회	갯마당연습실	12명	임효건
사물중급	월·목	13:00~15:00	55회	갯마당연습실	15명	임효건
서예교실	화·금	10:00~12:00	55회	문화사랑방	15명	김동하
노래교실	화·금	13:00~15:00	56회	문화사랑방	32명	최봉하
민요교실	화·금	10:00~12:00	55회	갯마당연습실	21명	김현섭
한지공예	수	10:00~12:00	28회	문화사랑방	14명	이진향
고전무용	수·목	13:00~15:00	54회	문화사랑방	17명	김민희





## 2013 노인일자리사업 “실버문화관광해설사”

관광객들에게 지역문화를 소개하며 지역문화관광의 첨병역할

만65세 어르신에게 사회참여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실버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을 200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해설사 양성교육을 받은 후 지역의 주요 문화관광거점에서 속초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지역문화를 소개하여 지역문화관광의 첨병역할을 하였다.

올해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아바이마을, 영금정, 영랑호 범바위, 청초청, 속초수산관광시장 등 5개 관광지에서 관광해설을 하여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 사업명 : 2013 노인일자리사업 ‘실버문화관광해설사’
- 사업일시 : 2013년 3월 ~ 11월(9개월)
- 해설장소 : 아바이마을, 영금정, 영랑호 범바위, 청초청, 속초수산관광시장
- 내용 : 어르신 문화해설사 양성 및 근무





## 2013 학교문화예술교육 ‘국악이랑 놀자’

속초문화원은 련갯마당과 함께 초등학교 대상 전통문화교육사업인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을 2008년부터 주관하였다. 본 사업은 ‘북청사자놀음’, ‘속초도리원농악’, ‘속초도문농요’ 등의 지역 문화자원과 취타대, 창극, 국악관현악 같은 새로운 국악 장르를 지역 6개 학교와 연계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문화감수성 향상과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국악을 배운 학생들이 풍물동아리를 형성하여 주 1회 풍물교육을 전수받아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공유 및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48회 설악문화제 거리퍼레이드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 - 국악심화교육

- 교육기간 : 2013년 3월 ~ 12월
- 내용

### - 강원민족예술한마당

- 일시 : 2013년 9월 7일
- 장소 : 춘천 공지천
- 참가학교 : 속초초등학교 취타대

### - 제48회 설악문화제 거리퍼레이드

- 일시 : 2013년 10월 12일
- 장소 : 설악문화제 행사장
- 참가학교 : 속초초등학교 취타대, 온정초등학교 도리원농악

### - 한·러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 일시 : 2013년 10월 31일
- 장소 : 대포초등학교 체육관
- 참가학교 : 대포초등학교 국악관현악

학교명	강좌명	지도강사	인원	교육내용	교육횟수
청호초등학교	북청사자놀음	김민희	43	연희(애원성, 곱추, 넋두리, 승무 등)	30
		김정의		마당극	30
		김태희		통소	30
속초초등학교	취타대	최재학	36	취타대 편성과 용고, 나각, 나발 교육	40
		임희영		태평소 및 전체 진행	40
청봉초등학교	창극	김현섭	21	판소리, 무용, 연희	30
온정초등학교	도리원농악	임효건	40	도리원 농악 전반(가락), 소고 및 상모	30
설악초등학교	속초도문농요	김부영	30	도문농요 및 농사풀이	30
대포초등학교	국악관현악	박치영	30	국악관현악 편성 및 악기교육	30
청소년풍물동아리	사물놀이	전형준	15	사물놀이	15



## 속초도리원농악대 운영

속초 대표 전통공연콘텐츠로 성장 계기 마련



지역의 사라져가는 전통무형문화인 속초도리원농악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련갯마당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속초문화원 주부풀물단과 학생풀물동아리 '뉘누리' 대상 총 43회 전승교육을 진행, 제32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 초청 지신밟기, 제21회 향토문화학교 수료식 초청공연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 - 속초도리원농악 교육일정

교육	회 차	기간	대상	강사
심화교육	37회	3월~12월 매주 목요일	주부풀물단 15명	전형준, 정호열
통합교육	6회	4월~10월 월 1회	주부풀물단 15명 뉘누리 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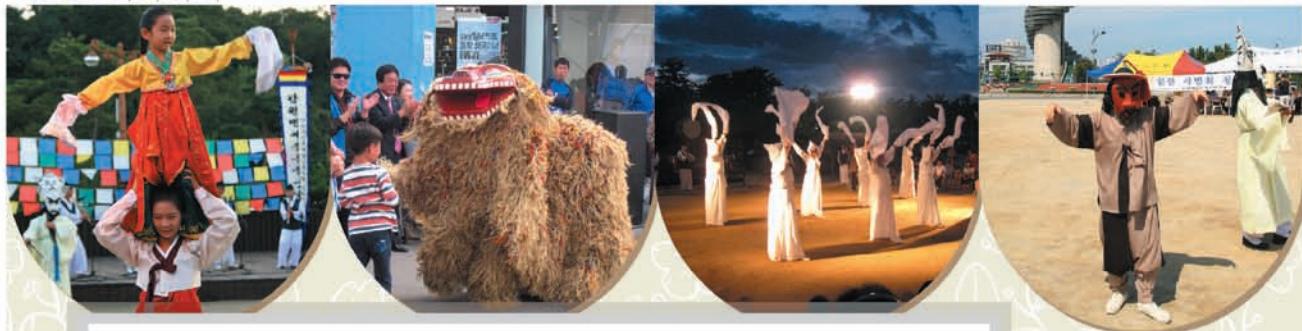
##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

도지정문화재가 된지 6년 만에 전수관 건립 시작

속초문화원은 속초유일의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속초도문농요의 지속적인 재현과 보존을 위해 속초도문 농요 전승 및 공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속초도문농요 보존회원 및 속초시립풍물단, 련갯마당 소속 예술인으로 구성된 공연단은 올해 춘천에서 열린 강원민족예술 한마당 축제, 설악문화제 등의 행사 초청공연으로 우리지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그리고 속초도문농요가 도지정문화재가 된지 6년 만에 전수관 건립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이 지난 9월 11일 상도문에서 열렸다. 이 전수관이 건립되면 도문농요가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 전승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2013 속초도문농요 공연 일정

회차	일시	장소	내용	관객
1회	9월 7일	춘천 공지천	- 강원민족예술 한마당 초청공연	300명
2회	10월 12일	설악문화제 행사장	- 제48회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 초청공연	500명
3회	10월 26일	상도문운동장	- 속초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생 대상 지역전통문화 공연 및 전수	50명
4회	11월 22일	속초시문화회관 대강당	- 수능을 끝낸 지역 고등학생 대상 지역전통문화 공연 및 전수	900명



## 속초북청사자놀음 전수 및 공연

체계적인 보전과 전승을 위해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 정식 발족

지역의 대표 실향민 문화콘텐츠인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전승과 보전을 위해 지역예술인, 시민들과 함께 전수교육 및 공연을 진행하였다.

공연단은 2월 24일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한마당 걸립굿을 시작으로 총 10회 공연을 통해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우수성과 재미를 알렸고,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5회 공연연습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체계적인 보전과 전승을 위해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를 정식 발족하였다.

### ■ 속초북청사자놀음 공연연습

- 일시 : 3월~11월 화요일 19:00~21:00 총 15회
- 장소 : 속초문화원, 속초시립박물관
- 참가자 : 북청사자놀음보존회원 40명

### ■ 속초북청사자놀음 공연



회차	일시	장소	내용	관객
1회	2월 24일	엑스포공원	-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한마당 공연	1,200명
2회	7월 26일			150명
3회	8월 3일			150명
4회	8월 10일	속초시립박물관	- 속초시립박물관 "야간개장"과 "고향의 밤 콘서트" 초청공연	150명
5회	8월 16일			150명
6회	8월 24일			150명
7회	9월 7일	춘천 공지천	- 강원민족예술 한마당 초청공연	300명
8회	9월 8일	엑스포공원	- 2013 함남도민 한마당 큰잔치 초청공연	500명
9회	10월 18일	동해월빙레포츠타운 보조경기장	- 제25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2,000명
10회	11월 22일	속초시문화회관 대강당	- 고3 수험생대상 청소년문화전수교육 공연	900명



## 속초문화원 산하 문화예술동아리

지역문화예술의 뿌리 양성 및 지원활동 주력



속초문화원은 지역문화예술의 뿌리인 문화예술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설악주부풍물단 '해울림'은 2011년부터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현재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문화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물놀이 동아리는 제18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 민요반은 강릉단오맞이 제1회 전국 민요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 2013 문화유적답사

문화정체성 일깨우고 문화시민의 역량 강화

속초문화원 문화가족들의 문화정체성을 일깨우고 문화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관외지역 문화유적답사를 올해 세 차례 진행하였다.

1차 답사는 6월 11일 영월 장릉과 한반도지형 일대를,  
2차 답사는 10월 7일~8일 순천 정원박람회와 구례 화엄사  
를, 3차 답사는 11월 7일 경기도 여주와 광주 일대를 탐방하였으나.

### ■ 2013 문화유적답사

회차	일시	장소	참가 인원
1차	6월 11일	- 영월 장릉, 선돌, 청령포, 한반도지형	40명
2차	10월 7일~8일	- 순천(순천만습지, 정원박람회), 구례(화엄사, 가사문학과, 소쇄원, 죽녹원)	40명
3차	11월 7일	- 여주 신륵사, 광주(분원도자박물관, 남한산성 행궁)	40명





## 2013 어르신문화학교 ‘풀무음문화나눔봉사단 season2’

활기찬 어르신들의 즐거운 문화나눔 어르신문화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풀무음문화나눔봉사단 season2’ 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마당을 올렸다. 올해는 작년에 양성된 봉사단원과 신규 교육생 대상 이 원학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자원봉사자를 육성. 지역축제, 어린이집, 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 지역 단체에서 다양한 문화나눔활동을 진행하였다.

■ 사업명 : 어르신문화학교 ‘풀무음문화나눔봉사단 season2’

■ 교육기간 : 2013년 5월~12월

■ 교육내용

구분	회차	대상	교육내용
기초반	15회	신규교육생 16명	- 동화구연 교육을 통한 문화봉사자 양성
심화반	16회	문화봉사단 14명	- 연극놀이, 종이접기, 전통놀이 등 문화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

■ 봉사활동 분야 및 내용(2013년 5월~12월)

■ 활동분야 : 전통문화(사물놀이, 민요, 고전무용, 전통놀이 등), 동화구연(신문지동화, 수건동화, 동화구연, 옛날이야기, 동화 소품 만들기 등), 기타(종이접기, 북아트, 지역축제 행사지원 등)

봉사기관	회차	봉사대상	봉사기관	회차	봉사대상
착한어린이집	14회	20명	청호동성당	10회	10명
행복한어울림홈스쿨	26회	5명	지역초등학교 돌봄교실	2회	20명
성암노인복지관	19회	20명	지역축제	2회	국민생활체육대회 1,000명,
다솜아동센터	16회	15명			등대축제 200명



## 제48회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영신제, 송신제 등 전통제례문화 알리미

설악제례는 설악문화제의 시작과 끝을 알리며, 속초시의 번영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10월 4일 설악산신제(설악산 소공원), 동해용왕제(설악해맞이공원)를 실시. 그리고 12일 영신(삼신합동)제, 13일 송신(삼신합동제)를 설악문화제 행사장에서 진행하였다.

특히, 설악문화제 행사장에서 진행한 영신제와 송신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설악문화제의 의미를 더욱 크게 하였다.

제례명	일시	시간	장소
설악산신제	10월 5일	08:00~09:00	설악산소공원
동해용왕제	10월 5일	13:00~14:00	설악해맞이공원
영신(삼신합동)제	10월 12일	10:00~11:00	설악문화제 행사장
송신(삼신합동)제	10월 13일	16:00~17:00	설악문화제 행사장



## 청소년축제기획단 ‘이을’



청소년축제기획단 ‘이을’은 새로운 지역 청소년문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올해 처음 진행하였다. 지역문화단체인 아트앤플랜이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 속초문화원과 속초축제위원회가 후원하였다.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 기간 중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축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총 38회 워크숍,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지난 10월 12~13일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 행사 중 청소년축제장을 마련하여 공연, 전시, 체험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큰 호평을 받았다.



2013 강원도 청소년 인문학프로젝트  
영상인문학



- 영상인문학이란 : 청소년이 좋아하는 영상문화(극영화, 다큐멘터리, 비디오아트, CF)를 활용하여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과 창의적 활동을 제공하는 청소년 인문학 프로젝트이다. 영상작품을 주제별(환경, 인권, 평화, 노동 등)로 구분하여 주제가 담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 관련 인문학 강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스스로 학습하고 표현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과 상호 토론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는 통합교육을 실천하고자 했다
  - 교육일시 : 2013년 4월~12월
  - 장소 : 속초·고성·양양·춘천 관내 중·고등학교 10개교
  - 대상 : 중고등학생

#### ■ 여름방학 체험프로그램

- 영상인문학 캠프 : 영상인문학에 참여한 학생들이 캠프를 통해 인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문예 강좌를 배우며 합리적 공동체 의식을 가진 인재가 될 수 있는 토대마련
  - 일시 : 2013년 8월 11일~12일(속초) / 2013년 8월 12일~13일(홍천)
  - 대상 : 영상인문학 참여 학생
- 여름방학 영상인문학 강좌 '영화도 보고, 생각이 쑥쑥' : 속초지역 초등학생 대상 문화감수성과 창의성 향상을 위해, 영화감상 후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강좌 진행
  - 일시/장소 : 2013년 7월 29일~ 8월 9일(10회)
  - 대상 : 지역초등학교 3~6학년생 30명

-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답사 : 경기도 DMZ영화제 답사 및 부대행사인 다큐백일장에 참가하여 영상을 통한 글쓰기 체험 실시
  - 일시 : 2013년 10월 19일
  - 참가인원 : 고성고등학교, 속초고등학교 학생 30명



## 청소년방학프로그램

청소년방학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맞은 속초 지역 청소년들에게 뜻 깊은 문화체험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지역문화활동가와 함께 지역초등학생 대상,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두 가지 캠프를 진행하였다. 1차 캠프는 지역초등학생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솟대만들기, 연극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표현력과 창의성을 높이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체험강사로 활동하여 캠프의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2차 캠프는 지역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스스로 꾸미는 축제를 기획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역 학생들에게 문학예술활동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속초청소년 문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설악문화제 기간 중 청소년들이 스스로 꾸밀 축제를 기획하여 새로운 청소년문화의 틀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캠프명	일 시	장 소	향유인원	진행강사	문화자원 봉사자
작은예술가의 자연스케치	7월 26일~28일	인제냇강마을	33명	3명	8명
청소년축제 기획캠프	8월 2일~4일	속초시박물관 외 속초시 일대	30명	3명	2명





## 2013 청소년문화전수교육 ‘속초시 승격 50주년, 이제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수능이 끝난 고3수험생 대상 지역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문화예술공연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문화 전수교육 사업을 11월 22일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진행하였다.

올해 행사는 ‘속초시 승격 50주년, 이제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란 제목으로 속초시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미래의 희망을 전달하는 동영상과 창작무용, 창작뮤지컬. 속초시 대표 문화콘텐츠인 속초도문농요와 속초북청사자놀음, 초청공연으로 소리내밴드와 제이모닝의 밴드 공연이 펼쳐졌다.

전통문화와 지역예술단체의 창작공연, 초청밴드가 어우러진 이번공연은 지역 3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900여명이 함께했다.

- 행사명 : 2013 청소년문화전수교육 ‘속초시 승격 50주년, 이제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 일시/장소 : 2013년 11월 22일 / 속초시문화회관 대강당
- 대상 : 관내 3개 고등학교 3학년 900여명
- 공연내용
  - 지역전통문화 : 속초도문농요, 속초북청사자놀음
  - 창작공연 : 창작무용 ‘역사의 비극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신천무용단)
  - 창작뮤지컬 ‘설악하이스쿨 뮤지컬’(극단 소울시어터)
  - 초청밴드 : 소리내밴드, 제이모닝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 ‘그리움(green+museum)문화학교’

우리지역 영랑호 생태를 미술, 문학 등의 예술로 체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즐거운 토요일 그리움(green+museum)문화학교’라는 제목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 영랑호 생태를 미술, 문학 등의 예술로 체험하는 프로그램. 3~6학년 대상 20명을 2기로 모집하여 3월~12월 동안 정크아트, 클레이아트, 멀티미디어 동화 만들기 등의 문화 체험을 32회 진행하였다. 그리고 관외생태문화탐방, 발표회 등의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 우리동네 골목길 생태문화탐방 등의 활동도 함께 하였다.

### ■ 문화예술교육

기수	향유자	참여강사	교육내용	수료식
1기	22명	7명	북아트, 정크아트, 바느질 공예,	7월 6일
2기	20명	9명	멀티미디어 동화제작 등	12월 14일

### ■ 우리동네 생태화탐방

- 일 시 : 7월 13일~14일
- 장 소 : 속초시립박물관 및 속초시 일대
- 참가자 : 교육생 35명, 진행강사 8명
- 내 용 : 우리동네 골목길을 탐방하며, 우리 지역의 다양한 생태와 문화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체험

### ■ 관외생태문화탐방

회차	일시	향유자	참여강사	탐방장소
1회	4월 27일	39명	4명	춘천 남이섬
2회	10월 19일	35명	4명	정동진 조각공원 하슬라아트월드

즐거운 토요일 그리움(GREEN+MUSEUM)문화학교 남이섬 생태문화탐방

▶ 일시: 4월 27일 ▶ 장소: 춘천 남이섬 ▶ 대상: 토요문화학교 참여 학생 및 학부모

The Sokcho Culture Journey



## 속초문화해설사 양성 교육

### 지역문화관광 인적인프라 강화를 위한 속초문화해설사 양성교육

본원은 올해 지역문화관광 인적인프라 강화를 위한 속초문화해설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여성새일센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 수료자 16명 대상 지역문화와 스토리텔링 관련 심화 교육, 스터디 투어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해설 할 수 있는 문화매개자를 양성. 내년부터 시티투어버스 해설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 ■ 속초문화해설사 양성교육

- 교육일시 : 2013년 10월 ~ 12월 (10회)
- 교육장소 : 속초여성행복센터
- 교육대상 : 여성새일센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 수료자 16명
- 참여강사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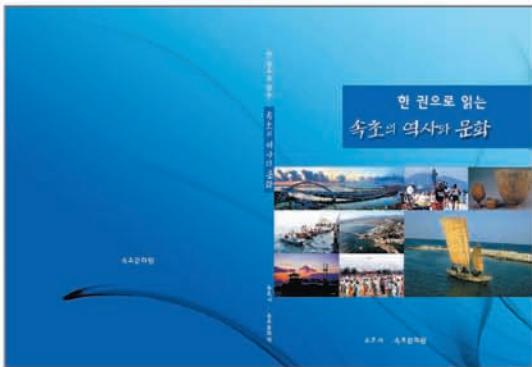
## 속초시 승격 50주년 기념 총체극

속초시의 변화를 연극, 국악, 무용 등의 다양한 예술장르로 표현



속초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본원을 중심으로 련갯마당, 신천무용단, 설악시낭송회 풀니음, 소울시 어티 등 관내문화예술단체가 힘을 합하여 한편의 총체극을 만들었다. 6.25전쟁 등의 비극의 근대사부터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현대까지 속초시가 변화하는 모습을 연극, 국악, 무용 등의 다양한 예술 장르로 표현한 총체극은 지난 설악문화제 기간 중 선보여 지역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 향토사 안내서

**한 권으로 읽는 속초의 역사와 문화**

속초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한 권으로 읽을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속초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기록과 속초의 문화재, 지명에 얹힌 이야기 등 속초의 옛문화를 쉽게 만날 수 있다. 특히, 속초의 문화를 재미있게 스토리텔링하여 향후 속초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 2013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

**속초청소년마을보물발굴단 – 도문동**

2013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하고 표현하는 청소년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속초청소년마을보물발굴단'은 속초시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인 도문동지역의 역사와 삶을 알아보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어르신

들의 이야기를 채록하며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문화를 습득하였다.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속초의 오래된 미래 – 도문동, 내가 달인이다, 내가 찾은 미래전통, 트레져헌터 등의 주제로 스토리북을 발간하였다.



## 속초문화원 가족 동정

### 박무웅 원장, 속초고등학교 학생대상 특강

지난 9월 6일 재경속초고동문화 주관으로 열린 속초고 선후배의 만남 행사에서 박무웅 속초문화원장이 특강강사로 초청되었다. 1학년 6반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미래의 꿈과 희망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 구영모 이사, 해오미속초21 제3회 환경대상 특별상 수상

11월 23일 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와 그린스타트속초네트워크,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주최한 '제3회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속초문화원 구영모이사가 특별상(원주지방환경청장상)을 수상하였다. '설악환경대상'은 사회전반에 걸쳐 청정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 개인에 수여하는 상이다.

### 윤장원이사, 속초시 50주년 승격기념 속초시장 표창

10월 12일 속초시 승격50주년을 기념하는 설악문화제 개막식에서 속초문화원 윤장원이사가 성실납세자로 속초시장 표창을 받았다.

### 속초 색소폰 동호회 '설악드림팝스' 동상

속초문화원 한기학이사가 단장을 역임하고 있는 설악드림팝스는 10월 20일 강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1회 전국 색소폰 양상을 어워드 in 강릉' 본선에서 12개 팀 가운데 동상을 차지했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본상을 수상했다.

### 정상철 위원, 제23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 발표회 장려상 수상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정상철 연구위원이 지난 2013년 6월 25일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된 제23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 발표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 윤광훈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공자 표창식 대통령표창 수상

속초문화원 윤광훈 이사(속초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는 12월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공자 표창식에서 지역주민의 통일의지 결집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 사진으로 만나는 속초의 옛모습과 오늘 지상 전시

속초시립박물관이 속초시 승격 50주년  
을 맞아 개최한 '사진으로 만나는 속  
초의 옛모습과 오늘'의 사진을 실는  
다. 1950년대 속초의 사진과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오늘의 사진을 통  
해 지난 50년간의 발전된 모습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

# The Sokcho Culture Journal





동명동 장안골 언덕에서 바라본 시내와 청초호(1954)



동명동 장안골 언덕에서 바라본 시내(2013)



동명동 파티마성당(1954)



동명동 파티마성당(2013)



동명항쪽에서 바라본 파티마성당(1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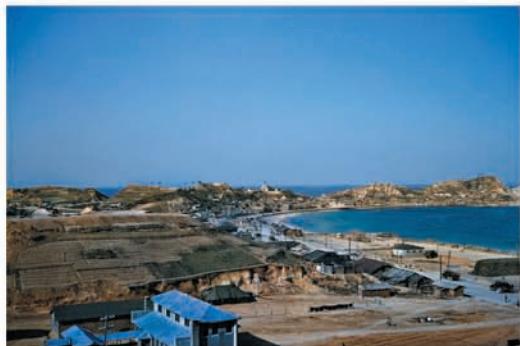
동명항쪽에서 바라본 파티마성당(2013)



동아서점 뒷편 언덕에서 바라본 공설운동장쪽(1954)



동아서점 뒷편 언덕에서 바라본 공설운동장쪽(2013)



동아서점 뒷편 언덕에서 바라본 동명동(1954)



동아서점 뒷편 언덕에서 바라본 동명동(2011)



동아서점 뒷편 언덕에서 바라본 설악산(을산바위, 달마봉)(1954)



동아서점 뒷편 언덕에서 바라본 설악산(을산바위, 달마봉)(2011)



동아서점 뒷편 언덕에서 바라본 시내와 청초호(1954)



동아서점 뒷편 언덕에서 바라본 시내와 청초호(2013)



동아서점 뒷편 언덕에서 바라본 청호동(1954)



동아서점 뒷편 언덕에서 바라본 청호동(2011)



시청앞 바닷가에서 바라본 동명동(옛 속초역사)(1954)



시청앞 바닷가에서 바라본 동명동(2013)



시청앞 바닷가에서바라본 동명동(1954)



시청앞 바닷가에서바라본 동명동(등대, 2013)



신흥사 극락보전(1954)



신흥사 극락보전(2011)



영랑동 등대아래 새쪽마을(1954)



영랑동 등대아래 마을(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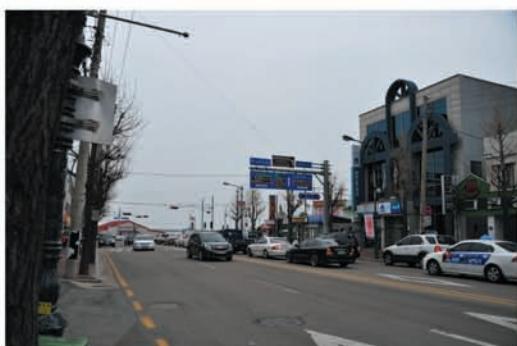
우체국 맞은편 바다쪽에서 바라본 시내(1954)



우체국 맞은편 바다쪽에서 바라본 시내(2013)



터미널방향에서 본 동명항(수복탑 1954)



터미널방향에서 본 동명항(수복탑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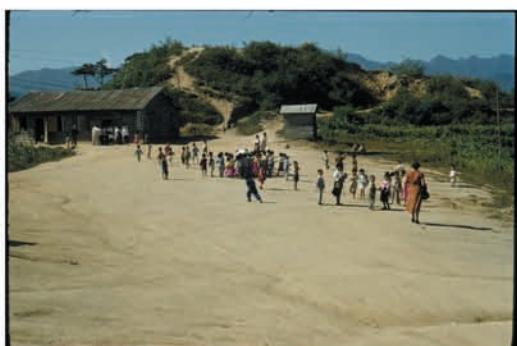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개청식(1967년)



속초시제실시 경축 기념대회 시가행렬(1963)



속초 주둔 미군항만사령부(현 농협 속초시지부)(1954)



속초감리교회(1954)

# 특집

- 지정문화재 조사보고서
- 속초의 옛 지명

The Sokcho Culture Journal

The  
Sokcho  
Culture  
Journal



# 지정 신청 문화재 조사 보고서

속초문화원 부원장이자 강원도 문화재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최현식 부원장의 태백 성종사의 아미타 설법도에 관한 문화재 조사 보고서를 싶는다. 속초의 문화재는 아니지만 강원도 향토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역 학자들의 활동을 기록하기 위함이다.(편집자 주)

- 명 칭 : 태백 석종사 아미타 설법도
- 신청종별 : 유형 문화재
- 소 유 자 : 대한불교 조계종 석종사
- 소 재 지 :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목련길 46
- 수 량 : 1점
- 규 격 : 세로 162cm × 가로230cm
- 재 질 : 모시 채색 (苧本彩色)
- 조성연대 : 1880년
- 조사내용 :



## (1) 현상 및 특징

석종사 아미타 설법도는 엄지와 長指를 맞대고 아미타 구품인 (阿彌陀九品印)을 취하고 있는 본존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 우에 6보살과 가섭·아난존자를 비롯한 10대 제자, 사천왕 등 모두 25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미타불은 약간 움츠린 자세로 육계가 높은 나발의 머리에 반타원형의 중앙계주와 상향 사선으로 양쪽 세 줄기의 흰 光明이 뻗은 등근 정상계주가 주색(朱色)으로 표현되고 있다.



통견(通肩)의 法衣는 주색으로 채색되고 원형의 금니선(金泥線) 문양을 넣었으며, 옷단은 흰색의 꽃모양을 조밀하게 그려 화려함을 더 하고자 했다.

광배는 원형의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으로 나뉘어 두광은 녹색이며 신광은 황색을 칠하고 그 위에 금박을 입힌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금박의 흔적만 볼 수 있다.

하단 관음보살(향 우측)은 백의관음(白衣觀音)의 모습으로 주색의 보관을 쓰고 그 중앙에 화불(化佛)을 그렸다. 양손은 합수(合手)하여 원손에 정병을 묶은 주색의 끈을 잡고 있으며 녹색 정병은 고분 살붙임을 하여 입체감을 더 하였다. 관음보살 좌측옆(향 우측)의 보살은 금강저(金剛杵)를 원 손 바닥 위에 세우고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으로 금강저를 강조 한 듯 하며, 그 뒤 보살은 여의(如意)를 들고 있다.

하단(향 좌측)의 보살은 피어 있는 백련(白蓮)을 들고 있으며 관음보살과 같이 정면을 향하고 있다. 그 옆의 보살은 금강경을 오른손으로 받치고 원손으로 가볍게 잡고 있는 모습이며 천의(天衣)의 옷단은 본존 아마타불과 같이 흰색의 조밀한 꽃 모양으로 그렸다. 그 뒤의 보살은 지물(持物) 없이 합장한 모습이다.

향 우측의 앞쪽 사천왕은 칼을 들고, 뒤쪽 사천왕은 비파를 어깨에 메고 합장한 모습이다.

향 좌측의 앞쪽 사천왕은 오른손에 용과 원손에 여의주(보주)를 들고 그 뒤쪽은 탑을 두손으로 받쳐 들고 있다.

향 우측 중간의 십대 제자인 가섭존자는 눈썹과 수염이 길고 하얀 늙은 모습으로 염주를 굴리고



있다. 그 뒤로 옷을 여미는 모습, 요령을 들고 있는 모습,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 경책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5제자가 있으며, 향 좌측 중간의 아난존자는 젊은 모습으로 본존을 향해 합장하고 있으며, 그 뒤로 긴 눈썹을 만지는 모습, 염주를 굴리며 무엇인가 기원하는 듯한 모습, 두 손을 받들고 있는 모습, 왼손을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5제자를 그려 좌, 우측 모두 십대 제자의 각기 다른 지물과 개성 있는 모습으로 변화를 주었다.

하단 중앙의 화기(畫記)를 보면

光緒六年庚辰五月 日造成安干華陽寺 證明 南化 普光 天錫

誦呪春潭道憲夏雲法讚

金魚漢峯璿曠

莊繪片手德月應峯 比丘奉法

改金片手金谷永煥 比丘頓喜

大施主

當□大監戊子生李敏璞大監丁未生柳載賢 長子甲子生 乾命辛卯生金相舜 坤命癸巳生梁 氏(兩位)

長子乙丑生金榮浩 子婦壬戌生□ 氏 次子乙亥生□成

大施主乾命壬午生崔先福 坤命癸卯生文 氏(兩位)

長子癸丑生德俊 坤命乙未甥安 氏(兩位)

乾命辛卯生尹 氏坤甲辰生柳

이와 같은데 위 화기에서의 華陽寺는 서울 군자동에서 종곡동으로 이전하고 다시 지금의 자리(원 화양사터)로 옮겼다. 672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이래 1906년까지 화양사라 이름 하였는데 1907년 지금의 자리로 옮기면서 永華寺(서울 성동구 구의동 산 9번지)라고 寺名을 바꾸었다. 《한성동역도》(漢城東域圖)와 1851년에 편찬한 《여도비지》(輿圖備志)에 그림과 기록이 전해지는 이름

난 사찰이었다. 이곳 영화사(구 화양사)삼성각의 나한도(羅漢圖)화기를 보면 光緒六年庚辰五月十五日始役二十五日點眼干華陽寺 〈중략〉 金魚片手漢峯繪曠 莊會比丘德月應峯 〈중략〉 大施主秩 〈중략〉 尚宮乙亥生李氏……라고 되어있다.

서울 영화사 나한도 화기와 석종사 아미타탱의 화기로 보면 작품을 시작한 년월, 華陽寺라는 사찰명, 金魚와 莊會片手가 같은점, 시주자 중에는 궁실, 내명부 소속 상궁과 석종사 탱화의 정2품이상의 벼슬인 대감(大監) 2명이있는 것으로 보아 세력가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격조있는 사찰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몇가지 유사한 점을 미루어 석종사 아미타탱화의 화기화양사는 오늘날의 영화사가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석종사 탱화의 화기에서 보이는 金魚(畫僧)들의 작품 중 화기가 분명한 것을 조사한 결과 漢峯繪曠스님은 奉恩寺(서울 강남구) 使者圖(1844년, 1895년)를 비롯해 감로왕도(1892년), 나한도(1895년)와 현등사(경기 가평) 칠성도(1861년) 등 17점, 莊繪片手 德月應峯스님은 金寶菴(복아박물관소장) 신중탱(1866년), 봉은사(서울 강남구) 영산회상도(1895년) 등 10점,

改金片手 金谷永煥스님은 흥국사(경기 남양주) 중단도(1868년), 보광사(경기 파주) 16나한도(1877년) 등 13점의 작품이 당시 서울경기도의 큰 규모 사찰에서 佛事하여 모셔져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佛巖寺(경기 남양주) 궤불(1895년)와 봉은사 나한도는 창엽, 응륜, 영환 세 스님 모두 금어로 동참하였다.

## (2) 조사자 의견

태백 석종사 아미태설법도는 화면 전체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이 거의 없이 가득하여 무게가 있어 보이며, 금니선을 많이 사용하여 화려함을 더한다.

비록 소장처와는 다른 사찰에서 옮겨진 탱화이긴 하지만 화기의 화양사가 어느 곳의 사찰인지 밝혀졌으며 19세기 서울, 경기도를 중심으로 크게 활약하였던 화승(畫僧)들의 계파와 그들의 화풍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과학적 보존처리와 함께 관리가 용이한 곳으로 옮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3년 11월

조사자      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      최 현 식

# 속초지역의 옛지명과 변천과정

- 비선대, 외옹지, 조도를 중심으로 -

정상철 1)

## I. 들어가는 말

## II. 본론

1. 통설 : 비선대(秘仙臺) = 영금정(靈琴亭)  
⇒ 비선대(秘仙臺)와 영금정(靈琴亭)은 별개이다.
2. 통설 : 내옹진 = 대포리, 외옹진 = 외옹치리 또는 옹진리 = 외옹치리  
⇒ 옹진리 = 내옹진 + 외옹진, 내옹진 + 대포리 ⇒ 대포리
3. 조도(鳥島)는 원래 명칭은 무로도(無路島)이다.

## III. 결론

## IV. 참고문헌

## I. 들어가는 말

지명(地名)은 우리의 생활터전이 되는 장소의 지형(地形)과 지물(地物) 등을 다른 지점과 구분하기 위한 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명명(命名)된 특수한 언어기호이다<sup>2)</sup>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지명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조상들의 생활주변에서 그 지역의 지형, 자연환경의 영향, 인문지명 등에서 유래한 지명이 많다<sup>3)</sup>

1) 42세, 속초시청 근무

2) 김연옥, 「한국의 기후지명에 관한 연구」 1986,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論叢 제49편 259p

3) 정장호, 「강원도지명의 유형별분포에 관한 지리학적연구(2)」,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문화연구」 제13집, p42

지명의 어원을 찾고, 과거의 지명과 현재의 지명을 연결시키는 작업은 수 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우리를 연결시키는 중대한 작업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즉, 속초(東草)라는 지명이 문헌상에 최초로 기록<sup>4)</sup>된 것은 조선 단종 2년(1454)에 편찬된 ‘속초포(東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라는 기록을 속초 또는 우리 지역명칭-설악산, 영랑호 제외-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보고 있으나, 속초지역의 ‘덕산(德山)’이라는 지역명칭은 고려시대 충선왕(1309년)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지역 명칭에 대한 최고(最古)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속초지역이 언제 도천면과 소천면으로 분리되어 왔는지 정확한 사료는 전해지지 않으나, 속초 청대리에 약 600여년간 세거하던 인동 장씨 족보에 의하면,

장서 長緒(1565?) 묘: 소천 온정안산 所川 溫井案山 온정리의 안쪽산

장례 長禮(1555?) 묘: 양양 소천 매문허 이목동 襄陽 所川 每文墟 梨木洞

장운기 長雲記 (1575?) 묘: 도문 주교리 道門 舟橋里

약 16세기경부터 속초지역이 도문면과 소천면으로 분리되어 왔음을 추정할 수 있다.

속초(東草)는 옛날에 양양군 소천면 속초리에 불과했던 곳이었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어업의 발달로 인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터전을 이룬 곳, 광복이후 한국전쟁으로 함경도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도천면 속초리(과거 소천면 속초리)가 한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명(都市名)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 행정제도를 정비하여 1914년 전국을 13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군·도(島)를 두었으며 전국의 군을 220개로 정리하였는데, 이 때 양양군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이 도천면(道川面)으로 합쳐져 오늘날 속초시의 토대가 형성되었다.

속초지역의 지명은 「조선지지자료」의 내용 외에는 그 지역주민들의 증언에 의해 마을 지명을 해석해 놓은 실정이며, 각종 문헌기록에 나와 있는 지명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1921년에는 「조선도부군면정동리개정구역표」전국의 고유 지명을 개정하여, 순수한 토속적인 이름을 잃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인은 새로 발굴한 자료와 기존의 통설(通說)을 비교하여 속초지역의 고유지명을 찾고 그 변천과정을 연구·조사하여 고유지명으로 회귀(回歸)하고, 또한 지역 향토사학들조차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로 잡고자하는 바이다.

4)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속초포(東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단(單) 10명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최초의 기록이다

## II. 본론

- 통설 : 비선대(秘仙臺) = 영금정(靈琴亭)  
 ⇒ 비선대(秘仙臺)와 영금정(靈琴亭)은 별개이다.

옛 기록을 보면 속초지역에는 2곳의 비선대(飛仙臺, 秘仙臺)가 존재한다. 하나는 설악산에 위치한 비선대(飛仙臺)이고, 다른 하나는 청초호 동쪽 10리에 위치한 비선대(秘仙臺), 즉 지금의 영금정(靈琴亭)이라고 부르는 지역이다.

### □ 비선대(飛仙臺)

#### ○ 여지도서 양양부 고적조

飛仙臺 설악산 동쪽 식당동에 있다. 하얀 돌이 넓게 펼쳐져 맑은 물이 가운데로 흐르면서 흑은 퍼져서 폭포가 되고, 흑은 머물러 소가 되었다. 대의 북쪽 벽은 돌이 높게 솟아올라 빠빠하게 둑여 있는 것이 칼과 창같이 삼엄한 기세였다.<sup>5)</sup>

### □ 비선대(秘仙臺)

명칭	내용	문헌
비선대 秘仙臺	부의 북쪽50리, 쌍성호 동쪽에 있다. 돌 봉우리가 가파르게 빼어났고, 위에 노송 두어 그루가 있어서 바라보면 그림 같다. 그 위에는 앉을 만하며, 실 같은 길이 육지와 통하는데 바다 물결이 사나와지면 전널 수 없다. <sup>6)</sup>	《신증동국여지승람》양양 누정조, 《동국여지지》권7 양양 누대조
비선대 秘仙臺	양양부 북쪽 50리에 위치. 쌍성호 동쪽에 있으며 석봉이 가파르고 경치가 뛰어남. 옛날에 정(亭)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하였다. <sup>7)</sup>	《여지도서》양양부 누정조
비선대 秘仙臺	부의 북쪽 50리에 있다. 해상암석이 평평하고 넓어 가히 수십 인이 앉을 만하다. <sup>8)</sup>	《대동지지》영로편
비선대 秘仙臺	부의 북쪽 50리, 쌍성호 동쪽에 가파르고 빼어난 석봉이 있는데 가히 볼만하다. 예전에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하였다.	《관동읍지》양양 누대조
비선대 秘仙臺	"	《관동지》13 양양 누대조
비선대 秘仙臺	"	《강원도 양양읍지》2
비선대 <sup>9)</sup> 秘仙臺 <sup>9)</sup>	부의 북쪽 50리에 있다. 해상암석이 평평하고 넓어 가히 수십 인이 앉을 만하다.	《현산지》누대조

〈 표 - 1. 각종문현상의 비선대 〉

5) 在府西五十里□(金)堂洞白石平鑄清川中流或布而爲瀑或渟而爲潭臺之北壁石嶂突□(慾)森束如鉤戟樣

6) 在府北五十里變成湖東有石峰峭拔上有獨松凝株望之如畫其上可坐有徑如線通陸海惡則不得渡

7) 在府北五十里變成湖東有石峯峭拔可觀舊有亭今廢

8) 在湖之東北石峯峭拔其上可坐

9) 在府北五十里海上鑄石平寬可坐數十人

비선대(飛仙臺)는 현재까지 같은 이름으로 불리어지는데, 청초호 동쪽의 비선대(秘仙臺)는 지금은 영금정(靈琴亭)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며,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다만, 설악산의 비선대(飛仙臺)가 최초로 문현상에 등장한 것은 1760년대 간행된 『여지도서』이고, 청초호 동쪽의 비선대(秘仙臺)는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청초호 동쪽의 비선대(秘仙臺)가 더 빠르다.

그러나, 이지역에 사는 시민들과 일부 사학자들도 비선대와 영금정을 동일(同一)지역명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sup>10)</sup>에서는 ‘영금정에 대해 속초(東草) 등대 밑 동쪽 바닷가에 3면이 바다와 잇닿아 있고, 한쪽 면이 육지와 잇닿은 석산이 있었는데, 이 석산이 영금정(靈琴亭)이라고 부르던 곳으로. 일제시대(日制時代) 말기 속초항 개발 때, 이 석산을 파괴하여 여기서 돌을 채취하여 축항에 이용하였으므로, 현재 석산은 없고 그 자리는 넓은 바위로 변했으며 영금정(靈琴亭)이라는 지명은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영금정(靈琴亭)은 누대(樓臺)정자가 있어서 영금정(靈琴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석산 꼭대기에 괴석들이 정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파도가 석벽에 부딪칠 때면 신비한 음곡(音曲)이 들리는데 석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아무도 없어서 산이 거문고를 타는 것이라고 하여 ‘영금정(靈琴亭)’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또한 선녀들이 밤이면 남몰래 하강하여 목욕도 하고, 신비한 음곡조(音曲調)를 들으며 즐기는 곳이라고 하여 비선대(飛仙臺)라고도 한다. 고 하여 ‘비선대 와 영금정’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또 다른 시각<sup>11)</sup>으로는 ‘속초(東草) 등대 밑 동쪽 바닷가에 삼 면이 바다와 잇닿아 있고, 한쪽 면이 육지와 잇닿은 석산(石山)이 있었는데, 이 석산이 솔산이다. 지금은 방파제 쪽에 일부만 남아 그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곳 일대를 통칭하여 비선대(秘仙臺)라고 불렀다. 비선대라고 불리게 된 것은 솔산 위에 비선대라는 정자가 있었기 때문이며, 조선 시대에는 영금정(靈琴亭)이란 땅이름이 쓰이지 않았고, 일제 시대에 들어와 불리기 시작했다고 하고, 주목할 것은 정자의 존재 여부를 지역에서 만든 『관동읍지』, 『관동지』, 『양양군읍지』등의 책에서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정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데, 이는 비선대(秘仙臺)가 아닌 영금정(靈琴亭)의 존재로 보면 될 것이다.’라고 하여, 비선대와 영금정을 같지 않은 것으로 보고 도암 상서 이재가 일찍이 산을 유람하다 이곳에 도착하여 수일동안 시를 읊었다고 하여, 현수참의 이휘진이 호수인근에 정자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완성 전에 침산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곳의 위치가 청초호 동쪽의 빼어나 해안 즉 비선대임을 예로 들어 정자(亭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한자(漢字) ‘대(臺)’라는 의미는 ‘놀고 평평한 곳’<sup>12)</sup>으로 건물이 있는 곳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10) 『속초의 지명』, 32 ~ 33페이지, 1990년, 속초문화원

11) 『속초의 옛명이름』, 20페이지, 2002년 속초문화원

12) 다음 한자사전

정(亭) 또한 정자라는 의미의 조망대, 관망대 건물일수도 있지만, ‘우뚝 솟다’라는 의미도 있다. 즉, ‘정(亭)’이란 한자어가 있다 해서 무조건 정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영금정이란 파도가 석벽에 부딪칠 때 신비한 곡조의 음을 내므로 산이 거문고를 탄다는 뜻에서 불인 이름라고 한다. 영금정이라는 명칭이 문헌상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시절 발간된 『면세일반』이라는 행정자료이다. 면세일반을 자세히 보면 비선대와 영금정은 다른 곳임을 알 수 있다.

1926년 발간된『면세일반』에는

‘속초리 동쪽 끝 암초에 돌출해 기이한 형상과 묘한 그림 같은 것을 칭하여 비선대(秘仙臺)라고 한다. 이곳에서 바위에 기대어 내려다보면 동남쪽의 조도는 바다에 하나의 떨어진 산과 같이 구름 끝에 우뚝 솟아 송도부근에 크고 작은 둑단배가 있는 것 같다.(중간 생략)  
높이 쌓은 대의 영금정은 수십척의 석벽사이에 길이 7간 폭 7간이며 골짜기 가운데 한 개의 바위 봉우리가 돌출해 그 모양이 특히 신기하다고 한다.’

윗 지문에서 비선대와 영금정이 동시에 나온다.

비선대는 신비한 암초 전체의 형상을 일컫는 명칭이고, 영금정은 그중에 하나인 길이 7간 폭 7간이며 골짜기 가운데 한 개의 바위 봉우리가 돌출한 그 모양의 바위를 일컫는 듯하다.

즉 영금정을 석벽과 석벽사이에 위치한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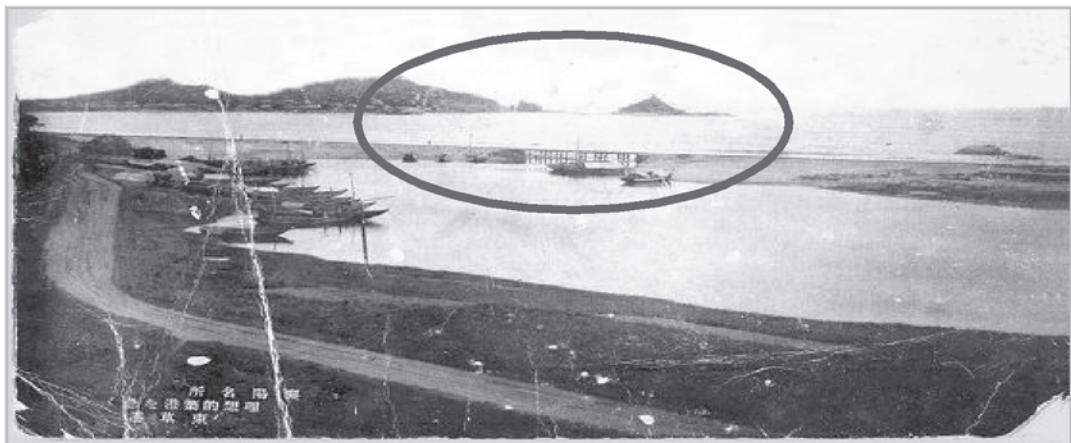
길이 7간, 폭 7간을 지금의 단위(1간 = 1.8m)로 환산하자면, 144m<sup>2</sup>(약 44평)으로 상당히 넓은 공간이다. 『대동지지』 영로편에 ‘해상암석이 평평하고 넓어 가히 수십 인이 앉을 만하다.’는 기록이 신빙성이 가는 대목이다.

속초지역의 유학자인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선생께서 작성하신 매곡일기(梅谷日記)에는 ‘속초 영검정(靈檢亭)동북쪽 끝에 반석이 평평하게 깔려있고, 그 위에 반석 절반이 올려져 있는데 그 길이는 8척(24m, 1척 = 3.3m), 두께는 2척(6m), 넓이는 5척(15m)이다. 이는 신의 힘인지 사람의 힘인지 알 수 없다.’<sup>13)</sup> 하여 『대동지지』에 표현된 것처럼 영금정이 상당히 넓은 바위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비선대’라는 명칭은 신비한 암초가 있는 ‘지역의 총칭’을 말하는 것이고, ‘영금정’이란 명칭은 ‘비선대의 많은 바위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13) 1930. 4. 8일자 일기, 1011페이지, 『국역 매곡일기(梅谷日記)』, 2007, 속초시 · 속초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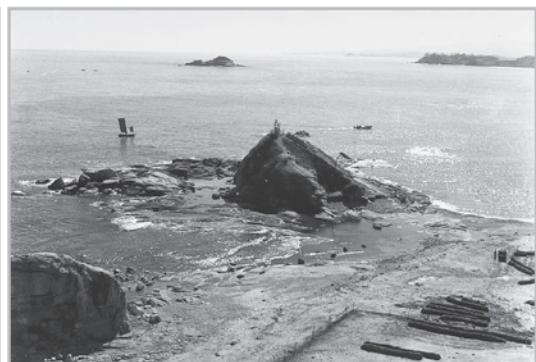
(사진-1) 비선대와 영금정 관련 사진



(1920년대 추정?)



1940년대 추정



1950년대



(2000년대)

2. 통설 : 내옹진 = 대포리, 외옹진 = 외옹치리 또는 옹진리 = 외옹치리  
 ⇒ 옹진리 = 내옹진 + 외옹진, 내옹진 + 대포리 ⇒ 대포리

양양에서 속초로 오는 7번국도상에서 대포항 있는 오른쪽을 보면 항아리모양처럼 생긴 언덕이 보인다.

이곳을 대표하던 지명은 ‘덕산(德山)’이다. 덕산이란 이름이 문헌상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삼일포매향비이다. 중국 원나라 연호인 지대 2년(1309) 충선왕 1년에 삼일포매향비(삼일포매향비) 비문에서 ‘용화회주이신 미륵이 하생하기를 기다리며 미륵보살이 하생할 때 우리들도 함께 태어나 용화회에 참석하여 삼보를 공양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원드리며 양양 덕산망(德山望)에 매향(향나무를 심음)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기록상의 ‘덕산’에는 조선시대 봉수(烽燧)가 있던 곳으로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지였던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봉수로서의 덕산(德山)<sup>14)</sup>의 기록이 전해지며, 《현산지》 진보(鎮堡)조에는 덕산진(德山津)<sup>15)</sup>부(府) 북쪽 25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덕산’이라는 명칭이 봉수(烽燧)가 위치한 산(山)이 아닌 배가 드나드는 진(津)의 지명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 초만 해도 속초의 중심지는 옹진(甕津)<sup>16)</sup>이라 할 수 있다. 1918년 조선풍독부에서 발행한 「조선오만분의일 지도」를 보면 속초지역을 나타내는 명칭이 ‘옹진(甕津)’으로 되어있으며, 《강원도 양양읍지》의 지도에도 옹진과 속진이 대표적인 마을로 표시되어있다. 또한 조선시대 역(驛)이 아니면서 옹진에 이참(里站)<sup>17)</sup>이 있던 곳으로 봐서 어업을 통한 사람의 왕래가 잦았던 곳으로 비교적 큰 마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속초가 도천면의 대표마을이 된 것은 속진(東津)이 항(港)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하기 시작한 것은 1934 ~ 36년 경 부터이다. 이후 1937년 도천면이 속초면으로 되고, 면 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면서부터 당시 인구 1만명의 도시로 번창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지도서》방리에는 양양군 도문면<sup>18)</sup>에 상도문리(上道門里), 하도문리(下道門里), 물치리(勿編里, 勿淄 한자오류), 대포리(大浦里), 옹진리(甕津里)를 두었으며, 1921년에 발간된 「조선도부군면

14) 在府 三十六里

15) 德山津 在府北二十五里

16) 『국역 매곡일기(梅谷日記)』, 2007, 속초시 · 속초문화원 中

1912. 3. 7일자 일기, 옹진출장소(甕津出張所)로 내려가서 산일을 재판하였다. 556페이지

1912. 7. 8일자 일기, 큰비가 몹시 쏟아져 종일 쉬지 않았다. 농사를 해치는 것을 탄식하였다.

듣자하니, 옹진(甕津)에서 집이 파손되고 사람이 다쳤다. 어찌 고변이 아니겠는가?, 564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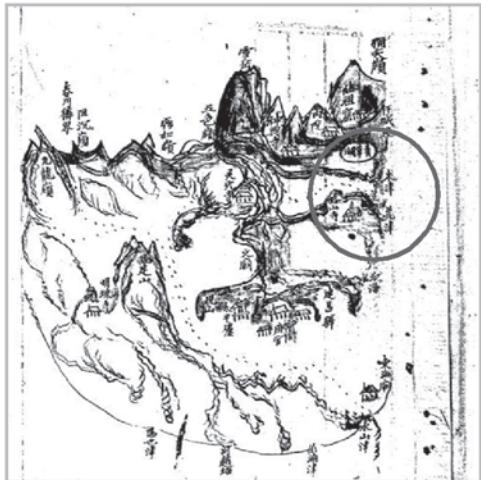
1915. 3. 6일자 일기, 옹진대로(甕津大路)의 경계를 나누기위하여, 629페이지

1915. 11. 4일자 일기, 옹진(甕津)에 내려가서 방파제에 부토하는 것을 보고.. 644페이지

1915. 11. 12일자 일기, 옹진주재소(甕津駐在所)에 갔다. 644페이지

17) 《현산지 이참조》 汶濱○二十里, 德山○二十五里, 栗阜○三十里, 東津地境○三十五里

18) 道門面|上道門里|下道門里|勿編里|大浦里|甕津里|



(그림-1) 강원도 양양읍지 지도

(大浦)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대포리(大浦里)에 관한 기록은 『여지도서(輿地圖書) 양양 방리조』에 “대포리(大浦里) 관문으로부터 북쪽 25 리에 있다.<sup>19)</sup>”라고 하고 있고, 또한 ‘대포리(大浦里)는 조선 시대 내내 행정지역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만 인구가 감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1918년에 편찬된 『최신조선지리』에는 내옹진과 외옹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진은 오늘날 대포동을, 외옹진은 현재 외옹치(外翁峙)를 지칭한다.’는 기록을 인용하여 ‘내옹진 = 대포리’로 보고 있다.

한편, 『속초의 지명』에서는 ‘대포(大浦里)’라는 큰 포구라는 뜻으로 한개라고 부르던 것을 한자(漢字)로 대포(大浦)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되었다. 또 외옹치리(外翁峙里)가 독재라는 고개의 바깥에 있다고 하는데, 밧독재라고 하는데 대하여, 대포리(大浦里)는 독재의 안쪽(육지쪽)에 있다고 하여 ‘안독재’ 또는 ‘독재’ 밑에 있는 큰 마을이라고 하여 ‘큰독재’라고도 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조선(朝鮮) 후기 읍지(邑誌)를 살펴보면 옹진리(翁津里)는 오늘날의 대포(大浦)가 아니고, 외옹치리(外翁峙里)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 대포(大浦)는 일제시대(日帝時代)에는 상당히 큰 항구로 이 고장의 문호 역할을 담당했었다. 그리고 1937년까지 도천면(道川面) 사무소가 위치했었다.’고 하여 ‘옹진리 = 외옹치리’로 보고 있다.

옹진리에 대해서도 『속초의 옛 땅이름』에서는 ‘조선 시대부터 면, 리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그때 외옹치(外翁峙)의 행정지역 이름은 독 나루터라는 뜻의 한자 표기 방식으로 옹진(翁津)이었다. 이후 편찬된 지리서에서도 편호나 인구수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은 볼 수 있으나 행정 땅이름은 변함없이 옹진리(翁津里)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1914년 3월 1일 부령 제 111호로 지방제도의 개혁에

정동리개정구역표』를 보면 도천면은 장항리,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내물치리, 대포리, 외옹치리, 부월리, 논산리, 노리, 속초리의 11개리로 되어 있는데, 1920년대에는 ‘물치리’가 ‘내물치리’로, ‘외옹진리’가 ‘외옹치리’로 이름이 바뀐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대포리에 대해서 『속초의 옛 땅이름』에서는 ‘대포(大浦)의 ‘포(浦)’는 그 훈(訓)이 개(浦)이니, 옛 사람들은 큰 개라고 하던 것이 한자로 대포(大浦)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한다. 대포는 속초(束草)에서 양양(襄陽)의 물치 쪽으로 들어가는 길목 일대로 쌍천 하구의 큰 개를 말하는데, 큰 개(浦), 갯가라는 뜻의 한 개를 한자로 대포

19) 大浦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三十四男三十五口女六十九口

따라 도천면(道川面)으로 통합되었고 여전히 행정구역으로 옹진리(甕津里)로 기록되어 있으며, 1918년 발간된 『최신조선지리』에 내옹진, 외옹진리로 기록되어 있다.'는 기록을 인용하여, '내옹진은 오늘날 대포리, 외옹진은 외옹치(外甕峙)로 추정된다.'고 하여 '내옹진 = 대포리, 외옹진 = 외옹치리'로 보고 있으며,

『속초의 지명』에서는 독재의 바깥쪽이므로 바깥독재, 또는 줄어서 밖독재라고 불리어졌고, 『여지도서(輿地圖書)』, 조선(朝鮮) 후기 읍지(邑誌) 등을 보면 조선시대 행정상 명칭은 옹진리(甕津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日帝時代) 부터 외옹치리(外甕峙里)로 바뀌었다고 하여 '외옹치리 = 옹진리'로 보고 있다.

즉, 『속초의 옛 땅이름』에서는 '내옹진 = 대포리, 외옹진 = 외옹치리'로 보고 있으며, 『속초의 지명』에서는 '외옹치리 = 옹진리'로 비정하고 있다.

『조선지지자료』에서는 대포리의 언문명을 '큰독재'로 표시하였으나, 지역에서는 '한 개'의 의미를 한자어로 바꾼 대포로 비정하고 있으며, 이는 두 향토사서에서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여지도서』 방리조에서는 옹진리가 도문면 관할(주16 참조)로 되어 있는데, 1919년경으로 추정되는 『조선지지자료』를 보면 대포리는 도문면 관할이고, 외옹진리는 소천면 관할<sup>20)</sup>로 있다.

또한 포구명(浦口名)에는 도천면의 옹진(甕津, 비고 도문면 대포리), 소천면의 속진(束津, 비고 소천면 속초리)이 표시되어 있다. 리동명(里洞名)에 속진(束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속초와 속진이 합쳐진 후 항구명으로만 속진이 계속 사용되어 온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옹진리는 사라지고 외옹진리와 대포리로 나눠지지만 항구로서의 옹진은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필자가 새롭게 찾은 종로도서관에 소장된 1918년 이전에 제작된 또 다른 지도〈사진-2 참조〉도 옹진리를 내옹진(內甕津)과 외옹진(外甕津)으로 분리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또한 내옹진은 도문면 관할로, 외옹진은 소천면 관할로 되어있다.

도문면과 소천면이 합쳐져 도천면이 된 것은 1914년이니 이 지도는 1914년 이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의 옹진리가 도문면 관할이었던 것을 일제가 1914 ~ 21년을 사이에 내옹진과 외옹진으로 분리해 내옹진을 대포리에 병합시키고, 외옹진을 외옹치리(外甕峙里)로 각각 변경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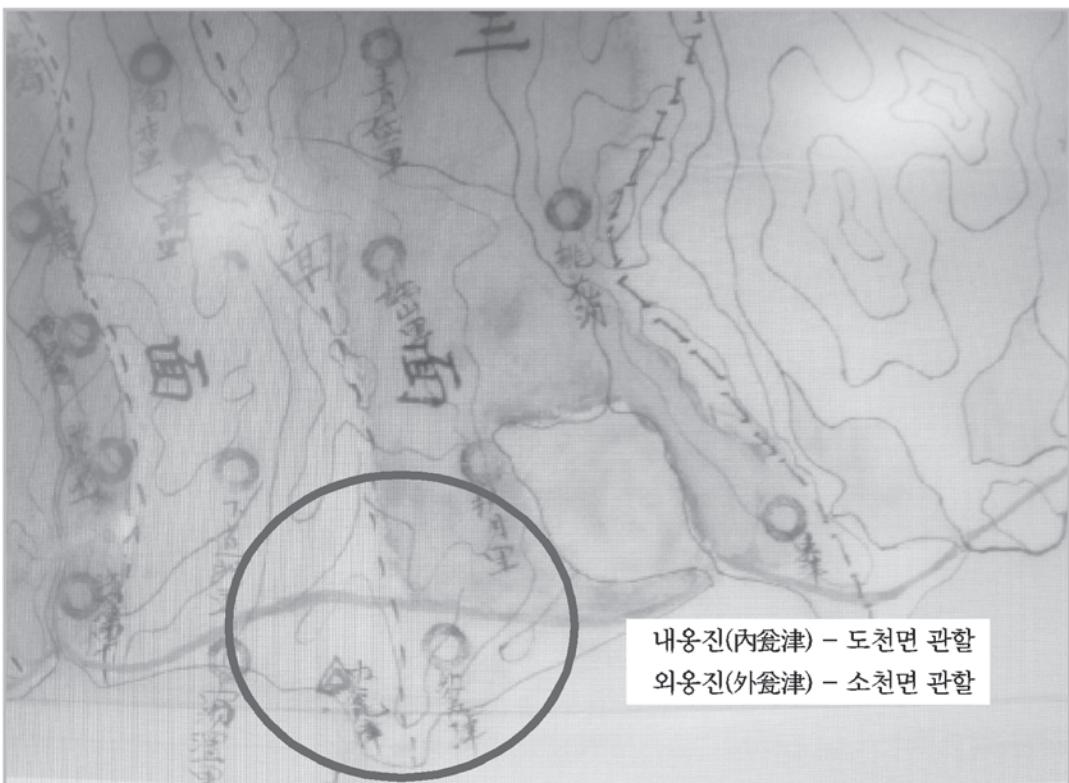
20) 415페이지, 양양면, 『조선지지자료』강원도편, 2007년, 경인문화사

한편, 매곡일기(梅谷日記)의 내용 중 ‘외옹치(外翁峙) 노순경이 와서’<sup>21)</sup>의 부분을 통해 외옹치리라는 행정명칭이 생겼다고 해서, 외옹치라는 명칭이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고, 기존의 명칭이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표-2〉는 각종 문헌기록과 일제강점기 시대의 자료를 바탕으로 외옹치리와 대포리의 행정구역 변천과정을 도표화한 것인데, 옹진리가 내옹진과 외옹진리로 분리되어 그중 내옹진이 1918년 이후에 대포리에 흡수된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1760년 (여지도서)	1870년 (관동읍지)	1887년 (양양읍지)	1910년 현산지	1914년 지도(?)	1918~ 1921년	1930년	1942년
외옹치리	옹진리	옹진리	옹진리		외옹진	외옹진리	외옹치리	외옹치리
					내옹진	대포리		대포리
대포리	대포리	대포리	대포리		대포리			대포리

〈 표- 2. 외옹치리와 대포리의 변천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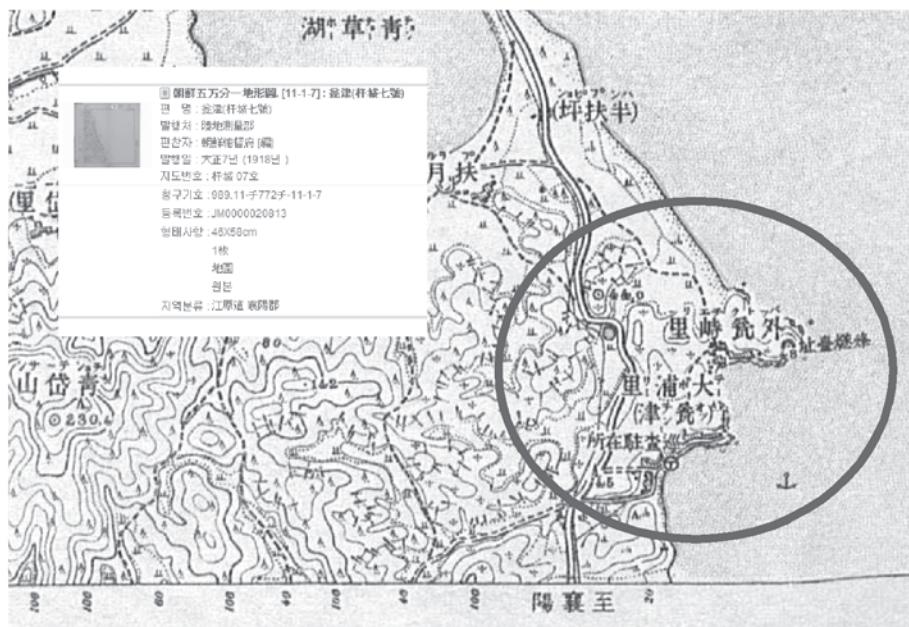
〈 사진 – 2. 1918년 이전 도문면, 소천면의 행정구역 지도 〉

21) 1912. 5. 26, 562페이지, 국역 매곡일기(梅谷日記), 2007, 속초시 · 속초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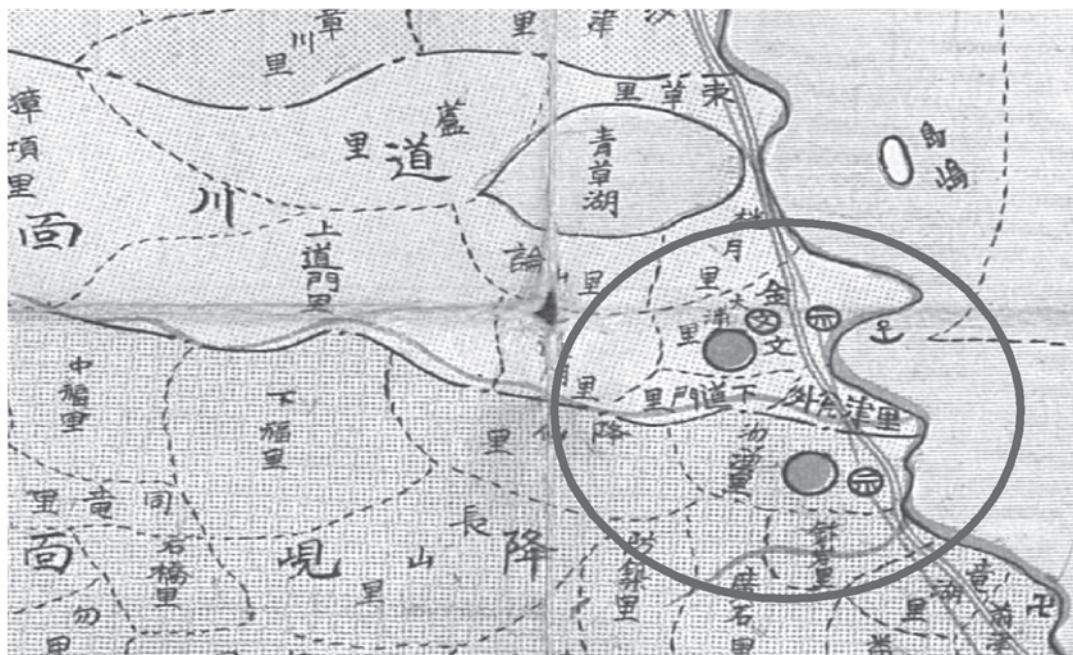
## &lt; 지도 2-6-1 &gt; 1912년 지도 재구성



&lt; 사진 – 3. 1914년 이전 도문면, 소천면의 행정구역 지도(복원) &gt;



&lt; 사진 – 4. 조선오만의일지형도 간성7호–옹진의 지도(1918년, 조선총독부) &gt;



〈 사진 – 5. 1930년 발간된 양양군세일반 도천면의 행정구역 지도 〉



### 〈 사진 - 6. 1920~30년대 솔초지도 〉



〈 사진 – 7. 1960년대 속초지역 항공사진 〉



〈 사진 – 8. 2000년대 속초지역 항공사진 〉

3. 조도(鳥島)는 원래 명칭은 무로도(無路島)이다.

속초에는 섬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 흔히들 많은 갈매기들이 모여들어서 ‘조도(鳥島)’라고 불려 왔다. 그러나 어느 누구하나 이 섬이 원래 이름이 조도가 아니었음을 궁금해 한 적이 없다. 당연히 조도라고 불리우니 ‘아! 조도였구나’ 한 것이다.

조도(鳥島)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현산지》에 전한다. 《현산지》도서(島嶼)편에는 지금의 무로도(無路島)는 양양에서 북쪽으로 35리 떨어진 속초진의 동쪽에 있으며, 대나무가 난다.<sup>22)</sup>고 하였다. 실제로 대동여지도, 청구요람, 동여도에는 무로도(無路島)를 ‘로도(路島)’, ‘무도(無島)’라도 표기하였다.

그런데 무로도(無路島)<sup>23)</sup>는 《청구요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북쪽으로 올려져 표기되어 있다. 이는 조선후기에 편찬된 모든 지도가 전국을 빠짐없이 돌아다니면서 기록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앞 시기에 편찬된 지도를 참고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예를 들어 무로도(無路島) 위에 표기된 패도(卦島)는 지금의 문암리(옛지명 패진), 교암리 앞에 위치한 섬으로 지금은 가도(駕島)로 불리우고 있다. 죽도는 오호리 앞바다에 있는 섬으로, 봉포리 앞바다의 섬도 죽도로 불리운다. 즉 대동여지도상〈사진 - 9 참조〉의 황포(지금의 삼포) 앞바다에는 죽도(竹島)가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지도상에는 패도(卦島)가 위치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동여지도, 청구요람, 동여도 모두 한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 사진 - 9. 대동여지도 간성 · 양양(1861) 〉

〈 사진 - 10. 청구요람 간성 · 양양(1834) 〉

22) 無路島 在北三十里東草津東產竹

23) 무로도(無路島)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가는 길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불인 경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사진 – 11. 동여도<sup>24)</sup>간성 · 양양(철종, 고종 연간) 〉



〈 사진 - 12 조선오만분의일 지형도(1918년 조선총독부) 〉

24) 동여도는 철종·고종 연간에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가 만든 필사본의 전국 채색지도로, 병풍처럼 접고 펼 수 있는 분첩집첩식(分冊折帖式) 형태로 되어 있다. 지도는 산천포시와 함께 주현별(州縣別) 경계선을 그어, 주현간의 도로를 표시하였다. 그 바탕 위에 영진(營鎮), 주현(州縣), 진보(鎭堡), 역도(驛道), 목소(牧所), 방면(坊面), 창고(倉庫), 봉수(烽燧), 능침(陵寢), 성(城), 도로(道路), 파수(把守) 등을 표시하였다. [출처 : 다음백과사전]

### III. 결론

이상으로 우리는 속초지역의 지명에 대해 일제가 바꿔놓은 사례를 통해 변천과정 및 원래의 지명을 살펴보았다.

정리하자면

1. 비선대(秘仙臺)와 영금정(靈琴亭)은 별개이다. 즉, 비선대라는 명칭은 지역의 총칭을 말하는 것이고, 영금정이란 명칭은 영금정은 석벽과 석벽사이에 위치한 공간으로 비선대의 많은 바위 중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앉을 수 있을 만큼의 바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2. 웅진리(행정구역상)는 1910~20년 당시 속초지역을 대표하는 명칭과 지역으로, 내옹진(마을이름)과 외옹진(마을마을)으로 구분되었는데, 대포리와 내옹진이 같은 곳이 아니고 대포리와 내옹진이 병합되어 대포리가 되었고, 외옹진은 외옹치리로 바뀌었다. 또한 외옹치리로 새롭게 생긴 명칭이 아니라 기존의 지역 명칭이다.

A설	B설
○ 내옹진 = 대포리	○ 외옹진 = 외옹치리
○ 웅진리 = 외옹치리	
○ 당초 : 웅진리(내옹진, 외옹진), 외옹치, 대포리가 공존	
○ 변경 : 내옹진 + 대포리 ⇒ 대포리, 외옹진 + 외옹치 ⇒ 외옹치리	

3. 현재의 조도(鳥島)의 원래이름은 무로도(無路島)이다.

평창군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대관령이 있는 ‘용산면(龍山面)’이라는 지명을 조례개정을 통해 대관령면(大關嶺面)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다.

현재 영금정과 외옹치, 조도 모두 대포항과 함께 속초를 대표하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기 때문에 쉽게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지역명칭의 어원과 변천과정만큼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어떤 연유로 불리게 되었는지는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다.

### IV. 참고문헌

김연옥, 「한국의 기후지명에 관한 연구」 1986,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論叢 제49편 259p  
 정장호, 42페이지, 「강원도지명의 유형별분포에 관한 지리학적연구(2)」, 강원대 강원 문화연구소  
 「강원문화연구」 제13집

『속초의 지명』, 1990년, 속초문화원

『속초의 옛 땅이름』, 2002년, 속초문화원,

『면세일반』, 1942년, 일제강점기시절 자료

『국역 매곡일기(梅谷日記)』, 2007, 속초시 · 속초문화원

『조선오만분의일 지형도』, 1918년, 조선총독부

《조선지지자료》 강원도편, 2007년, 경인문화사

종로도서관 고문헌 원문검색 <http://jongnolib.koreanhistory.or.kr/dirservice>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여지도서》

《관동읍지》

《관동지》

《현산지》

# 문화 논단

- 설악산 영문 기행일기와 설악동인계 고찰
- 공유경제와 문화예술

# 설악산 영문 기행일기와 설악동인계 고찰

장정룡

강릉원주대 교수

## I. 머리말

## II. 1920년대 찰스 헌트의 설악기행일기

- 1) 찰스 헌트의 설악기행일기 특징
- 2) 찰스 헌트의 설악기행일기 원문

## III. 1960년대 설악동인계 내용과 시문

- 1) 설악동인계의 내용과 특징
- 2) 설악동유기행문(글:이인해)
- 3) 설악동인시첩(절구시 39수)

## IV. 맷음말

## V. 참고문헌

## 1. 머리말

명산 설악산 기행문은 그 수량이 많지 않다. 따라서 설악산 관련 자료를 탐색하여 글을 쓰는 일도 쉽지 않다. 다행스럽게 1920년대 영문으로 작성된 설악기행일기와 1960년대 국한문 혼용 설악동인계 문집을 찾아서 본고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 두 자료는 나름의 특징을 지닌다. 하나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여러 장의 사진도 수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국내의 영남 지역주민들이 설악동인계를 조직하여 설악을 탐방하고 한시를 짓고 그것을 문집으로 엮은 것이다. 그러므로 시기도 다르고, 기술방식도 다르지만, 당시의 설악산 탐승정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설악산에 대한 사랑은 이와 같이 국적을 달리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그들의 지향점은 한결같았던 것으로 보인다.

설악은 팔기(八奇)와 팔경(八景)을 고루 갖추었고 다른 여타의 산과 달리 신성한 산이라는 이름으로 ‘술뫼’로도 불렸다. 설악산 유산록은 조선시대 김창흡의 설악일기(1705년)를 비롯하여 홍태유의 유설악기(1705년), 이정소의 유설악록(1733년), 이복원의 설악왕환일기(1753년), 정범조의 설악기(1779년) 등이 전하며 근대에 이르러 영국인 찰스헌트의 설악기행일기(1923년), 이은상의 설악행각(1933년), 설악동인계 시문집(1965년), 이여문의 설악기행(1976년), 이승녕의 명산 설악(1977년) 등이 오늘날까지 설악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이제, 설악산의 그 숨겨진 자태를 드러내어 세계적인 명산으로 그 위상을 정립해나가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세계의 여러 명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하겠지만, 금강산에 비교우위를 지닐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설악 나름의 이야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고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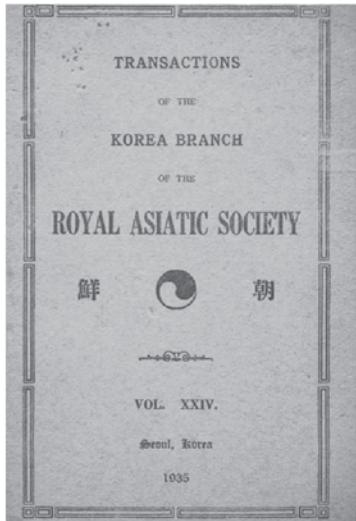
## 2. 1920년대 찰스 헌트의 설악기행일기

### 1) 찰스 헌트의 설악기행일기 특징

이 기행일기는 지금부터 90년 전 영국인에 의해 쓰여진 최초의 본격기행 수필문학 작품으로 평가된다. 1923년 찰스 헌트(Charles Hunt)가 쓴 이 글의 원제목은 〈DIARY OF A TRIP TO SUL-AK SAN〉이다. 1923년 6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탐사한 설악산 경관을 9쪽 분량으로 기록하였으며, 신흥사, 건봉사, 오세암, 낙산사 등 흑백사진 9장을 수록한 사찰역사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설악권 지명을 영어, 한자, 한글, 한시문도 써놓는 등 외국인 수필로 연구가치가 높다. 예를 들면 ‘설악산’을 영어로 ‘The Sul-Ak Mountains’(雪嶽山, 설악산)로 표기하는 등 세심하게 기록하였다. 찰스헌트는 영국인 선교사로서 설악권 불교사찰문화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기록하였고, 설악산 마등령 등반길에서 절벽에 핀 에델바이스를 한국에서 처음 보았다고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설악산 아름다움을 표현했고, 건봉사 부처님 진신치아사리와 오세암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설악권인 동해안 낙산사는 티벳과 달라이라마에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설악산기행은 1934년 6월 4일 서울 영국왕립아시아학회 정기연례회서 발표하였다. 1900년 창립된 영국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Korea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발간, 『조선』 제24호(1935년판)에 수록되었다.



DIARY OF A TRIP TO SUL-AK SAN  
(Via the Diamond Mountains.)

June 4th-20th, 1923

A precedent has already been created for publishing such a diary in the *Transaction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in that Dr. Gale published his interesting diary of a trip to the Diamond Mountains in Vol. XIII, 1922.

The chief interest in this diary now presented is that to most foreigners in Korea the Sul-Ak Mountains are unknown. As far as I am aware, the late Bishop Trollope and I were the first foreigners to visit these mountains, and by the publication of this diary many will perhaps be moved to visit the places recorded.

The Sul-Ak Mountains (雪岳山 설악산) (The Mountains of Snow) are in In-Jay District (麟蹄郡 임제군) in the Province of Kang-Won. This range is said to be covered with snow later into the year than any other mountains in Kang-Won Province. The mountains are now listed by the Government as a National Reserve. They can be approached by road from Seoul via Su-Wan, Yo-Ju, Won-Ju and Hong-Chun or, as we approached them, down the East Coast from Wonsan.

The object of our journey was first to visit Kyen-Pong-Sa, a temple on the spur of the Diamond Mountains near Kan-Song; then to pass over Sul-Ak-San, eventually walking down the east to Kang-Neung, and inland to O-Tai-San (五臺山 오대산). We were, however, prevented from getting to O-Tai-San since after sixteen days' walking and sight-seeing our purses were reduced and our shoe leather worn out, so that on reaching Chu-Mul-Li, a port on the East Coast, we took ship to Po-Haing and returned from there by train to Taikyu to Seoul. (After Bishop Trollope's death I visited O-Tai San with Bishop Cecil in 1930 and a diary of the journey was kept and may be published at a later date).

SUL-AK SAN

PLATE 6.



## 2) 찰스 헌트의 설악기행일기 원문

오전 9시 전봉사를 떠나 11시경 간성읍에 당도. 11시30분경 간성읍 출발, 해안을 따라 20리를 내내 철벽거리며 걸어서 오흐리에 도착, 거기서 점심을 먹고 3시에 다시 길을 떠나 20리를 걸어 새령 기슭의 행도원이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여기서 숙박. 밤새 짙은 안개와 구름.

6월 11일 월요일 아침 7시 출발, 물기 머금은 구름 헤치고 해발 2,600 피트의 가파른 새령 길에 오르다. 막 피어나는 목련, 소합향 (蘇合香, 대죽나무속의 관목), 고광나무들 우거진 새령의 초목은 아름다웠다. 10시경 새령 정상에 당도. 새령 맞은 편 날씨는 무척 맑았다. 장회와 용대리를 지나 서울로 가는 길을 따라 가평으로 서서히 하산. 가평에서 점심 식사 후 왼쪽 방향으로 길을 잡아 백담 계곡을 향해 올라가는데 200야드 가량의 벼랑길에는 나무 말뚝이 박혀있었다. 25리를 올라 백담사 당도. 저녁에 또 다시 구름이 끼더니 밤중에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일었다. 사찰과 그 주변은 별로 볼 게 없었다. 최근에 개축된 것이라고 한다.

6월 12일 화요일, 아침 9시 30분 백담사 출발. 멋진 날이다. 아름다운 암자 영시암까지 곳곳에 연못(沼)이 자리한 그림 같은 골짜기를 지나다. 여든 살도 더 되어 보이는 노승이 홀로 거쳐하고 있다. 능선을 따라 오르며 시내를 건너 원명암을 지나 1시경 오세암에 도착. 계곡에 '성모의 심장'

(Coeur de Notre Dame)이 잔뜩 피어있는 걸 보았다.

오세암은 웅장한 해발 3,200피트의 원형 분지 속에 위치한 매력적인 암자인데 활력 넘치는 몇 명의 노승을 포함해 8~10명가량의 승려가 머물고 있다. 이층으로 된 오세암의 위층에는 불경 고전과 당나라 시인 두보의 전집이 소장되어 있다. 여기서는 산과 산, 끝이 면도날처럼 뾰족한 가파른 절벽이 연달아 이어져 있는 것이 보인다. 이는 금강산의 마하연에서 보는 광경에 필적한다. 오세암의 기원은 오래전 다섯 살 난 아이가 여기 작은 암자에 주석하고 있던 한 승려가 원행을 나간 사이 이곳에 버려진 데에 기인한다. 심한 폭설 때문에 승려는 돌아오지 못하고, 아이는 관음보살의 보살핌을 받았다. 노승이 돌아오자 관음보살은 파랑새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 사라졌다. 이곳은 1878년 재건되었다.

6월 13일 수요일 아침 8시 30분 오세암 출발. 힘들게 암자 뒤편의 산등성이를 1,500피트나 올라 해발 4,700피트의 마등령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부터 무수한 절벽과 계곡을 넘어 멀리 동해바다까지 장엄한 자연의 파노라마가 펼쳐졌다. 힘든 3시간의 산행. 바위 위에 핀 에델바이스를 발견했다. 한국에서 본 최초의 에델바이스다. 오후 1시 계곡 아래에 당도. (해발 약 1,500 피트) 그곳 작은 연못가에서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약 5리를 더 가 신흥사에 도착한 시간은 6시 무렵으로 우리 모두 녹초가 되어있었다. 우리는 거울 같은 거대한 바위가 비치는 멋진 작은 못에서 목욕을 했다. 10~12명의 승려가 거처하고 있는 근사한 사찰 신흥사의 연원은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현재의 위치에 재건축된 것은 280년 전이다. 옛 절터는 길 아래쪽 5리 지점에 자리한 탑이 알려준다. 울산봉으로 이어지는 계곡의 풍광은 절경으로 정상의 암자 때문에라도 꼭 들러봐야한다.

극락보전이라는 이름의 신흥사 법당은 아주 멋진 오래된 건물로 벽에는 삼존불과 몇몇 이색적인 프레스코화가 있고 장서표와 일상 가구가 비치되어 있다. 또한 대리석으로 만든 촛대와 향로도 있다. 뒤쪽에 입적한 주지들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조사당을 마주하고 사무실이 딸린 멋진 강원이 있는데 30x60의 마루가 깔려있다. 경내에는 또 천왕이 안치된 천왕문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 신흥사와 그 주변은 흙날 다시 찾아 좀 더 살펴보려고 한다.

6월 15일 금요일 우수 1시 30분 신흥사를 떠나 계곡을 지나 물치 바닷가까지 걸었다. 약 30리 거리다. 도중에 도로를 지나 10리를 더 가 낙산사에 당도. 시간은 저녁 6시. 그곳에서 숙박. 낙산사는 해발 약 700 피트의 나무 우거진 오봉산이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절은 전에는 각각 출입문이 있는 한 면이 약 400 미터 가량 되는 성벽에 둘러싸여 있었다. 붉은색 벽돌담 위에 기와를 얹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경내에는 3개의 주요 건물이 있는데, 모두 1890년경에 개축된 것이다.

(a) 원통보전(관음전):이 법당에는 조각과 채색이 빼어난 위엄 넘치는 대형 보살상이 나란히 안

치되어 있다. 채색 옷을 입은 흰색이 관세음보살이고, 온통 금박자수가 된 불상이 Yeng-Chun 보살이다. 법당 벽에는 훤히 보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b) 영산전: 이곳에는 석가여래가 아난존자와 가섭존자, 그리고 16나한상과 함께 모셔져 있다.

(c) 용선전(龍船殿): 세조대왕의 위폐가 안치되어 있다. 마당 앞쪽에 세조의 명에 의해 대형 마루가 깔린 '설선당(說禪堂)'이 있다.

이밖에도 경내에는 1469년 예조임금이 내린 멋진 음색의 종이 매달려 있는 대형 종각이 있다. 바다 쪽에 가까운 문이 대문이며, 사천왕을 모신 구천왕문 또한 바닷가 쪽에 있다. 우리가 잠을 잔 마루에는 성종의 친필 현판 2개와 숙종의 시가 걸려 있다.(하략)

### 3. 1960년대 설악동인계 내용과 시문

#### 1) 설악동인계 내용과 특징

이 책은 1963년 윤 3월 26일부터 약 일주일간 설악산을 좋아한 경남 진양(현 진주시), 산청, 사천, 하동군 주민 40명이 조직한 계문집(契文集)이다. 전체 31쪽 국한문 혼용체 종서로 편집되어 있으며 내용은 서문, 기행문, 예규, 계안, 시첩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천하명산 설악산을 한마음 한뜻 즉 동심동지(同心同志)로 함께 즐겼던 경남주민들 가운데 동유자(同遊者)들이 동인계(同人契)를 조직하여 탐방한 자료로 가치가 높다. 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설악산을 찾아왔던 탐방기행문을 쓰고, 한시를 지으면서 설악산 명승지를 찾았던 행적 등을 기록하여, 설악의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문집으로 간행하였다. 설악동인계 문집 내용은 총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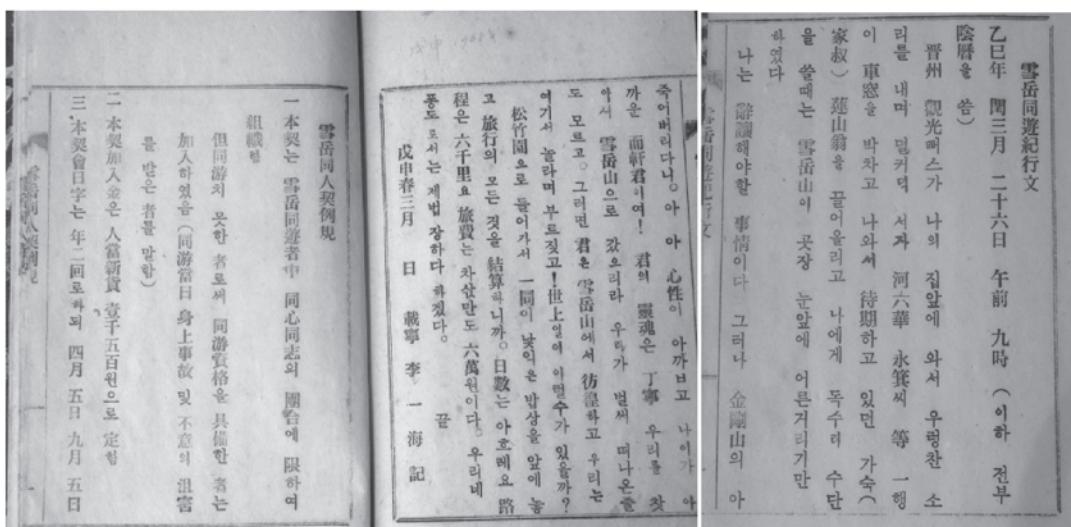
- 설악동인계안서(雪嶽同人契案序, 1967년 9월 9일 重九, 朴雨喜),
- 설악동유기행문(雪嶽同遊紀行文, 1968년 3월, 李一海)
- 설악동인계예규(雪嶽同人契例規)
- 설악동인계안(雪嶽同人契案, 을사 1965년 3월 28일)
- 설악동인시첩(雪嶽同人詩帖, 절구시 39수)

### [설악동인계 예규]

- (1) 본계는 설악동유자중 동심동지의 단합에 한하여 조직함, 단 동유치 못한 자로써 동유자격을 구비한 자는가입하였음(동유당일 신상사고 및 불의의 저해를 받은 자를 말함)
- (2) 본계가입금은 인당 신화 일천오백원으로 정함
- (3) 본계회 일자는 연 2회로 하되 4월, 5월, 9월 5일로 정함
- (4) 본계원은 동심동지라는 대근간을 망각 또는 이탈함이 없도록 노력책려하여 앞으로 어떠한 일에도 상호부보함을 기함
- (5) 본계원중 만약 불법불의 배신행위를 감행하여 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될 시는 계안에서 그 명단을 삭출함과 동시에 가입금을 원금으로 지급
- (6) 본계원 40명외 신가입은 절대불허함

### [설악동인계안]

하종근, 이병목, 강재희, 박사종, 이수덕, 강용중, 강주혁, 박종임, 민인식, 하천진, 하해진, 한영황, 하영기, 이일해, 박우희, 이현용, 강조현, 이정옥, 정한영, 권천우, 박해종, 하영한, 이봉해, 손창도, 이상은, 강용근, 강영기, 이정한, 정해영, 진용문, 하성근, 이수길, 하정식, 손창경, 이병렬, 박동철, 최규환, 이배현, 하동근, 정묵규



이상의 설악동인계 특징을 언급하면 첫째로 지금부터 50여년 전인 1965년 동인계를 조직한 경남

진양, 산청, 하동군주민 40명이 음력 3월 26일부터 사흘간 설악산을 함께 탐방한 특별한 기록이라 는 점이다. 둘째, 이전에 볼 수 없이 설악산동인계를 만들어 매년 4월, 5월, 9월 5일에 계모임을 했으며, 회비를 거둬 설악산을 찾았고, 설악산 답사기행문과 한시를 엮어 한 권 문집을 만들었다. 일행들은 계규칙을 만들어 지키면서 설악산을 탐방하였다. 전해오는 금강산탐방기는 많으나 이처럼 타 지역의 40명 계원들이 설악산문집을 발간한 것은 전례가 없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마지막 셋째로 설악산 탐방일정은 울산바위, 계조암, 비선대, 비룡폭포, 토왕성폭포 등이었으며, 당시에 케이블카를 달기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였다. 이들의 탐방일정은 현재도 통상적인 관광코스로 알려진 곳이다.

## 2) 설악동유기행문(글:이일해)

을사년(1965) 윤3월 26일 오전 9시(이하 전부 음력을 씀) 진주 관광빠스가 나의 집앞에 와서 우렁찬 소리를 내며 덜커덕 서자 하육화, 영기씨 등 일행이 차창을 박차고 나와서 대기하고 있던 가숙 연산옹을 끌어올리고 나에게 독수리 수단을 쓸 때는 설악산이 곳장 눈앞에 어른거리기만 하였다. 나는 사양해야할 사정이다. 그러나 금강산의 아우벌이 되는 명산 설악산의 신령이 불러일으킨 일행의 억센 떼거지에 걸려든 이상 어떠한 사정도 통과되리는 만무하다. 청주 두병과 제육 한 남비로써 주인된 범절을 버젓이 딱근다음 차속 제19번 좌석에 몸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중략) 양양읍에서 오료(午料)를 하고 속초항에 이르니 속초는 설악산의 바깥 관문이다. 여태까지 해안선을 타고 북으로 북으로 치닫기만 하던 코오스를 서쪽으로 꺾어 뉘엿뉘엿 지는 해를 안고서 약 20리가량 돋발바 달리면서부터 명산으로가는 기분이 났다. 이윽고 설악산 품안에 포근히 안긴 우리들은 먼저 여관을 물색해가지고 여장을 맡긴 다음 안내원 한 사람을 샀다.

목적지까지 무사히 왔다는 안도감 명산을 보게 된다는 희열감 여기 저기서 눈시울을 뚫구기 시작하는 신비의 실마리와 부딪는 경이감 우리들의 감정은 착잡하였다. 행동도 수선스러웠다. 면모위에 새암솟는 경쾌한 기운을 자신은 몰라도 옆에서는 서로 서로 환희 볼 수 있었다. 다들 웃었다. 그러나 나는 지팽이를 버티고 서서 잠시동안 눈을 깍 감았다. 꼭 40하고 또 1년전의 일이다. 은사 해옹선생님이 금강산으로 가실대 서울까지 모시고 온 나는 노잣돈 한 뭉치를 손에 쥐어주면서 따라가라고 권고하는 빙장 정지현에게 “좀더 수련을 해야지요. 아직은 금강산을 대할 재격이 못되오”하고 사각하였다. 그 당시의 나의 포부는 깨 컸던 모양이다. 수련을 통해서 재격이 완성되는 날이면 금강산은 나의 금강산이거니하는 야심이 가슴깊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후우 금강산을 끝내 못 대하였고 앞으로도 영영 대할 희망이 없을 것 같으니 금강산을 겨누던 나의 재격은 이로서 판결난 셈이지마는 이제 설악산엘 왔으니 설악산을 대할 만한 재격은 충분해서란 말인가? 자인할까? 자인하면 만족해서 좋을가? 만족해서 좋다면 부끄러움은 없어야할 것 아닌가? 부끄러움이 없는가? 후우, 한발짜국 내 딛다가 또 눈을 감았다. 산은 흙과 돌과 나무와 물을 합쳐서 된 것이다. 그 중에 특히 돌이 조금 많거나 크고 높거나 괴이하게 생겼거나 하며 물이 조금 맑고 푸르거나 떨어져서 폭포가 되거나 고여서 소가 되거나하면 명산이라 일컬으려 그것이 겹이나 홀이냐 전부나 일부냐 하는데 명산의 품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설악산은 얼핏 보아서 금강산의 아우 별이 되기에 틀림없을 것 같다. 그러나 설악산의 자랑은 동구에 들어서자 멀리서 선을 보이고 있는 전국제일이란 토왕성폭포에 있다. 이 폭포 구경만 하면 설악산구경은 다 되는 셈이니 밥상국물에 술적심하는 격으로 우선 다른 일면부터 맛보기하고 새는 날 폭포구경으로써 끝맺음을 짓자! 내심 이렇게 계획을 정하고서는 눈을 뜨고 안내원의 뒤를 따랐다.

가는 곳은 울산바위, 조물주가 금강산을 지을 때 한 몫 보겠다고 경상도 울산땅으로부터 굴러오던 도중 이 자리에서 잠깐 졸다가 금강산 지이가 끌났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앉은 채 굳어졌다는 전설을 간직한 이 바위는 바위 하나가 곧 산 하나이다. 전설은 이 바위가 금강산의 그 무엇에 손색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전설이리라. 그럴싸하다. 그러나 빛깔이 문제다. 검다. 중국의 옛기록에는 검은 미인을 후비로 모시고 현처라고 부른 제왕이 있다고 하였다. 이 바위도 설악산의 현처노릇을 하면 그만일 것을 굳이 금강산 운운할 필요가 없잖을까. 왜? 전설과 같이 금강산에 갔더라면 정녕 낙제했을 테니 말이다.

울산바위 발치에는 수많은 선돌 누은돌이 있다. 다 굴직굴직하여 수천척의 넓이와 높이를 가졌다. 누은돌을 깔고 선 돌을 지고 이고 끼고 앉은 계조암이 하도 청초한적하기에 잠시 쉬었다가 낙조를 띠고 여관으로 돌아와서 저녁밥을 받았다. 이날 밤에 설악동인계를 짜서 계안초안 지어다 현재 자리를 같이한 19인의 명단을 작성해서 썼다. 또 이번 놀이의 발론자로서 신병에 걸려 오지 못한 자와 약속에 나섰다가 사고로 인해 오지못한 자는 비록 그 몸은 오지 못했을망정 그 신은 이미 왔다고 인정된다.

29일 아침 6시에 일행은 비선대를 찾아갔다. 나는 누워서 전송만하고, 조반후에는 예정대로의 토왕성폭포를 잡으려고 제가끔 백배의 용기를 돋구었다. 백석탄을 건느고 중화루를 돌아서 비탈길로 오르는데 동녘쿨 풀뿌리 나뭇가지와 씨름을 해가면서 손도 발 발도 발 수마정 기었으나 안내원의 말 그대로 더 전진하지는 못하였다. 산 중턱의 절반가까이 올라선 듯한데도 폭포는 동구에 비치던 정도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 수천척으로 내리깎아지른 제일 높은 돌봉우리의 꼭대기에서 흰 모

시배 한 필을 걸어둔 것이 토왕성폭포다. 워낙 거리가 먼지라 소리가 들리지 않고 게다가 하반신이 나무그늘에 숨었지만 수량이 상당히 많고 높이가 천 3백척 가량으로 측정되었다.

옛날은 금강산에 짓눌려서 개발되지 못했고 오늘은 개발하면서 손발이 돌지 않아서 늦어졌는데 어떻게 험준하던지 아직까지는 폭포를 가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안내원의 일러주는 말이다. 우리 발 밑에 제이폭포인 비룡폭포가 있다. 45척의 돌 흄대에 짚동부피의 물이 비스듬이 누워서 몸부림치며 미끄러지는 광경은 여간한 장관이 아니다. 비룡폭포 되기까지의 상류의 물은 파(巴)자 형의 돌산 등성이 선을 오이 쪼개듯 쪼개고 흘러나온다. 우리가 섰던 곳은 바로 그 서벽의 한쪽 비탈인데 두어장 올라서 보면 서벽 동벽의 간격은 긴장대 두 개를 이어서 걸칠만하다. 등성이 선의 남은 부분은 실날처럼 가는 것이 그나마 눕혀 세원 텁날같아서 사람이 발을 부칠수 없고 벽의 내면은 땅바닥까서 비스듬이 안으로 깍아서 백여척의 청동색 병풍을 맞 돌린 것 같아서 거기는 다람쥐도 얼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니 토왕성폭포는 어디로도 통로가 될 수 없다. 개척 한다지 마는 무슨 재간으로 개척할고? 비룡폭포의 아랫목에는 우리가 섰던 곳까지 케이블카를 단다고 개인의 힘으로 기초공사를 하더라마는 토왕성폭포는 케이블카도 못달테니 헬리콥트나 날릴까?

우리는 토왕성폭포를 잡지 못한 채 돌아섰다. 그러나 만고불파의 신비체를 공중높이 세워놓고 사람더러 바라보기만 하라는 것도 설악산이 아니고는 있을수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토왕성폭포를 못잡은 것은 아니다. 더구나 현대의 문명기구 따위로는 토왕성폭포의 모양도 옮겨올만한 다시 말하자면 신비체를 따올만한 신비성적 기구를 지닌 이가 몇 명 사람있으니 아무리 따져도 토왕성폭포는 마침내 우리의 것이 되고 말리라. 자, 이만큼 되었으면 노래부르고 설악산과 작별해도 좋을게다. 11시 조금 못미쳐서 우리일행은 설악산의 멀리멀리 나누어주는 전송을 받으면서 속초항까지의 오던 코오스를 도로 밟았다. 속초명산 미역 몇 묶음씩 사서 차 뒷간에 실고 12시경 출발 북으로 약 10여리 달리니 청간정이 기다렸다는 듯이 차머리에 부딪친다(하략)

---

3) 설악동인시첩(雪嶽同人詩帖, 절구시 39수)

(1) 남주(南洲) 하종근(河宗根)

昔我東溟試華鋌 예전 내가 동쪽바다에서 지팡이를 시험하니  
金剛無限斷人腸 금강산이 한없이 사람 창자를 끊어내는구나  
忽驚雪岳生秋夢 홀연히 설악에 놀라게 되니 가을 꿈 생기고  
信是仙家第二鄉 믿나니 신선의 집이라는 두 번째 고향이라네

(2) 아석(我石) 이병목(李炳穆)

登臨仙侶坐峰鋌 아내와 함께 올라 뾰족한 정상에 앉아서  
飽喫雲霞一洗腸 구름 안개를 잔뜩 먹고서 창자를 씻노라  
快意人間過有得 시원한 뜻은 인간에게서 얼음에 지나치니  
堪歎鼇鼈臥窮鄉 감탄으로 못난 이 몸 궁한 곳에 누웠도다

(3) 후송(後松) 강재희(姜在熙)

世路崎嶇逼劙鋌 세상길 기구하여 뾰족하고 좁은 산과 같아  
勝游何處滌愁腸 좋은 곳 어디에나 떠돌아 수심을 씻었노라  
幸得同人吟雪岳 다행히 동인이 있어 설악을 읊고자 하면서  
飄如招我入仙鄉 가볍게 나를 초청하니 신선세계로 들어가네

(4) 남정(南汀) 박사종(朴師鍾)

憑君大筆似鋒鋌 그대에게 의지해 큰 붓 지팡이삼고  
摹寫靈山洗溷腸 영산을 본받아 더러운 창자를 씻네  
縱有駕風乘興日 바람을 타고 올라 해를 즐기노라니  
那堪淮鼠望雲鄉 어찌 회수 쥐가 운향을 바라보리오

## (5) 백하(柏下) 이수덕(李壽德)

峰峰臺臺似峰鉛 봉우리 돌 우거져 지팡이 든았으니  
 對比何人不斷腸 어느 누군들 장이 끊어지지 않으리  
 幸共文星存一契 여행 문성군과 같은 모임이 있으니  
 炙遊無媿說吾鄉 이에 놀면서 내 고향을 설명하도다

## (6) 놀와(訥窩) 강용중(姜瑢中)

峰如香稜劎成鉛 봉우리 뾰족하게 창끝과 같아도 솟아  
 瀑似九龍更斷腸 폭포는 구룡과 같아서 단장을 고치네  
 宗炳臥遊吾亦得 밝음쫓아 누워 놀다가 나 역시 얻으니  
 一時詩唱徧江鄉 한순간에 시 부르니 강의 고향이라네

## (7) 양천(養泉) 강수혁(姜洙爌)

聞道雪山似劎鉛 도를 듣는 설산은 지팡이 같이 솟았고  
 凌空峭直斷人腸 하늘 솟은 봉우리는 사람 창자를 끊네  
 幸今題詠群賢後 여행이 지금 문제는 여러 현자 뒤이니  
 如得清遊入醉鄉 맑게 놀다 취해서 고향에 들어가려하네

## (8) 이강(尼岡) 박임종(朴任鍾)

掛空虹氣耀霜鉛 하늘에 걸린 무지개 차갑게도 빛나는데  
 聞說名山最斷腸 듣노니 명산은 단장이 최고라 말하노라  
 恨煞煉丹丹未熟 한스럽게 연단하다 단 아직 익지 않으니  
 緇風不許躡仙鄉 돌아오는 바람은 선향 밟기 허락치 않네

---

(9) 유백(幼柏) 민인식(閔仁植)

疊嶂連峰掩劙鎧  
바위가 연이서 봉을 이루어 엄호하고  
牛臘似又似羊腸  
소가 반추하고 마치 양 창자와 같네  
看來仙子多遺蹟  
신선이 오는 것을 본 유적이 많으니  
好是關東山水鄉  
이 역시 관동은 영원한 산수향이라네

(10) 방현(方軒) 하천진(河千鎮)

石骨稜稜束劙鎧  
돌 들은 솟아나서 칼처럼 우뚝하고  
玉流清可洗塵腸  
옥류는 맑아서 티끌 창자도 씻노라  
好是南風探勝客  
이에 바로 남풍은 탐승객에 불어오니  
坐來渾欲醉忘鄉  
앉아서 취하고 고향마저 잊어버리네

(11) 태정(台亭) 하해진(河海鎮)

萬丈奇岩巒似鎧  
만장이나 되는 기암절벽은 지팡이 같아서  
遊人到此怯詩腸  
노는 사람 도달하면 시 짓기 겁이 나니라  
欲摸勝景難工筆  
좋은 경치는 붓으로 묘사하기도 어려우니  
比是關東第一鄉  
비교하면 이게 바로 관동의 제일향이라네

(12) 관재(寬齋) 한영황(韓永滉)

十載風塵躡劙鎧  
십년 세월 풍진에 뾰족한 바위 솟았고  
名山送汝滌愁腸  
명산을 네게 보내서 수심을 썼는구나  
歸來囊載詩千字  
돌아오는 길 주머니에 시 천자를 품고  
勝似錦衣還故鄉  
의기양양함이 마치 금의환향과 같도다

## (13) 육화(六華) 하영기(河永箕)

芒鞋弊盡雪山鎚 죽장망혜 설산을 찾은 지팡이가 해졌고  
 滿眼烟霞欲斷腸 눈 가득한 안개는 사람 장을 끊는구나  
 一契同人存舊約 한 모임의 동인들과 옛 약속이 있으니  
 清遊九日始還鄉 맑게 노닐다 구일만에 고향에 돌아오다

## (14) 굴천(屈川) 이일해(李一海)

拂袖青峰躡劍鎚 소매자락 떨치듯 청봉은 칼끝같이 솟았고  
 星芒百尺生枯腸 별은 백척되어 마른 창자를 쥐어 짜누나  
 當時已結今時夢 당시에도 몸은 오늘날 꿈에 매었었으니  
 五載海雲深處鄉 5년 만에 해운이 먼 고향에 돌아가노라

## (15) 낭현(朗軒) 박우희(朴雨喜)

千峰便作割愁芒 천 봉우리 자연스레 수심을 돋는데  
 萬壑粧成錦繡腸 만개 골짜기는 비단폭을 이루었네  
 六鰲已霜蓬弱遠 여섯 자라섬 서리가 약간 물들었고  
 襄陽山水擅南鄉 양양산수는 남쪽 고향을 전횡하네

## (16) 연산(蓮山) 이현용(李鉉容)

翠壁千尋擁劔鎚 푸른 절벽은 칼끝같은 봉우리 옹호하고  
 紅泉百道下羊腸 붉은 온천은 여러 길 양처럼 갈려있네  
 停盃試向山靈問 잠시 멈춰 술한잔하며 산신령께 묻노니  
 此是仙鄉第幾鄉 이와 같은 선향은 몇 마을이나 있으리오

---

(17) 송봉(松峰) 강조현(姜祖憲)

杳杳天涯雪岳鋒 아득한 하늘가 설악의 칼끝 봉우리  
何緣偏解割吾腸 어떤 인연으로 내 창자를 해부했나  
幸君携得文章筆 다행히 그대가 문장과 붓을 얻어서  
滿寫瓊詩誦一鄉 맑게 묘사하며 제일향이라 암송하네

(18) 유당(攸堂) 이정옥(李楨玉)

一生如夢老鋤鋒 일생이 꿈과 같이 호미자루처럼 늙으니  
論世那能不斷腸 세상을 논하자면 어찌 단장하지 않으리  
幸得西隣同契友 여행이 서쪽 이웃 같은 계원을 얻어서  
醉來提挈入仙鄉 취하여 손끌고 오르니 신선고향 들었네

(19) 호심(湖心) 권천우(權天佑)

聞道雪山似劍鋒 설산에서 도를 들으니 칼끝 봉우리 같았고  
幾人登頓惱詩腸 몇 사람이 올라서 시의 내부를 정돈했다네  
群仙勸我流霞釀 여러 신선들이 나를 권하여 노을 젓게 했고  
醉望塵寰曠漠鄉 취하여 바라보니 티끌도 저무는 고향이로다

(20) 약산(若山) 박해종(朴海鍾)

雪嶽崢嶸險劍鋒 설악이 험하기로서 다투자면 최고이려니  
遊人到此幾摧腸 나그네가 이곳에 도달하여 최고로 치네  
幹脈遙遙鎮南國 산맥줄기는 요요하여 남쪽을 진수하였고  
鍾靈長作太平鄉 산신령은 길게 태평세월을 노래하겠구려

## (21) 양정(楊汀) 하영한(河永漢)

長吟海畔山如鉛 해안을 읊으려니 산은 뾰족한 지팡이 같고  
 不是愁人怕割腸 불시에 근심하여 창자를 자르는 것 같구나  
 一幅清溪飛作瀑 한 폭 맑은 시냇물 흐름은 빠르기 폭포같고  
 六時雷雨鬧東鄉 여섯시 천둥비가 동향을 시끄럽게 하는구나

## (22) 강현(江軒) 이봉해(李鵬海)

泉作練飛石作鉛 물은 명주실 이루고 돌들은 뾰족한데  
 名山眞有斷人腸 이름난 산은 진실로 단장의 아픔이네  
 莫云今我身留滯 지금 내 몸 머물러 있다 말하지 마오  
 早已神游海上鄉 다만 몸과 정신은 해상 고을에 있구려

## (23) 우계(又溪) 손창수(孫昌壽)

雪岳全峰似劍鉛 설악의 전 봉우리 뾰족한 칼날 같아서  
 探來處處駭中腸 곳곳마다 탐승하면 창자 속과 같구려  
 十四故人相擁坐 24명의 친구들이 서로 안장서 불들고  
 長歌一曲忘歸鄉 노래 한 곡 부르니 돌아갈 길을 잊노라

## (24) 추벽당(秋碧堂) 이상은(李商隱)

海上青峰似劍鉛 해상의 푸른 봉우리는 뾰족하기 칼날 같지만  
 聞名不見斷人腸 이름을 들을진대 단장하리라 생각지 못했네  
 詩聲酒味洞歡地 시짓는 소리와 술의 맛이 땅 위에 넘치나니  
 憶否義山病滯鄉 생각나니 의로운 산이 아니면 병든 고향이네

---

(25) 월강(月岡) 강용근(姜容根)

百疊高峰似劍鋒 온갖 바위 높은 봉우리 뾰족한 칼날 같아  
看看奇狀駭人腸 볼 때마다 기이한 형상 사람 놀라게 하네  
世間寧有如斯處 세간에 이와 같은 곳 어디에 또 있겠는가  
半日清游却忘鄉 반나절에 맑게 놀다가 돌아올 길을 잊었소

(26) 외인재(畏人齋) 강영기(姜泳基)

巨靈何日弄霜鋒 큰 산신령 서리 낀 산을 희롱하니  
鏤此鴻濛脾腎腸 이것은 커다란 신장과 창자로구나  
翠壁千頭飛一瀑 푸른 절벽 천여 개 폭포를 만들고  
金剛未必獨仙鄉 금강산은 아직 홀로 선향이로구나

(27) 남천(南川) 이정한(李禎澣)

不怕危峰似劔鋒 위태로운 봉우리 뾰족한 칼날과 같고  
自憐清瀑洗愁腸 스스로 가련히 맑은 폭포에 수심씻네  
君詩不讓龍眠畫 그대의 시는 용면화를 사양하지 않아  
寫盡烟霞山水鄉 안개를 그리기가 힘든 산수 고향이네

(28) 운현(芸軒) 정해영(鄭海永)

峭直峯峯似劔鋒 솟은 봉우리마다 뾰족한 칼날과 같아  
遊人幾度割愁腸 나그네는 여러 번 수심을 헤아린다네  
如何造物貪坤秘 조물주는 땅의 신비를 품은 것 같아  
設此荒寒辟遠鄉 이곳에 먼 피안의 고향을 만들었구나

## (29) 남계(藍溪) 진용문(陳龍文)

聞道雪峯峭似鉛 설봉에서 도들으니 봉우리 지팡이같고  
 見來自足破愁腸 와서 스스로 만족해 수심을 깨어버리네  
 諸益同行吾獨否 여러 동행들과 더불어 내 홀로 아니니  
 而軒之故莫離鄉 이현의 고향으로 떠나는 고향 아니라네

## (30) 이천(履泉) 하성근(河聖根)

倚天雪嶽懷寒鉛 하늘 의지한 설악의 찬 봉우리 늄름해  
 探勝人應欲斷腸 승지를 찾는 사람들의 애끓는 듯하노라  
 何幸諸公同結社 어찌 다행이 여러 분들과 모임을 맺어  
 往來容易此仙鄉 왕래하여 이 신선의 마을을 받아들이네

## (31) 가정(柯亭) 이수철(李壽轍)

好事化翁弄利鉛 조화옹이 예리한 지팡이를 희롱하여  
 當年雕斲費心腸 당년에 조각하여 감동하도록 애썼네  
 銀河倒瀉三千丈 은하수가 흘러 흘러 삼천장 이르는데  
 劈破鴻濛廣漠鄉 쪼개 깨트린 넓이가 광활한 향리라네

## (32) 근재(謹齋) 하정식(河禎植)

奇巖怪石翠生鉛 기이한 바위 괴이한 돌로 산을 만드니  
 雷雨多年鬧虛腸 뇌우로 술한 세월 가슴이 시끄럽다네  
 楓岳不看看雪岳 풍악에서 보지 못한 것 설악에서 보니  
 關東眞個是仙鄉 관동에서는 참으로 최고의 선향이로다

---

(33) 안당(安堂) 손창견(孫昌見)

同人詩筆利於鋸  
동인들 시 짓기 봉우리보다 예리하니  
劈取名山貯胃腸  
쪼개어 취한 명산 위장에 넣어버리네  
一讀便如蘇病骨  
한 번 읽으니 병든 몸 없애는 것 같고  
深緣終覺在仙鄉  
깊은 인연 다하니 선향임을 깨닫는다

(34) 농산(農山) 이병열(李丙烈)

蠹蠹奇峰似劙鋸  
우뚝한 기이한 봉우리 뾰족하고  
回回石徑等羊腸  
돌고도는 산길 양의 창자같다네  
世間塵念都消盡  
세간의 티끌생각이 모두 다하니  
一上仙臺莫思鄉  
천상 신선누대 고향생각 없구나

(35) 해서(解曙) 박동철(朴東喆)

骨立千峰似劙鋸  
뼈같이 솟은 천 봉우리 칼날 같고  
聞來先已割愁腸  
듣고 와보니 수심을 잘라내는구나  
床頭一霎同人夢  
침상위 빗줄기 동인들의 꿈이려니  
記在關東何處鄉  
기억할진대 관동의 어느 고향이려나

(36) 남정(南汀) 최규환(崔圭環)

世途危似觸於鋸  
세상길 위태로움은 뾰족한 산과 같으니  
只好看山洗熱腸  
다만 산 보기 좋아해 열띤 가슴 셋노라  
怊悵東遊虛舊約  
슬프지만 동쪽 나그네 옛 약속 노닐고  
畫中仙景足仙鄉  
그림 속의 신선경치는 신선 고향이로다

## (37) 각포(覺圃) 이배현(李培鉉)

壁立諸峰作鋤鎚 절벽이 여러 봉우리 앞에 칼날같고  
 清幽洞壑又羊腸 맑고 그윽한 계곡은 양의 창자같네  
 九天一瀑眞奇絕 아홉 하늘 한 폭포는 참된 절경이라  
 從此游人欲忘鄉 이를 쫓는 나그네 고향마저 잊노라

## (38) 우당(愚堂) 하동근(河東根)

青峰直插勢如鎚 푸른 봉우리 곧게 솟구쳐 칼날 같으니  
 下有清流可洗腸 아래에서 맑게 흐르며 창자를 씻는구나  
 萬物精靈關別界 만물의 정령들은 다른 세상을 열었고  
 若爲移置置吾鄉 만약에 옮겨놓는다면 내 고향 가져가리

## (39) 현사(玄史) 정묵규(鄭默珪)

萬馬奔馳列戟鎚 온갖 말 내달리듯 뾰족한 봉우리섰으니  
 東溟蟄賊定摧腸 동쪽 바다 못된 이 마음을 바로잡았다  
 可憐一瀑三千丈 가련하도다 한 줄기 폭포는 삼천장이니  
 落地變成花雨鄉 이 땅에 떨어져 꽃비 향리를 만들었구나

**4. 맷음말**

영국인 선교사 찰스 헌트는 겨우 지팡이하나 짚고 다닌 매우 불비한 등산장비를 갖춘 채 1923년 6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힘든 설악산을 돌아보고 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적인 글을 남겼다.

현재까지 이것 이외의 외국인 설악산 기행문을 찾지 못한 탓에 찰스 헌트의 글을 희귀하고 가치가 높다. 헌트가 설악권 일대의 불교유적지를 굳이 찾아 나선 이유는 단지 경치를 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외국인 선교사로서 한국불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흥사, 오세암, 진봉사, 낙산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보고 싶은 욕망이 커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등령 일대에서 돌 틈에 편 에델바이스를 처음 본 소감도 기록하였다.

또한 1963년 윤 3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천리길을 마다 않고 설악을 찾기 위해 동인계를 조직한 경상남도 진해 인근 주민들의 열정 또한 설악사랑의 뜨거운 표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설악사랑을 동인계문집을 통해서 오늘까지 전하고 있다. 절구시 39편은 설악의 자태를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들이 설악을 표현하길 선경(仙景)이요 선대(仙臺)요 선향(仙鄉)이라 표현하며 신선세계와 같은 설악에 심취하여 돌아갈 것을 잊을 정도라 하였다.

설악산 아래에 태어나 자랐던 필자는 이 글들을 읽으며 감동했다. 나는 이들 처럼 좋은 기행문을 쓰지 못하였다. 그러나 설악기행문을 학문적으로 평가하고 그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소임이라도 다하고자 서술하였다.

설악산은 속초만의 것이 아니다. 또한 설악권 주민들만의 것도 아니다. 조물주의 위대한 창조물인 설악산이 세계적인 명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단지 들러보는 관광 대상지로서만 아니라 산악자원의 보존가치를 높이고, 청정성을 유지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를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고창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설악산과 에베레스트 등의 연구자들이 세계산악문화포럼 등을 개최하여 국제적 관심을 끌고 학문적인 천착을 통해서 자연생물과 문화학적인 연구성과를 거두어야 하겠다. 아울러 설악산 박물관, 설악과 한라산, 에베레스트 산에서만 자생하는 에델바이스 세계꽃공원 같은 테마파크, 설악산아카이브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개발해야 한다.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승만으로 사실상 세계화하기는 힘들다. 설악산 골짜기의 숨겨진 시문학과 설화 이야기를 발굴하고, 설악산 관련 다양한 장르의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화할 때 문화관광설악산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제는 가능하지도 않은 금강산과 연계관광에 막연히 기대를 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강산과 선명한 차별화에 집중해야 한다. 산악문화의 메카로서, 설악산 관련 조선시대 한시문과 기행문집의 국역작업도 서둘러야 하며 산악인, 작가들 뿐만 아니라 생태, 민속, 회화, 연극, 무용, 사진 등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설악이야기-함께 가꾸기’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文益成, 遊寒溪錄, 玉洞集, 1575
- 金壽增, 寒溪山記, 谷雲集, 1691
- 金昌翕, 雪岳日記, 三淵集拾遺, 1705
- 洪泰猷, 遊雪嶽記, 耐齋集, 1709
- 金昌翕, 遊鳳頂記, 三淵集拾遺, 1711
- 李福源, 雪嶽往還日記, 雙溪遺稿, 1753
- 安錫敬, 雪岳記, 雪橋集, 1760
- 丁範祖, 雪嶽記, 海左先生文集, 1779
- 金夢華, 遊雪嶽錄, 七巖文集, 1787
- 金錦園, 湖東西洛記, 錦園堂集, 1830
- 李義肅(1733~1807), 五歲菴記, 頤齋集, 1836
- 道川面 面勢一覽, 1926
- 金道東, 全鮮名勝古蹟, 東明社, 1929
- 崔南善, 朝鮮의 山水, 東明社, 1947
- 李殷相, 祖國江山, 民族文化社, 1954
- 李殷相, 驚山文選, 永昌書館, 1958
- 劉昌惇, 古時調新釋, 東國文化社, 1959
-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民衆書館, 1961
- 이은상, 산찾아 물따라, 박영사, 1966
- 雪嶽山學術調查報告書, 文教部 文化財管理局, 1967
- 鄉土誌, 襄陽郡教育廳, 1968
- 張在憲 外, 第一回 海外遠程登攀訓練隊 雪嶽山遭難調查報告書, 韓國山岳會, 1971
- 秦教俊, 설악산 얘기, 世紀出版社, 1972
- 黃沴根, 國立公園 雪嶽山, 通文館, 1973
- 손경석, 한국의 산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 李泰極 · 金永琪 · 李昇勳, 太白의 詩文 上, 江原日報社, 1977
- 崔承洵, 太白의 詩文 (下), 江原日報社, 1977
- 崔喆譯, 東國山水記, 德文出版社, 1977
- 金在榮 · 金振旼, 雪岳洞開發事業誌, 江原道, 1981

- 雪岳의 뿌리, 속초시, 1982
- 雪嶽山學術調查報告書, 江原道, 1984
- 張正龍, 束草의 民俗, 束草文化院, 1987
- 成東奎, 雪岳의 秘境, 도서출판 아카데미서적, 1988
-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출판부, 1989
-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 유창서 편, 바람이여 · 구름이여 · 설악이여, 송암출판사, 1990
-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 손경석, 설악산, 대원사, 1993
- 崔和秀, 컬러紀行 雪嶽山, 國際新聞, 1994
- 함영덕 글 · 성동규 사진, 설악의 물길따라, 백산출판사, 1995
- 羅州丁氏月軒公派宗會, 海左集, 瑞耿出版社, 1996
- 鄭珉 編,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4, 강원도편Ⅲ, 민창문화사, 1996
- 임양재, 한국의 자연탐험 설악산, 웅진출판주식회사, 1997
- 문순화 외, 설악산의 꽃, 교학사, 1997
- 朝鮮時代 江原女性詩文集, 강원도, 1998
- 함영덕, 청봉가는 길, 백산출판사, 1999
- 장정룡 외, 속초지역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 최낙민, 千의 姿態 雪嶽山, 신영, 1999
- 박명희, 조선후기시론연구 -농암 김창협과 삼연 김창흡을 중심으로, 전남대박사논문, 1998
- 박그림, 산양뚱을 먹는 사람, 도서출판 명상, 2000
- 장정룡, 강원도 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 설악산의 역사와 문화, 속초시 · 속초문화원, 2003
- 山書 제15호, 한국산서회, 2004
- 김풍기, 강원한시의 이해, 강원학총서⑤, 집문당, 2006
- 심경호, 산문기행 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 엄경선, 설악에 편 솜다리꽃 인생, 이기섭, 속초문화원, 2008
- 장정룡, 설악산 울산바위전설 고찰, 속초문화 24호, 속초문화원, 2008
- 엄경선, 설악의 근현대인물사, 마음살림, 2009
- 장정룡, 조선시대 설악산 기행문고찰, 속초문화 제25호, 2009

공유경제로 본 문화예술-독일 베를린·프랑스 파리 사례

## 버려진 공간, 공유문화공간으로 재생

장재환  
설악신문 편집국장

유휴자원을 ‘함께 쓰는’ 새로운 소비형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공유경제는 유·무형의 자산을 쟁여놓고 ‘소유’ 하기보다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협력적 소비’를 이끌어 냄으로써 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더욱 극대화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적 소비로 떠오르고 있다.

공유의 영역은 방, 자동차, 사무실 등 유형자산 뿐 아니라 정보, 지식과 재능, 콘텐츠, 경험과 취미 등 무형자산으로까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문화예술분야에서도 공유경제를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 글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공유경제,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바라보다’란 주제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한 해외공동기획취재에 참가해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에서는 유휴 공간 활용이나 공간재생을 통해 문화예술에서의 공유경제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설악신문〉에 5회에 걸쳐 연재한 글을 재편집하였다.(편집자 주)

베를린과 파리는 과거 버려진 공간을 새롭게 재생한 공유문화공간들이 눈길을 끌었다. 베를린의 우파파블릭은 폐쇄된 영화제작소였고, ‘쿨투어 브라우어라이(Kultur Brauerei)’와 ‘페페베르크(Pfefferberg)’는 문 닫은 맥주공장을 개조해 복합문화생활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의 명소로 만든 곳이다. 프랑스 파리 외곽지역에 위치한 복합문화예술공간 ‘파리 104 상카트르’는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던 곳이며, ‘로베르네 집’은 도심의 방치된 건물을 예술가들이 점거해 ‘열린 아틀리에’로 만든 사례다.

설악동 재개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촌도 공유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함직하다. 속

초시는 문화예술인촌을 문화예술인들의 문화교류활동과 전시, 관광객의 체험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시설로는 유명 문화예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체류하는 아트게스트하우스와 해외작가와 교류할 수 있는 국제아트레지던시공간, 상설 및 야외 전시공간, 산책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 ■ 독일 베를린-지역복합문화생활공동체 우파파블릭 생태 · 문화생활공동체로 다시 태어난 옛 영화제작소

‘우파 파브릭’(UFA Fabrik)은 베를린 남부지역에 위치한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생활 공동체이다.

이곳은 2차 세계대전까지 독일 영화의 본산지 역할을 했던 ‘우파(UFA)’ 영화제작소였다. 하지만,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생기면서 서베를린의 촬영소와 동베를린의 필름현상소로 나뉘게 됐고, 양쪽이 공동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버려진 공간으로 방치됐다.

재정문제로 인해 1965년 아예 폐쇄돼 쓰레기하치장으로까지 전락한 이곳을 젊은 예술가들과 학생들이 찾아 들어 생태와 문화의 공간으로 다시 살려냈다. 이들은 1978년 3개월 동안 작은 생활공동체 실험을 했고, 이의 성공을 기반으로 이듬해 현재의 ‘우파파브릭’ 단체를 설립했다.

지난 7월말에 찾은 우파파블릭은 휴가철이라 한산했다. 건물들은 소박하지만 오랜 연륜이 묻어났다. 1만8,000m<sup>2</sup>의 공간에는 온갖 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예전 극장이던 곳은 국제문화센터로, 식당은 연극·음악공연장으로, 필름 보관소는 스튜디오와 춤 배우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 등을 여는 야외공연장을 비롯해 하루 2,000 개의 뺑을 만드는 뺑공장, 43개의 침대를 갖춘 게스트하우스, 체육관, 카페, 유기농식품점, 동물농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연극·음악공연장은 초등학생들의 장기자랑이나 체험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각종 공연과 파티, 결혼식 장소로 저렴하게 빌려주기도 한다.



시설담당자인 베르너 비아르탈라 씨가 우파파블릭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우파파블릭은 수많은 자체 문화행사와 초청공연을 연다. 지역예술인들에게 무료로 연습공간을 제공해 주고, 공연기회도 마련해 준다. 국제문화예술교류에도 나서, 1992년부터 김덕수 사물놀이 패 연계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한국과의 문화예술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누구나 마음대로 배울 수 있는 초등학교 정규과정의 대안학교인 ‘자유학교’는 ‘생활공동체’ 우파파블릭을 상징한다. 반과 성적표가 없는 이곳은 10명의 교사가 50명의 학생을 담당한다.

사회사업은 문화사업과 함께 우파파블릭이 지향하는 또 다른 한축이다. 시설담당자인 베르너 비아르탈라 씨는 “가족관리, 유아보육, 노인 및 임산부 지원, 임종 준비 지원 등의 사회적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파파블릭은 ‘생태적 가치’를 일상에서 실현한다. 학교와 게스트하우스의 지붕 위에 녹색정원을 조성해 실내온도를 낮추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빗물을 저장해 허드렛물로 사용한다. 베르너 비아르탈라 씨는 취재진을 먼저 건물 옥상으로 안내했다.

“지붕 위 풀밭은 건물 내 온도를 25도~30도로 유지해주고 빗물 저장 효과도 뛰어납니다. 당연히 에어컨은 필요 없지요. 태양광 발전으로 1년에 6만kW의 전력을 생산해 수익도 내고 있습니다. 1kW의 전력을 15센트에 생산해 20센트에 팔고 있어요. 빗물을 저장했다가 화장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20여만명이 찾는 우파파블릭은 12세대 30명의 담당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200여명이 고용돼 일을 하고 있다. 현 건물과 부지는 베를린 주정부로부터 66년간 저렴하게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60%를 주정부와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받는다. 나머지는 카페와 빵공장, 게스트하우스, 문화공간 대여 등으로 충당한다.

베를린 남부지역의 유일한 문화센터인 우파파블릭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벼룩시장, 상담, 교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들의 배움을 위한 워크숍에는 매주 1,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한다.

## ■ 독일 베를린–복합문화공간 ‘쿨투어 브라우어라이’ 버려진 맥주공장 ‘문화양조장’으로 탈바꿈

베를린의 플레츠라우어베르그 구역에 자리한 쿨투어 브라우어라이이는 제각각의 모양을 한 붉고 노란 벽돌 건물들이 광장을 가운데에 두고 담을 쌓듯 둘러쳐 있었다.

안내를 맡은 총괄 매니저 스텔파  
니 그로나우씨는 “산업혁명 이후  
조성된 가장 멋있는 건물로,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도 완벽하게  
보존됐다”며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고 말했다.

옛 동베를린에 위치한 쿨투어 브  
라우어라이는 술트하이스가 1842  
년부터 1967년까지 운영한 전 세  
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맥주공장  
이었다. 맥주 생산을 중단한 후 동

독 정부가 일부 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했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에는 폐허로  
방치돼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당초 정부는 공장을 모두 헐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  
고 했으나, 주변의 젊은 예술가들이 건물을 점거해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어 공간  
이 개인 소유가 되면서 예술가와 소유주,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 5,000만  
유로를 들여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해 현재의 ‘문화양조장’으로 재탄생시켰다.

이곳은 문화와 상업시설이 공존하고 있다. 공연장, 갤러리, 영화관, 악기전문점, 대형 슈퍼마켓,  
여행사, 레스토랑 등 다양하다.

옛 맥주 저장 공간은 영화관으로 변신했다. 외부는 웅장한 고전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내부  
는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해 최신 모습을 갖췄다. 총 8개의 스크린을 갖고 있으며 영화제를 열기도  
한다.

발전소였던 공간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 무대로, 기계실은 연극 공연 등을 여는 200  
석 규모의 소극장으로 탈바꿈했다. 맥주병을 세척하던 공간은 결혼식이나 회의, 문화행사 등 다목  
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0여개의 건물에 42개 업체(단체)가 입주해 있고, 이 가운데 12곳이 연극, 문학,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다. 특히 ‘람바잠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 관련 사회적기업이다. 장애인  
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술, 음악, 연극 등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해 이곳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는 2000여건에 달하며, 10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한다. 클래식  
공연 등 자체적으로 기획한 문화행사들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와 무대를 꾸미고 관람료



독일 베를린 플레츠라우어베르그 구역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쿨투어 브라우어라이'. 옛 맥주 공장을 재생한 곳이다.

를 받는다. 새해와 부활절, 승전일 등 1년에 3차례는 입주 업체 전체가 대규모 축제를 기획한다.

컬투어 브라우어라는 문화공간이 지역을 재생시킨 사례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 조성된 후, 황무지에 불과했던 주변지역은 독일 전역에서 이주해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활력을 찾았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입주업체 등에서 500여명이 일을 하고 있다.

이곳은 정부 소유의 부동산 투자회사 TLG가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 관련 단체나 개인은  $m^2$ 당 월 3유로의 저렴한 가격에 공간을 임대해 주고, 상업적인 공간은  $m^2$ 당 월 25유로 정도의 임대료를 받아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컬투어 브라우어라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예술성과 상업성을 사이에 두고 끊임없이 고민 중이다. 당초에는 총 2만5000 $m^2$  가운데 6000 $m^2$ 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상업적 업체들의 입주 비율이 늘었다. 현재 문화 관련 공간은 5300 $m^2$ 에 불과하다.

스테파니 그로나우씨는 “상업적 업체들은 재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문화예술 관련단체나 시설이 늘어나면서 관광객도 함께 증가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수익 문제 때문에 문화 공간이나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 프랑스 파리 – 공유 아틀리에 ‘로베르네 집’ 방치된 도심 건물 작가들 점거, 개방 아틀리에로 변신

프랑스 파리 중심가 리볼리(Rivoli)가 59번지에 위치한 로베르네 집(chez robert, libre).

알록달록 색을 입은 수많은 장갑과 걸개그림이 내걸린 7층 건물은 백화점과 쇼핑센터가 즐비한 도심 속에서 도드라져 보이면서도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 넓지 않은 입구는 동전 발판과, 안내 데스크, 줄에 매달린 장갑들이 방문객을 맞았다.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오르내리는 계단 벽면에는 용의 모습을 한 벽화부터 다양한 형상들이 채워져 있고, 층마다 작가들의 작업실에서 그림, 사진, 조각, 설치 등 각종 작품을 관람할 수 있어, 자유분방한 미술관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작가들은 방문객들을 개의치 않고 작업을 하거나 동료들과 삼삼오오 모여 휴식을 취하고, 방문객들에게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해줬다.

로베르네 집은 도심의 버려진 건물을 젊은 예술가들이 점거해 재생시킨 열린 아틀리에로, 창작

자와 지역주민을 매개시켜 주는 대안문화공간이다. 예술가들은 이곳에 머물며 창작·전시활동을 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은 자유롭게 찾아 작가들의 작업모습과 작품을 구경하며 예술가들과 대화를 나눈다.

이 때문에 로베르네 집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공간의 개방과 공유이다. 입주작가 레카세바스찬(41) 씨는 “소통을 통해 시민들과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로베르네 집의 장소 철학”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 도심 리볼리가 59번지에 자리한 로베르네 집 전경. 건물벽에 알록달록한 장갑들이 내걸려 있어 인상적이다. 30명의 작가들이 입주해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로베르네 집은 32개의 작업실과 2개의 공동 전시실, 숙소 등이 문이나 울타리 없이 배치돼 있다. 1개 층을 3~7명의 작가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20여개국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작가들이 거주하고 있다. 입주작가 중 20명은 고정이고, 10명은 보통 6개월 동안 머무는 초청작가들이다. 회화가 주를 이루지만 사진,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월요일과 공휴일(크리스마스, 1월1일) 외에는 숙소를 제외한 전 공간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한다.

로베르네 집은 독특하고 다양한 퍼포먼스와 전시, 공연으로 시민들과 함께 한다.

3~4개월에 한 번씩 건물 전면 디자인을 변경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하는 날에는 기발한 퍼

포먼스를 선보인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5월 건물 각 창문마다 오케스트라 단원을 배치하고 연주회를 열었다.

휴가철인 8월을 제외하고 매주 주말에는 재즈, 클래식 등의 음악콘서트와 시낭송회, 코미디 등의 공연을 갖는다.

전시회는 1년에 1, 2회의 단체전과 개인전, 그룹전 등을 개최한다. 특히 매년 여름에는 독일 퀼른의 갤러리 '68.11', 스위스 제네바의 'Lle en Art' 등과 연계해 '점거 아틀리에 순회전' 등을 연다.

어떻게 파리의 도심 한 가운데 건물을 통째로 이런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로베르네 집은 젊은 예술가들의 '점거'라는 매우 극적인 '저항'을 통해 탄생하게 됐다.

당초 건물은 프랑스 정부와 크레딧 은행(LCL)의 공동소유였으나 은행이 파산하면서 정부기관인 부동산회사 CDR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오랜 기간 방치돼 있었다. 당시 파리시내에는 방치된 건물이 많았고, 특히 CDR이 관리한 40여채 건물 대부분이 흉물로 버려져 있었다.

1999년 12월, 14년째 폐허처럼 비어있는 건물을 현 대표인 가스파르 플라노에를 비롯해 칼렉스(현재는 일본에서 활동 중), 브르노 등 3명이 점거했다. 점거 당시 유리창은 대부분 깨어진 상태였고, 옥상에는 비둘기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고 한다.

이튿날 파스칼 포카르(52, 현 회계담당) 등 2명이 참여했고, 이후 10여명의 예술가들을 불러 모아 창작 공간이자 주거 공간으로 사용했다. 점거 4일째가 되던 날부터는 시민들에게 공간을 개방했다.

점거 이후 이들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고발되기도 했지만, 변호사, 언론인, 정치인들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됐다. 무단점거여도 프랑스법상 겨울에는 쫓아낼 수 없었다. 이후 방문객이 늘어났고, 각종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명소로 부각됐다. 2002년에는 파리시의 동의 아래 59리볼리협회를 설립했고, 2007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보수를 했다. 2009년부터는 합법적인 입주 근거가 마련돼 3년마다 입주기간을 갱신하고 있다.

로베르네 집은 파리시 소유로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하지만, 1년 운영비 6만유로는 자체 조달하고 있다. 매달 입주작가들이 130유로를 내 5만유로 정도를 모으고, 나머지는 프랑스의 회화용품 제작회사인 경송(CON SON)이 매년 주최하는 콩쿠르에 전시실 등을 한 달간 대여해 충당한다.

파스칼 푸카르트 씨는 "단순히 벽이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작가들의 소박한 꿈이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공간을 통해 이뤄졌다. 로베르네 집은 공간과 작업과정 공개를 통해 작가와 작가, 작가와 대중이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의 시발점이라는 상징성도 있다"고 말했다.

## ■ 프랑스 파리 – 공유문화예술공간 ‘상카트르 104’ 문화예술 명소된 장례식장…지역민 · 예술인 함께 공간 공유

프랑스 파리는 모두 20개의 행정구로 나눠져 있다.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 1구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의 나선형 모양으로 구가 자리해 있다.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구의 숫자가 커진다. 지역밀착형 복합문화공간 ‘상카트르 104(le Centquatre)’는 파리의 외곽지역인 19구에 속해있다. 19구는 지역민의 60%가 정부 주택보조를 받고 있는 낙후지역이다. 3분의 1이 실업자이며, 청소년 인구와 청소년보호소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2008년 예전 장례식장 자리에 ‘상카트르 104’ 가문을 열면서, 19구는 문화적 활기가 넘치는 곳으로 지역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베르트랑 드라노에 파리 시장의 강한 추진력이 뒷받침됐다. ‘상카트르 104’란 명칭은 건물 번지수에서 따왔다.

지난 8월초, ‘상카트르 104’를 찾아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하고 한적했던 바깥과 사뭇 다른 시원스럽고 활력 넘치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체육관처럼 높은 천장에 2층 건물이 양쪽으로 자리하고 있고, 그 가운데 확 트인 넓은 광장에서 청소년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방문객의 시선은 개의치 않고 대형거울 앞에 삼삼오오 모여 같은 동작을 몇 번씩 반복하며 춤 연습에 열중이었다.

뒤편 또 다른 광장에서는 미국의 현대미술가 키스 해링의 특별전으로 전시 중인 대형 미술품이 눈길을 끌었다. 과거 마굿간이었던 지하 공간에는 루브르 박물관의 심벌마크를 만든 작가, 미케란젤로 피스톨레토의 골판지를 소재로 한 대형 설치작품이 상시 전시돼 있다.

지역민들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유명 작품들을 관람하거나, 광장 이곳저곳에 비치된 의자에서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1874년 건립된 ‘상카트르 104’ 건물은 관, 비석 등 장례용품을 만들던 곳이다. 1900년대 초부터 파리시의 장례식장으로 사용된다. 1997년 이후 폐쇄된 공간을 파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 리노 베이션 과정을 거쳐 2008년 복합문화공간 ‘상카트르 104’로 탈바꿈시켰다.

이곳은 무엇보다도 지역민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홍보 담당 가이드 마리 시빌라 리니 씨는 “파리의 많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예술적인 것을 중시한다면, 이 공간은 사회적 관계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카트르 104’는 2010년 ‘모든 공간을 쉽 없이 활용하자’를 모토로 내세운 신임 디렉터 조세 마누엘 곤잘레 씨가 부임하면서 생동감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한 걸음 더 발전했다.

연극, 춤, 음악, 시각아트, 마술, 현대서커스까지 이곳에서 공연되고 있다. 2010년부터 연간

3,000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했으며, 3년 동안 모두 150만 관객이 방문했다. 지난해에만 9차례의 전시, 12번의 축제, 620회의 공연이 진행됐다.

전체 면적이 3만6,800m<sup>2</sup>에 달하는 이곳은 지역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정문과 후문을 연결하는 통로였던 광장은 일반시민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춤이나 연극 등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됐다.

2층에는 전 세계의 작가들이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하는 19개의 아뜰리에가 있다. 지난해에는 248명의 작가가 이곳에 머물렀다.



프랑스 파리의 상카트르 104는 과거 장례식장 건물을 개조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이다. 건물 내 광장에서 청소년들이 춤 연습을 하고 있다.

1년 반 정도 이곳에서 작업을 했다는 한국작가 권하윤 (31) 씨는 “체류 기간은 아티스트마다 다르다”며 “예술가로서는 전시 문화활동이 활발해서 새로운 자극을 주거나 영감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1층에는 좌우측에 수용 인원을 의미하는 200과 400이라는 공동의 공간과, 나무와 디지털을 접목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하는 창작 공간

이 마련돼 있다.

어린이들의 예술체험 공간인 ‘어린이 집’도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예술활동과 관련된 장난감이 구비돼 있는 이곳은 2명의 심리학자와 1명의 아티스트가 상주하며 아이들의 예술활동을 돋운다. 무료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입장해야 하며, 30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키스 해링의 작품이 전시 중인 공간은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곳으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중앙 통로를 항상 개방해 누구나 지나다니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외부기관의 문화활동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주는 세미나동과 중고물품을 싸게 파는 상가와 서점도 입주해 있다.

---

운영비는 연간 1180만 유로가 소요되며 이중 800만유로는 파리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 중 3분의 1은 행사 등 입장료, 3분의 2는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마리 시빌라 리니 씨는 “상카트르는 파트너십을 중시한다”며 “학교 등 44개의 교육기관과 10여개의 사회단체, 12개의 대학, 보육원, 병원, 장애인 시설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13 속초문화원 문화예술교육 |

The Sokcho Culture Journal



# The Sokcho Culture Journal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어울림이 있는 숲



## 청소년축제기획단 이을

거리에 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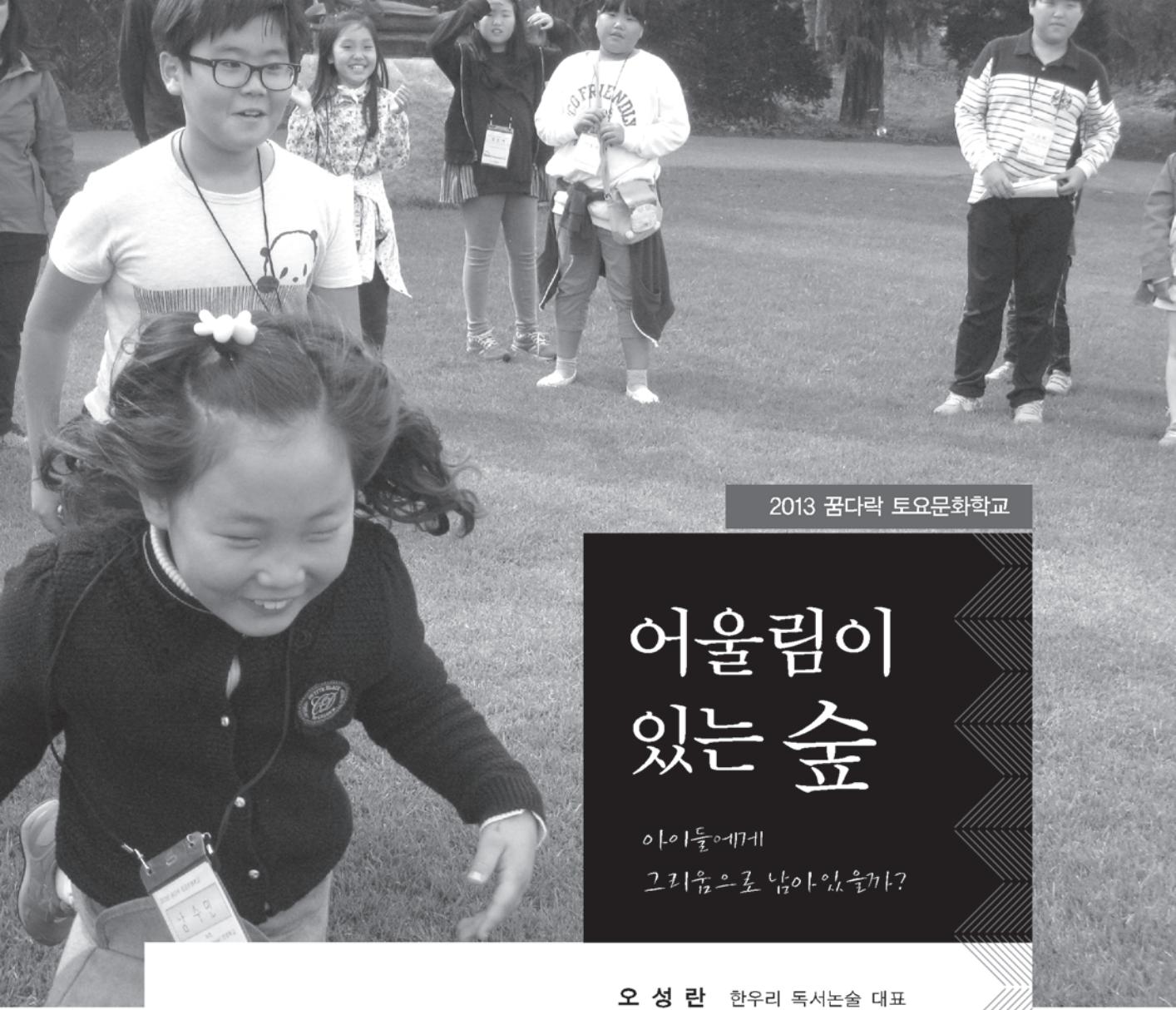
## 영상인문학

영화를 통해 더욱 넓어진 세계



##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

속초청소년마을보물발굴단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어울림이 있는 숲

아이들에게  
그리움으로 남아 있을까?

오 성 란 한우리 독서논술 대표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리워 할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하고 싶은 꿈을 안고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아이들과 함께 했다. 아이들이 바다를 애恸하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물고기를 잡아 주거나,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또한 창의성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살리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 아이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연’과 ‘놀이’, ‘아이다움’을 되찾아주는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를 늘 고민했다. 선생님이 의도한 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생태탐방 시간에서 조차도 아이들의 자유는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풀꽃에 관심 없는 아이 일지라도 모두 모여 풀꽃을 관찰해야

한다. 함께 꽃과 풀의 이름을 외워야 하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이런 진행은 자연스럽게 선생님 중심의 체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직도 역부족이지만 교육목표나 주제 없이 그냥 탐방을 나가서 자연을 관찰하거나 자연과 더불어 놀이를 한다. 다만 선생님은 아이들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같이 머물며 아이들의 탐방을 돋는다. 누군가 길에 널브러져 있는 나뭇가지를 줍는다. 길 위에 나뭇가지를 턱턱 퉁겨보던 아이는 퉁겨지는 리듬에 몸을 실어 움직여 본다. 그러더니 탄성을 지른다. “이렇게 걸으면 앞에 있는 장애물도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장애물 피하기 놀이해요”라고 말하며... 선생님이 미리 주제를 정해서 나갔다면 이런 놀이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목표와 성과에 집착하면 안된다. 길의 정서에 충실히해야 한다. ‘도로’가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라고 한다면 ‘길’의 목표가 아니라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 자체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어야 한다. 길에서 사람도 만나고 길섶의 들꽃도 만난다. 그래서 자기가 걷고 있는 길,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즉 자기의 삶 그 자체가 아

름다운 것이 되어야 한다. 생태문화탐방, 정크아트, 몸으로 표현하는 연극 등을 처음으로 접한 아이들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많이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





나뭇가지와 종이로 만든 점자리



클레이 아트로 표현한 영랑호 지도



레드파워모둠이 완성한 마을지도

인다. 목소리 내기도, 몸짓 표현하기도 낯설어만하던 아이들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욱 귀 기울여 들으며 의사소통능력도 발달하게 된다.

진정한 소통은 부단한 변화이어야 한다. 미술에는 자신이 없다며 창작동화 배경그리기 시간에 아예 손을 놓고 있던 소극적인 아이가 다음 과정에서는 먼저 나서서 그림을 그리고 동생들을 도와주기까지 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의 존재 밖에 존재하는 황홀감으로 이어지는 몰아의 경험은 아이들이 자라는 데 엄청난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리처드 루브의 이야기에 공감이 간다. 아이들은 무엇보다 자존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자연스럽게 익힌다. 동생들도 언니 오빠를 통해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갖게 된다. 함께하며 어울리는 동안 아이들에게는 여유와 안정감도 생긴다.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진정한 흥미와 관심을 토대로 교육을 펼쳐 나가야 한다. 아이들의 변화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옆 사람 만큼의 변화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 역시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형태로 내장되었다가 적절한 상황에서 발현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꿈다락토요문화학교도 자유와 해방, 집중과 몰입, 궁리와 표현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끌어간다면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어울림이 있는 숲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가끔은 꿈다락토요문화학교에서 체험한 일들을 그리워하면서...



# 청소년축제기획단 ‘이을’

- 거리에 서다.



김효린 아트앤플랜 대표

‘OECD가 12월 3일 발표한 ‘201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 한국은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수학은 1위, 읽기는 1~2위, 과학은 2~4위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전체 65개국으로 대상을 넓혔을 때 한국의 순위는 △수학과 읽기 3~5위 △과학 5~8위로 모든 영역에서 상위권이었다. 우리나라 부모님 입장으로 보도내용을 받아들인다면 가슴 뛰게 하는 소식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학에 대한 학습 동기와 자아 신념을 평가했더니 한국은 흥미와 즐거움을 포함한 내적 동기 지수가 -0.20으로 평가 65개국 중 58위였다. 수학이 미래의 학습과 직업에 유용할 것이라는 학습적 동기를 의미하는 도구적 동기 지수 역시 -0.39로 많이 뒤쳐졌다. 65개국 중 도구적 동기 지수

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루마니아(-0.59) 일본(-0.50) 오스트리아(-0.41)뿐이었다. 반면 수학에 대한 불안감은 0.31로 평균을 훌쩍 넘었다.

우리나라가 모든 영역의 최상위권을 휩쓸자 영국 공영방송 BBC는 ‘과연 한국식 교육이 세계 최고인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방송은 한국 학생들이 월등한 학업 실력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영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시간 학습의 결과라며 ‘한국식 교육’의 명암을 조명했다. 영국 고교 졸업인증 수학문제를 한국 고교생 6명에게 풀게 했더니 참가자 모두 주어진 시간의 절반도 안 돼 문제를 풀었고, 4명이 만점을 받고 2명은 한 문제씩 틀리는 월등한 실력을 보였다. 하지만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박모(16)양 사례를 평균적인 한국 고등학생의 일상으로 소개하면서, 지칠 줄 모르는 교육열이 엄청난 학업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 언론기사 인용-

꼭 그렇지 않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꿈을 포기하고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꿈이 무엇인지를 물어 본 적이 있다. 꿈같은 멋있는 이야기를 기대하였지만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직업을 이야기 한다. 안정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대학 진학에 집중해야만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공부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는 상위 몇 %의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하위 몇 십%의 청소년들로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저녁 늦은 시간까지 붙잡혀 있다. 왜 그래야 하지? 어른들은 이것을 ‘현실’이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꿈을 왜곡시킨다. 꿈같은 이야기를 하지마라 한다.

### 청소년들은 문화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이다.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문화형성의 행위자이고 의지를 가진 주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치 거대한 보물섬을 향해 나서는 범선에 오른 기분이었다. 속초문화원, 속초축제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청소년들의 자치적, 자발적인 축제 기획단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도자의 간섭을 최소화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인정하며, 기획단 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의 문화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

그동안 청소년을 보호해야하는 대상으로, 문화소비자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제는 작은 감동을 선사하는 존재로 청소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미래세대라는 꼬리표를 붙여 놓고 감시하듯 일거수일투족에 돋보기를 들이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자이자 주체 의식을 가진 개체라고 청소년을 인식할 때 청소년은 지역에서 문화를 생산해 내는 계층이 될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지받기 위해 부모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부모님 설명회’ 작업을 먼저 시작하였다. 부모들의 지지와 관심 없이는 기획단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학업에 몰입해야 할 시기임에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큰 모험이 될 수 있는 기획단 활동이 자녀에게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16명의 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어 청소년 축제기획단 ‘이을’이 출범하게 되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16명의 기획단 친구들은 설악문화제가 끝나고 나서도 중도 탈락 없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48회 설악문화제 청소년 축제 ‘판’을 준비하기 위해 축제기획단을 비롯해 축제위원회, 공연참가단, 전시 작품 참가단, 청소년 자원봉사단 등 약 180명의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청소년들의 문화행사 참여는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행위를 즐기는 참가자로 문화현장에 있었고, 이번

청소년 축제 ‘판’에서는 행위를 즐기는 진행자의 역할을 가지고 거리에 섰다는 것이다. 청소년 축제 ‘판’에 대해 어른들의 간섭 없이도 그들만의 노력으로 ‘판’을 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청소년 스스로 만들어 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였던 것은 그들이 ‘자유, 열정, 도전’ 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만들어 갔다는 부분이다. 무엇을 희생해야하며,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하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지? 등 많은 질문 앞에서 시간이 흐를 수록 스스로 답하는 모습을 보여 주곤 하였다.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동질감으로 발전되게 되었다. 처음부터 우리의 의도대로 작업이 가능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학교-학원-집-다시 학교로 이어지는 학생들의 일상은 청소년축제기획단 ‘이을’의 활동에 있어 많은 부분을 수정하게 하였다. 개인 특성이 다르고, 하나의 공동체 집단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속초지역 4개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다 보니 토론과정의 서먹서먹함과 형식적인 의견제시 등 하나의 팀으로서 인식을 같이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 하나의 팀이 되기까지

기획단 친구들의 내부소통의 원활함을 위해 또 다시 부모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을 가졌다.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이 아닌 색다른 공간에서 1박2일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1박 2일 부모님 안내문 중에서〉

1박 2일에 걸쳐 진행되는 중간점검 워크숍 시간을 통해 ‘개인에서 팀 · 그리고 전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 · 열정 · 도전’에 대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은 그들이 만들어 갈 ‘청소년 Forum · 축제 참가단 모집 · 설악문화제 청소년 문화행사’ 등 지역 청소년을 대변하는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성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집단적으로 협동하여 작업하는 가운데 자기성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워크숍에 참가에 대해 부모님의 허락과 지지를 얻고자 합니다.

〈1박2일 청소년 안내문 중에서〉

■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죠?

-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한다. 중간고사 보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성적에 대한 우울한 기억은 잊기로 하자. 홍명보가 월드컵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한 말 'One Team, One Spirit, One Goal' 그 말처럼 우리는 팀 단위로 움직일 거야 항상 팀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펜션처럼 모든 것이 준비 되어 있지는 않아 장소도 낮 설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이불도... 베개도... 없고. 개인 짐을 어디가면 바리바리 싸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체력이 허락한다면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지. 하지만 짐을 가볍게 하는 것도 집으로 귀가할 때 괜찮더라.

■ 선생님, 참가비 있나요? 공짜죠?

- 무료다. 각 팀별로 예산이 배분될 거야 그 예산에서 교통비, 간식비, 마지막 날 아침 식사 준비를 팀별로 의논해서 정하면 돼. 참고로 속초에서 워크숍 장소까지(왕복) 8,000원 정도의 교통비가 발생한다는 사실 명심하고.

■ 선생님, 워크숍 장소까지 어떻게 가요?

- 아주 중요한 궁금증이다. 너희들 팀 스스로 와야 한다. 속초에서 양양버스터미널까지 와서 거기서 양양 장리 들어가는 버스를 타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내버스 운행 간격을 생각하면 아주 큰 일 난다. 시골이다 보니 들어오는 버스가 많지 않다. 워크숍 장소(장리 하차)까지 오는 버스노선은 2개 노선이 있다. 양양 수리를 통해서 오는 버스는 13시 10분 버스를 타야하고, 하조대를 경유하는 버스는 11시 20분에 버스를 타야만 한다. 우리는 버스마다 번호가(7번, 7-1, 550번, 88번 등)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양에서 운영되는 지역 간선버스는 번호표가 없을 수도 있다. 어디를 경유하는지 끽말을 꼭 보고, 물어보고 타면 된다. 그리고 양양 장리에서 하차. 지나치지 마라. 한참을 걸어야 한다.

■ 선생님, 우리는 워크숍에서 무엇을 하죠?

- 이제 우리는, 우리(개인 혹은 팀)에게 집중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Together or With' 라는 공동체 의식과 Partner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Team Building' 작업을 할 것이다. '우리의 Performance를 위해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 무엇을 준비해야지 하는 것들에 대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채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1박 2일 워크숍을 마치고 나서야 기획단 친구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포럼을 준비할 수 있었다. 포럼에 참여하는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한 톡톡 튀는 포스터와 SNS홍보 활동에 집중하였다. 기획단 친구들 중 각 팀 리더들이 5개 영역에서 원고와 피피티 자료를 준비하고 좌장은 총괄리더가 담당하여 속초시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 축제 포럼’이 진행되었다.



〈청소년축제 포럼 홍보포스터〉

청소년 축제 포럼에서 구성된 청소년 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2박3일에 걸쳐 진행되는 청소년 축제기획 캠프를 통해 ‘남들과 다르게 누구보다 새롭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3 설악문화제 청소년 축제의 ‘판’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남들과 다른 것, 누구보다 새로운 것’ 그것이 무엇일까? 개념을 청소년들에게 이해시키기 까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무엇보다 공동의 작업 영역으로 남겨둔 ‘플래시몹’ 파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기획단 친구들의 기피 작업꺼리가 되었다. 다행히 두 명의 기획단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진행시킴으로 설악문화제에서 어른들에게 보내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담은 퍼포먼스를 멋지게 선보이게 되었다.

## 청소년 거리에 서다, 설악문화제

설악문화제 부스 설치가 시작되는 늦은 저녁에 우리 청소년들이 ‘판’을 벌일 장소확인을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곳이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이 준비한 ‘것’들이 펼쳐질 공간임을 확인하자 작은 떨림이 왔다. 이 거리에 설 모든 청소년들도 그러하고, 무엇보다 오늘을 준비하기 지금도 잠을 자지 않고 오늘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그러하고, 먼 길을 걸어온 기분이 들었다.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눈물을 흘리던 친구, 왜 나만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친구, 공동체의 다양성 때문에 힘들어 하던 친구,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한다던 친구, 진통제를 맞아가며 무대에 선 친구. 수많은 사연을 가진 친구들을 하나하나 만나 볼 수 있었던 설악문화제. 그 중에 가장 기분 좋은 말이 ‘선생님 저 참 많이 변했죠?’라는 말이다. 정말 아이들이 변했다. 청소년들이 성장했다. 학업과 시험이라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열정에 대해 이해하고 도전하는 용기를 보여준 그런 청소년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우린, 또 다시 내년을 바라보며 청소년축  
제기획단 ‘이을’의 모태 역할을 하였던

속초문화원 김인섭 사무국장,  
늦은 시간까지 퇴근을





하지 못하였던 이정무 사업과장, 김은중 사무주임, 지도교사들에게 동기  
기를 주셨던 속초축제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 양언석 위원장, 함께 고민  
하였던 최택수 사무국장, 친절한 장은선 과장님 등 많은 어른들이 지역  
의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있음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었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불러본다.

김서현, 진민령, 이나영, 조현정, 이지원, 공소연, 김윤아, 엄서의,  
이소희, 백창훈, 김윤환, 김태형, 김태훈, 탁정희, 박영훈, 김동현.  
그리고 항상 옆에서 함께 해 준 이연주 선생님.



# 영화를 통해 더욱 넓어진 세계

어효은 영상인문학 전담인력

2013년은 매우 특별한 해이다. 대학 졸업을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해이기 때문이다. 우연찮은 기회로 문화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영상인문학을 만나 보조강사 및 전담인력을 맡게 되었다. 올 해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이었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강사님들의 노력으로 무사히 종착역에 도착하였다.

영상인문학이란 청소년이 좋아하는 영상문화(극영화, 다큐멘터리, 비디오아

트, CF)를 활용하여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과 창의적 활동을 제공하는 청소년 인문학 프로젝트이다. 강원도는 수도권에 비해 인문학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때문에 강원도 고유의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재 양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영상인문학은 영상작품을 주제별(환경, 인원, 평화, 노동 등)로 구분하여 주제가 담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

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 관련 인문학 강의를 실시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표 현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과 상호 토론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는 통합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영상인문학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상인문학 교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상인문학 여름방학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영화를 보고 나서 클레이아트,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1박 2일 간의 영상인문학 캠프를 실시, 함께 단편

영화를 직접 만들어보기도 하는 등 여러 체험을 해 보았다. 고교생을 대상으로한 DMZ영화제 답사 체험을 통해 국제다큐멘터리 영화 감상 및 다큐백일장에 참가하여 글쓰기 대회에 참가하는 기회도 가졌다.

영상인문학이라는 타이틀로 속초, 고성, 춘천 등 지역 중·고등학교에 동아리 시간을 활용, 다양한 활동으로 교육을 시도해 보았다. 여러 학교 중 설여중, 고성고, 속고에서 보조강사로 활동하였다. 학교마다 학생수, 시설이 달라 수업 방식도 달려져야 했다.

설여중은 9명의 학생이 참여, 한 편의 영화를 2주간 나눠서 상영을 했다. 영화 선정은 주강사님과 학생들이 공감할만한 내용의 영화, 혹은 함께 토론하기 좋은 영화 위주로 선정하여 보았다. 중간에 영화를 끊고 활동지를 작성하거나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영화의 흐름이 끊기는 것이 아쉽긴 했지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영화 내용을 토대로한 퀴즈 게임도 하고 영화 속 인물에게 편지를 써보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발표는 모둠 형식으로 둘러앉아 이루어졌다. 영화를 보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 ‘나라면’ 이라는 가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성립시켜 나갈 수 있고, 다른 친구들에게 발표함으로써 서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영화별로 가족의 소중함, 인권 문제, 삶과 죽음에 대한 토론 등 가치관을 확립시켜주는 주제로 영화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퀴즈 맞추기나, 함께 활동하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놀이 형식의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고성고는 영화상영실이 따로 있어 그곳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시설이 좋아서 마치 영화관에 온 기분까지 들었다. 고성고는 3시간 수업이었기 때문에 장편영화도 상영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다. 학생들에게 영화 상영 후 영화감상문을 쓰도록 하였다. 주강사님은 학생들의 글을 읽으며 수정해주시기도 하였다. 또한 영화와 관련지어 학생들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질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었다. 특히 ‘코러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선생님이 꿈인 수지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음악선생님이 진심어린 사랑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고 이야기했다. 속초고는 수업을 나간 학교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았다. 3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 영화를 선정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주강사님께서 좋은 영화를 선정해주셨다.

처음 영화를 상영했을 때 오래된 영화라고 최신영화를 보자고 학생들이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막상 영화가 상영되고 나면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떤 영화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는 질문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1순위로 꼽혔다. 상영했을 때 오래된 영화라고 다른 영화를 보자던 학생들이 많았는데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강렬했던 것이 틀림없다. 카르페디엠, ‘순간을 잡아라’는 메

시지를 아마 많은 학생들이 기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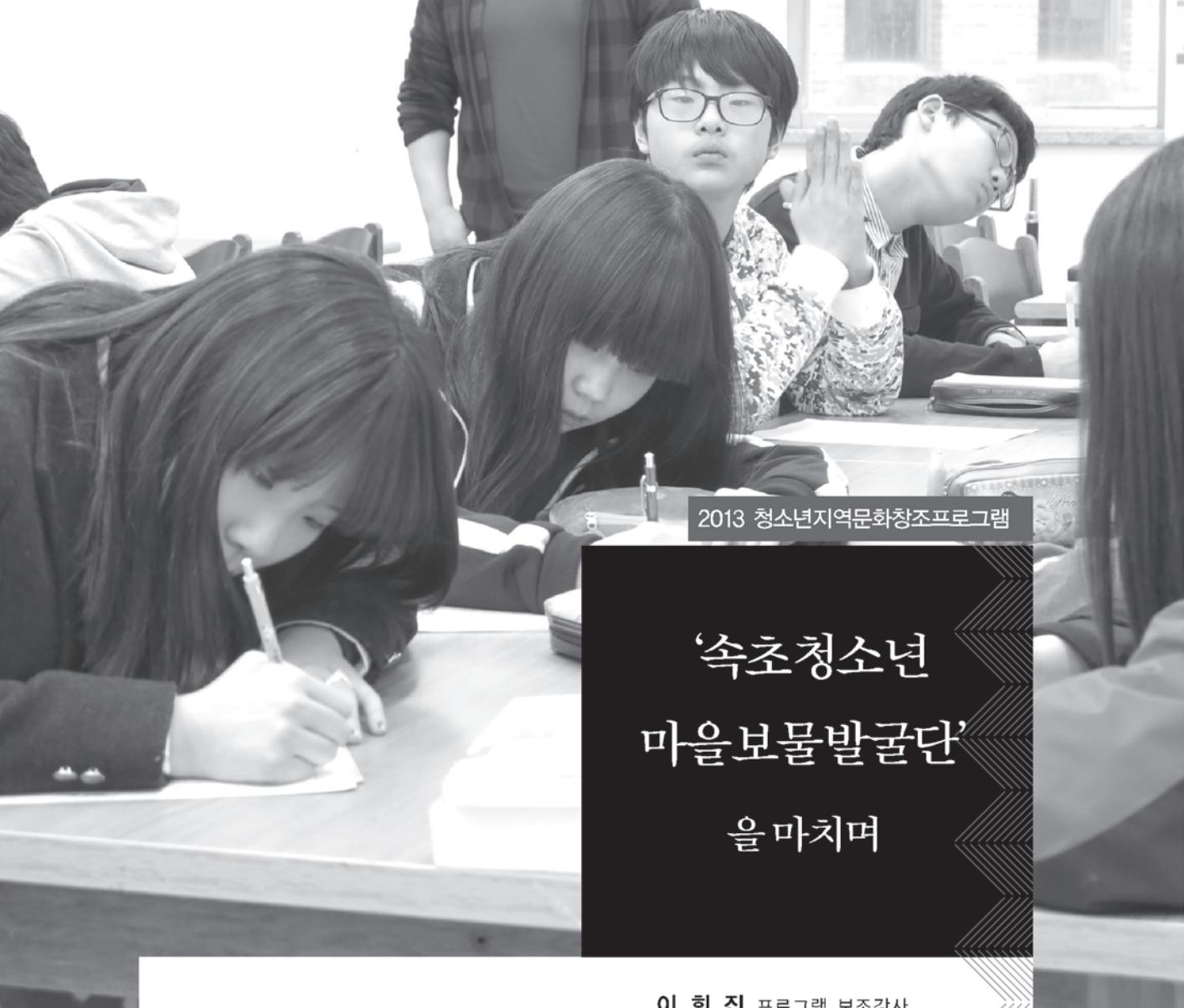
3개의 학교를 수업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영화선정에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학생 때 좋은 책과 영화를 많이 보는 것만큼 정서발달과 가치관 형성에 좋은 것이 또 있을까? 영상인문학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져 있다는 점이다.

국영수사과 등 교과서나 학원 책들에 시간을 쓴 학생들이 대부분, 정작 인성과 인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책들에는 먼지만 쓸여가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극적인 영상 매체에 익숙해진 요즘 학생들에게 빽빽하게 문자가 박혀있는 책이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걸 수도 있다.

하지만 영화는 다르다. 영화는 보기만 하면 된다. 머릿속에 그리지 않아도 캐릭터들이 알아서 움직인다.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자극 시킨다. 영화를 보며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한다. 학생들에게 가장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영상인 샘이다. 단순히 영화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통해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글로 쓰고 이야기하며 영화가 주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김질 하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학생 때 본 책과 영화들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갖을 수 있으며 철학적 사상을 통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함으로써 사고가 넓어지고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주관을 보다 확고하게 자리잡게 해준다. 한 번의 되새김질은 자신의 사고를 확립시켜주며 스스로 고민한 시간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다. 영상인문학은 모둠별로 진행하는 것이 유익한 것 같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머릿속에 생각을 담고 있는 것보다 생각을 말로 꺼냈을 때 더욱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영화란 감동이 있고 영화를 통해 인생의 한 부분을 채워주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영화와 인문학적 교육은 학생들에게 훗날 거름이 되어 자신이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어줄 것이다. 영화는 삶의 여러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함께 공감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영상인문학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3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

# ‘속초청소년 마을보물발굴단’ 을 마치며

이 희진 프로그램 보조강사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2010년 설악산 자원활동가를 통해서이다. ‘자원봉사’, ‘자원활동가’, ‘문화예술’은 늘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고, 그래서 나는 막연히 ‘문화예술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속초문화원에서 보조강사로 활동을 같이 시작하면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학생이 공부를 배우는 것처럼 속초문

화원에서 활동하는 시간 동안 나 역시 학생처럼 ‘문화예술’이라는 과목을 배운 것이었다. 학생으로 보자면 4학년, 4학년인 내가 올해 속초문화원과 함께 한 프로그램 ‘속초청소년마을보물발굴단-도문동’(이하 보물 발굴단)은 마치 ‘보물섬’에 나오는 ‘짐 호킨스, 외다리 실버’처럼 멋진 모험을 상상하게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속초라는 지역 구석구석의 보물을 찾고,

찾은 보물을 들고 기뻐서 환호하는 모습을 그리게 됐다. 아마 모르긴 해도 보물발굴단 멤버인 속초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으리라. 그런데 우리 모두 간과한 것이 있었다. 짐이 보물지도를 손에 넣고 보물을 찾기까지 어떤 수고를 했었는지,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 지식들을 필요로 했는지에 대해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첫 수업부터 ‘어?’ 하며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다. 왜 조사 방법을 배워야 하는지, 지역문화의 가치를 알기 위해 특강은 왜 들어야 하는지, 왜 하기 싫은 조사를 계속 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너무나도 생소한 분야, 그것도 첫 느낌과는 전혀 다르게 다소 지루하기도 한 수업을 4차시 보낸 후 드디어 도문동이라는 현장으로 조사를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아!’ 이해를 하게 되었다. 지역문화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가치를 재대로 알아야만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도문동 사람들과 지역문화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계어야 할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보물을 가치를 감히 매길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되었다. 사전준비 미흡으로 원하고자 한 분들과의 미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적절한 질문을 하지 못해 내용이 빈약했다는 점, 프로그램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로 인해 귀한 자료들이 계속 분실되었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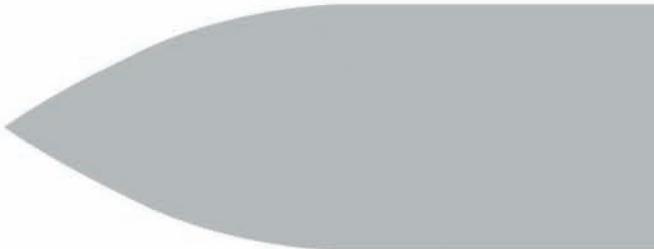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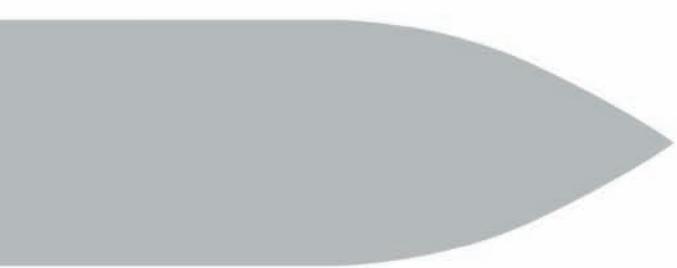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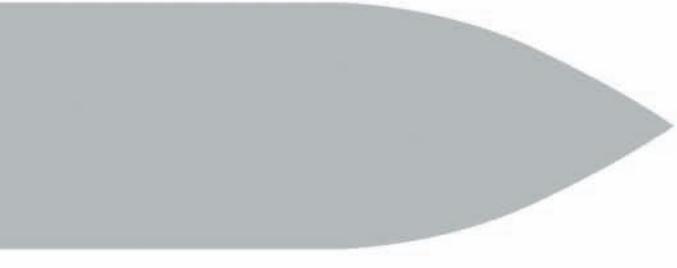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자책과 함께 반성을 하게 되었고, 적절한 질문을 하는 방법과, 발굴하고자 하는 보물에 대한 사전 지식, 예의, 조사에 대한 중요성, 채록의 가치 등을 공유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나가게 되고, 처음보다는 많은 결과물들이 있게 되었다.

1박 2일의 집중조사 캠프, 전문가와 함께 한 두 번의 특강은 ‘귀한 보물’은 그만큼의 준비 작업이 충실히 해 주는 과정이었다. 이어서 세 번째의 현장조사, 그리고 4차시의 마무리 정리과정. 그러면서 귀한 책자 발간을 앞두고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21차시의 과정을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안타깝고, 아쉽고, 더 잘 할 걸, 하는 생각이 많았다. 친구들이 프로그램을 맘껏 즐기게 만들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멋진 캠프를 만들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 보조강사로서 더 많은 일을 잘할 걸, 하는 생각으로 후회가 더 많은 시간이었다.

‘문화예술강사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진정한 문화예술강사가 되는 길일까?’ 올 2013년, 보물발굴단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으로 바쁘게 지내면서 나는 여러 생각에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과정이고, 멋진 문화예술강사로 살 수 있는 시간을 선물 받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 내년의 활동들을 기대해 본다.





우리지역 옛이야기

‘속초 물 사이길’에서  
‘길’을 묻다.

이수영 설악신문 프리랜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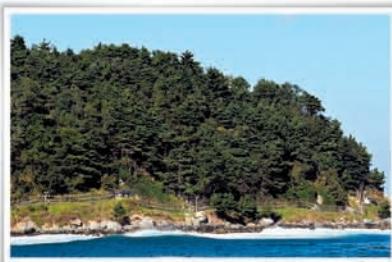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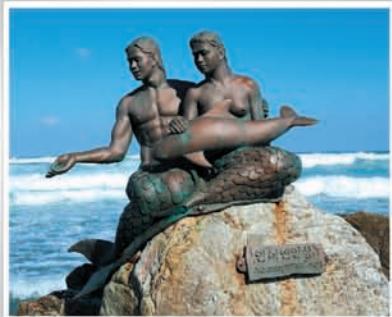
# The Sokcho Culture Journal

## ‘속초 물 사이길’에서 ‘길’을 묻다.

속초시는 관동 학경 농생강관길, 청파포항길, 난소길, 남만가도 등 탐방로 명칭을 ‘속초 물 사이길’로 통합하고 유휴유소에 이미지를 부여해 홍보할 계획이다. ‘속초 물 사이길’은 설악봉해변이 공원을 시작으로 대포항, 속초항, 아바이마을, 동대령 해금강, 청내항, 청내항, 예장항, 관광수산시장, 청호호에 이르는 21km의 구간이며 각 구간마다 스토리에 맞는 상상조형물과 청개자 등으로 제작된 설치물을 제작된다. ‘속초 물 사이길’을 걸어보고 느낀 점을 그대로 제작해 옮겨본다. (한국자주)

### ■■■ 설악해맞이공원~대포항~외옹치~속초해변~아바이마을(갯배)

설악해맞이공원에 섰다. 속초의 관문이 어선지 상징조형물은 물론 조각상들이 즐비하다. 왠지 이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탑이 보인다. 지난 2007년 7월 22일 건립한 ‘실향민 망향탑’이다. 신포마을 공원이 역사성과 장소성에 걸맞지 않을까. 비록 스토리텔링이지만 ‘인어연인상’의 내력이 옛 내물치마을의 운명과 맞을지도 모르겠다. 속초의 시작이 조양동 선사유적지였다면 근대 속초의 길은 대포항이 열었다. 1914년 양양군 도문면과 소천면이 통합되면서 도천면이 된다. 도천면의 소재지는 대포리. 그래서 면사무소와 학교, 주재소와 우편소 따위가 모두 대포에 들어서게 된다. 부산을 출발해 블라디보스 톡까지 가는 배도 이 대포항에 기항했다. 장승리 양양철광의 선적지가 대포항이었기 때문이었다. 1937년부터 속초항이 개발되면서 대포항은 시나브로 포구로 전락한다. 전화위복이랄까. ‘해 뜨는 마을’로 전국적 명성을 구가하면서 무역항에서 관광 항·포구로 변모했고 이젠 매립사업으로 또 다른 실험대에 올랐다. 광활한 바다전경을 막고 있는 10m높이의 방파제가 대포항의 랜드마크가 됐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으면서 제방 위로 올랐더니 기슴이 확 트였다. 길고 넓은 제방의 쓸모를 고민하는게 대포상인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외옹치 포구다. 불탄 난전은 온데간데없고 새로 단장한 난전이 마무리공사에 한창이었다. 갑갑했던 가슴이 이내 확 터진다. 철물로 만든 솟대가 낯설다. 외옹치를 둘러싸고 있는 철조망 출입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했다. 군부대와 협의해 이곳을 개방하면 둘레길로 안성맞춤일 텐데 말이다.

여성황당이 대포항을 굽어보고 있고 병커 초입에서 만난 초병들은 한사코 출입을 막는다.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흥역을 치른 외옹치마을의 어귀가 그 시설 앞으로 변했다. 장승과 솟대가 마음을 지켜주는 어촌마을답게 길 왼쪽에는 천하대장군이, 오른쪽에는 지하여장군이 나란히 서서 두 눈 부릅뜨고 있다. 아쉽게도 솟대가 없다.

하루빨리 상사업비로 어수선한 미을 분위기를 추슬러야 할 것 같다.

백사장을 따라 속초해변에 당도해 해송길을 걷는다. 짧지만 솔향은 느낄 정도다. 침식으로 백사장이 깎여나가 이미 옛 모습을 많이 잃었다.

소라껍질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있는데 또 나체의 여신(女身)이 교태를 부린다. 해변에 어울리는 상징조형물인지 물음표를 찍는다. 예전에 방사제 위의 난전을 철거하고 만든 '산호와 사랑' 이란 조형물이 조도를 배경으로 서있다.

속초해변 일대가 펜션단지로 변모한지 오래다. 청호동에 들어선다. 청호초등학교 뒤에 성황당이 보이고 오징어덕장도 간간이 보인다. 아바이마을의 주 도로가 확장되면서 판잣집들이 자취를 거의 감추고 양옥들이 즐비하다. 청초호 매립으로 조선소도 사라졌다. 신수로가 뚫리면서 약 2백여 가구가 미리내마을로 이주하거나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해안도로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신수로 방파제엔 낚시꾼들이 몰려있다. 매년 10월 초부터 낚시꾼들이 몰려오는 명소가 됐다. 안전시설과 화장실, 쓰레기 등 주변 여건만 갖춰준다면 굳이 낚시대회를 속초해변에서 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해양기후 변화 때문인지 올핸 주로 삼치와 고등어가 낚싯줄에 많이 걸렸다고 한다.

신포마을이다. 갯배 도선장에 있는 가을동화 조형물을 뒤로 하고 해변 쪽으로 향했다. 아바이마을이란 동상이 속초해변에서 언제 이곳으로 옮겨졌는지 모르지만 제법 해변공원에 어울린다. 썩어 넘어진 나무조형물 등 해변공원의 조형물들은 정비가 시급하다. 청호동의 역사를 표현한 안내대가 풍광을 가릴 정도로 너무 길게 늘어서 있다.

지난 10월 14일 속초시홈페이지에 김애란씨는 "이곳은 신포가 고향인 의인 유정충선장의 스토리가 생각나는 장소입니다. 실향민으로 청호동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다가 동료들을 살리고 어선과 함께 바다로 사라진 유정충선장의 스토리는 해변공원에 딱 어울리는 테마입니다. 또 이상국시인의 '청호동에 기본적이 있는지'라는 시비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시에는 청호동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분단의 역사적 아픔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으니, 그 자리에 이상국시인의 시비도 최적이겠다는 개인적 소견입니다. '청호동에 기본적이 있는지' 혹은 '갯배'라는 연작시를 추천합니다."



## ■■■ 동명항~영금정~장사항~영랑호~관광수산시장~청초호

걸어서 갯배에서 수복탑까지 왔다. 금강대교와 연결되는 도로확장으로 우리 수복기념탑 광장의 면적이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졌다. 올해 수복60주년을 맞아 수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행사라고는 없었다. 기념탑도 나무에 가려 존재 자체를 모르는 관광객들이 많았다. 속초의 역사가 일천해서일까. 이야기를 꾸며 상징조형물을 만들어 세우는 작업에만 연연해하고, 정작 있는 역사를 당당히 홍보하고 관광상품화 할 생각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수복기념탑의 의미는 전국에서 유일하다는 것과 아직도 어머님 손을 부여잡고 고향을 향하는 꿈을 꾸고 있는 실향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토록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텔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할 지경이다.

마음을 다독이며 발길을 옮기는데 길은 동명항 가는 길이되 몸은 벌써 동명동 ‘속초리 성지’로 향한다. 토기를 비롯해 문화재가 발굴된 ‘속초리 성지’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있지만 관광지로 이야기 거리 또한 충분하다고 본다. 가령 동명동 성황당 내 사당에 삼신합매 초상과 장군신을 나란히 모시고 있는 것으로 봐 이 성터를 지킨 장군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유서 깊은 속초감리교회와 천주교 동명동성당의 건축양식, 그리고 산동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의 고단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골목길을 따라 속초등대를 목표

지점으로 가족단위 ‘길 찾기 게임’도 기획해볼 수 있다.

가파른 철 계단이 아닌 마을을 통해 오른 등대의 전망은 그래서 가슴을 뻣 뚫리게 한다.

속초1번지로 대표되는 랜드마크였던 속초등대 주위에 상징조형물을 만든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영금정의 유래에서 찾은 거문고 조형물은 그래서 누가 봐도 ‘괜히 한 짓’이라고 허를 차는 것이다.

영랑동 해변을 따라 펼쳐진 넓은 백사장은 사라지고 삼발이로 쌓은 제방만이 길게 늘어서 있고 차량이 드나드는 길 한쪽엔 포차주점들의 간이탁자와 의자들이 점령하고 있다.

물 사이 길을 이으려고 제2영랑교 가설공사가 한창인데 영랑동 해변 길은 사람과 차량이 함께 다니기엔 도로 폭이 너무 좁다.

장사항이다. 횟집들이 도로를 따라 빼곡히 들어차 있다. 지난 2011년 7월 25일 준공한 장사어촌체험마을 대상 기념 오징어공원이 보인다. 매년 여름 열리는 오징어 맨손잡기행사를 형상화한 것이다. 장사오징어 맨손잡기축제는 이미 전국에서 유명한 축제





로 자리를 잡았다.

고성과 경계에 있는 군부대 초소가 개방되면 산을 끼고 형제바위를 보며 해안선을 걸을 수 있게 된다.

해경 충훈탑을 끼고 걷는 옛 7번국도 인도엔 은행나무 잎이 떨어져 노랗게 물들었다. 영랑호에 들어서니 울산바위가 호수에 앉았다. 영랑호 초입에 있는 가옥들과 함께 서있는 바위와 카누경기장을 지나 속초고등학교로 가는 길 주위에 산재한 바위들을 호수와 어울리게 옮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본디 이곳까지 호수였으나 매립해 길과 밭으로 사용돼 결국 이 바위들의 쓰임새가 호박넝쿨을 반침대로 전락했다. 영랑호 별장촌도가 시작되는 지점에 고바우<신선바위, 윤선(輪船)바위, 두꺼비바위>가 있다.

동국대 권동희 교수는 이런 바위를 공깃들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백, 수천만 년 전부터 땅속으로 수m 들어간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 암석은 화강암으로 풍화돼 모래나 흙으로 변하는데 단단한 부분은 계속 남아서 거대한 바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오랜 세월 풍화 물질이 제거되면 땅 속 깊은 곳에 있던 커다란 둥근 바위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핵석'이라고 한다고, 이런 이야기도 스토리텔링이 돼 가족단위 여행객에게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체육공원의 영랑화랑 조형물을 지나 범바위, 영랑정에 이어 안죽시비를



초 앞바다를 조망한 후 미로처럼 얹힌 골목을 따라 관광수산시장에 닿는다. 수산시장이라는 명칭에 노랑진수산시장을 연상했지만 그냥 재래시장이라 실망했다는 관광객의 말처럼 이름을 지을 때 전통성을 감안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황소광장이다. 왜 황소가 여기에 있느냐고 묻는다. 난감하다. 속초지형이 와우형이라 이를 상징했다는 답은 궁색하다. 세계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월가에 있는 황소상과 생식기까지 비슷하다고 관광객이 말한다.

알다시피 미국 뉴욕 패션지구 내 인포메이션 데스크 앞에는 조형물 2개가 놓여있다. 바늘이 꽂혀있는 커다란 단추와 허리 굽은 노동자가 재봉틀을 돌리고 있는 모습의 조각상이다. 이 조형물들은 뉴욕 출신의 세계적 디자이너가 아닌 이름 없는 노동자를 표현하고 있다. 이 조형물들만 봐도 뉴욕이 패션 중심지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즉 패션지구라는 장소성과 더불어 뉴욕 패션지구 봉제노동자들의땀과 눈물이란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황소상을 대신해 장소성과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유정충선장 동상으로 바꾸고 갯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공감하는 스토리텔링을 하자.

갯배 선착장 근처 화랑에서 그림감상을 하고 어판장을 따라 선박대에 이른다. 옛 선박대의 계류장도 가능하면 스토리텔링을 해보고 조선소의 역사와 함께 석봉도자기, 해상공원을 거쳐 철새도래지 텁방에 나선다. 엑스포타워에 올라 속초전망을 들려보고 분수공원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나무로 만든 듯은 요트장 근처로 옮겨 계류장을 안내하는 이정표로 재활용하고 불 축제와 관련한 조형물은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 ■■■ 우리 삶 오롯이 담긴 지역문화작품이 곧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3개의 기법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글로 옮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과 창작이 혼재돼있는 것, 마지막은 창조적 아이디어 작품이다.

따라 나오다 동물원이 있던 자리에 서서 그 시절을 잠시 회상하다 이내 발길을 옮겨 보광사로 향한다. 화랑이 놀았다는 곳에 활터는 자연스러운 것일진대 옛 궁도장엔 이와는 어울리지 않은 단체가 있다.

유년시절 보광사 솔밭 일대가 말 그대로 유원지였는데 이젠 미니골프장만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영랑호를 걸어 나와 공설운동장에서 우렁골을 지나 옛 속초역 자리를 찾아본다. 속초시청 뒤 사이렌 동네에 올라 속

우리가 길을 포함해 관광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려는 이유는 관광지를 방문하지 못한 관광객에게는 방문을 유도하고 관광객들의 목적 지향적인 선택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한국관광공사는 관광객의 체험과 추억의 관리를 통해 관광객, 관광지, 지역주민이 공동의 감성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관광스토리텔링이며 미디어 혹은 관광기업과 관광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광지 방문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광지와 관광자원간의 스토리텔링까지 확대해 제시한 바 있다.

이 개념에 비춰보면 속초시는 지역주민과의 공동 감성체계에 너무 안일하다. 청초호와 영랑호에 있는 청룡·황룡 상징조형물에 대한 설화가 공무원 교육을 통해 널리 전달되도록 노력하지만 그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야기라 전파력이 없는 듯하다. 일반시민들도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관광객에게 제대로 설명해줄리 만무하다. 길과 관계된 지역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도 추후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상징조형물을 세운들 지역민들이 공감이나 하겠는가.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체험거리를 주는 갯배에 대해 지역문인인 지영희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너에게 내린 줄을 당기고 싶다는 건/내게로 오려함 이었다/뱃전에 달라붙는 소외된 냉기쯤/더 아플 것 없는 청호 바람에 훑어내고/가끔 큰 배가 지나칠 때 마다/물결 사이로 솟구치는 유혹은 두려움이기도 하지만/네가 왜/면 바다에까지 외등을 밝히고/밤마다 서성이는지 알아야겠다/갈고리에 끼운 쇠줄/힘껏 당기어/네 가슴 한 가운데를 끌어내는데/내 면저 가고 있는 건/내 발 면저 내달아지는 건 무슨 까닭인가/바람 속 너를 끌어안고 싶은 오늘/내 가슴 한 가운데로/굵은 쇠줄 하나 내린다.”



향토문인 이상국 시인도 ‘청호동에 가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혹시 청호동에 가본 적이 있는지/집집마다 걸려 있는 오징어를 본 적이 있는지/오징어 배를 가르면/원산이나 청진의 아침 햇살이/펴들썩거리며 튀어 오르는 걸 본 적이 있는지/그 납작한 몸뚱이속의 춤 추는 동해를 떠올리거나/퉁퉁배 연기 자욱하던 갯배머리를 생각할 수 있는지/눈 내리는 함경도를 상상 할 수 있는지/우리나라 오징어 속에는 소줏집이 들앞았고/우리들 삶이 그 보편적인 안주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마흔 해가 넘도록/오징어 배를 가르는 사람들의 고향을 아는지/그 청호동이라는 떠도는 섬 깊이 수장당한 어부들을 보았거나/신포 과부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는지/누가 청호동에 와/새끼줄에 거꾸로 매달린 오징어를 보면서/납작할 대로 납작해진 한반도를 상상한 적은 없는지/혹시 청호동을 아는지”

이렇듯 우리지역 곳곳을 노래한 지역문인들의 문학작품들이 많다. 문학작품을 통해 지역의 생생한 삶의 흔적이 드러날 때 관광객들이 낯선 길에서 타인의 삶을 간접체험하면서 자신을 힐링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희곡을 쓰는 최재도 작가는 설악신문에 우리지역의 추억어린 옛 이야기들을 담은 연재물을 많이 남겼다. 이런 글을 스토리텔링하면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웰빙과 힐링 등 건강 관련 스토리텔링이 크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가령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라든가 일본 카마도지옥의 ‘마시면 10년 젊어지는 온천물’, 일본 하코네 온천의 ‘먹으면 7년 더 오래 산다는 검은 달걀’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지정 신청 등 설악산의 청정한 환경, 온천 등과 연계된 건강 관련 스토리텔링 개발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생태 숲길을 장수숲길로 스토리텔링 하는 방안도 모색해보자. 연인의 사랑과 행복이란 주제는 스토리텔링의 기본이며 일본 아오모리현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가 ‘합격사과’로 변신하는 역발상, 창조적 각색을 통한 신화와 역사 재탄생, 드라마나 영화로 인기를 많이 끌만한 소재 발굴 등 관광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특히나 우리지역의 경우 향토음식을 통한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시급하다.

아울러 기존 문화관광해설사와 표지판 등 전통적인 전달매체뿐 아니라 공연재현 프로그램, 디지털 스토리텔링기법 등 새로운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법들이 추가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속초는 연극의 도시이다. 이반, 최재도 등 지역의 베테랑 희곡작가들이 중심이 돼 관광지에서 분단과 이산, 실향 등 우리네 이야기를 극화해 상설 연극공연을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지역 설화나 역사를 창조적으로 각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대본에 함경도 사투리와 속초사투리를 섞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투리로 연극을 진행해 관객들로부터 폭소를 이끌어내는 기법도 연구해볼만하다.

# The Sokcho Culture Journal

## 특별 기고

- 크레마 (crema for PC)로 읽은 영상 책 한 권 \_ 박영도
- 장창영(張昌榮)회장을 회고하며 \_ 동문성
- 뜻밖의 증서, 애국의 길을 돌아보다 \_ 문화원 가족 소식

The Sokcho Culture Journal



# 크레마 (crema for PC)로 읽은 영상 책 한 권

“인민을 위한 총리로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의 총리로 인민을 사랑하고/ 총리와 인민이 동고동락하니/ 인민과 총리의 마음이 이어졌다(人民的總理人民愛 人民的總理愛民 總理和人民同甘苦 人民和總理心聯心).”

천안문광장에 세워진 저우언라이(周恩來, 1898~1976) 추도비 전문이다.

자신보다 서열이 낮았던 마오쩌둥이 1인자로 등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며, 온갖 압박을 받으면서도 실용노선의 덩샤오팹을 지켜낸 저우언라이. 오늘의 중국이 있기까지 마르크스주의를 고수하면서도, 균형감각을 잃지 않으면서 끝까지 정치 미학을 발휘한 저우언라이의 궤적을 한 눈에 담기에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다. 덕망과 청빈한 삶, 현장의 경험을 귀하게 여기며, 국제무대에서 중국 외교의 힘을 적절하게 발휘한 그의 장점을 읽다보면, 실정과 실수도 찾아서 읽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그만큼 이 책은 그의 미덕에 초점이 맞춰 있다. 아니, 어쩌면, 저우언라이의 평생의 정치가 혁명의 선상에서 이루어졌기에, 그만큼 큰 단점을 찾기 어려웠는지도 모른다.

트로츠키가 외교관, 행정가로 활약하면서도, 이념을 확대하고 생산하며, 동시에 자신의 신념을 삶으로 보여준 혁명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저우언ライ는 폐허로 주저앉은 중국을 일으켜 세우는 데 혁명가로서 자신의 일념과 인생을 바쳤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낮아졌던 정치가. 국가와 이념을 떠나 시대와 역사 앞에서 자신의 좌표를 분명히 자리매김하고, 그 무게를 올곧게 감당한 정치가의 삶은 감동이다. 아내 덩잉차오에 대한 애듯한 사랑, 죽은 혁명 열사들의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치고 키운 정성, 생선과 고기를 올리지 말라는 명령, 왕푸징 동승화 구둣가게의 형겁신 삽화... 작은 일상 속에서도 그의 넉넉하고 푸근한 인품이 묻어난다.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현실성 없는 일을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가능한 일을 추구하면 조급증이 발동하고, 이 조급증은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난 현실감각과 이상주의자로서의 냉철함을 겸비한 저우언라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2인자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할 줄 아는 유연한 지도자. 닉슨의 표현대로 마오쩌둥이 없었더라면, 중국의 혁명에 불이 붙지 않았겠지만, 저우언라이가 없었다면 그 불길이 다 타서 재가 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데 동감한다.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저우언라이가 있었던 중국이 부러워졌다.



## 인민 속에서 행동했던 중국 공산당의 2인자

1976년 1월 8일, 뉴욕의 UN 본부 정문에는 조기가 게양되었다. 이를 뒤, 북경의 늙은 이발사 주디엔화는 저우언라이의 유체를 다듬으며 오열한다. “총리! 지난 27년 동안 모셨는데,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는 이발도 면도도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북경반점(호텔)에는 귀빈용과 일반용 이발실이 있었는데, 주디엔화는 귀빈실이 아닌 일반 이발실 담당자였다. 중국 권력의 서열 2인자인 그의 삶은 그렇게 늘 인민과 함께하는 소탈한 생활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UN기가 조기로 휘날린 것은 1945년 UN 창립 이래 처음 있었다.

## 감동 리더십 ‘저우언라이’

우리 사회에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은 많지만, 조직의 리더가 될 만한 진정한 자질을 갖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중국 국민이 모택동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사인방이라는 네 사람에 의해 나라 전체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던 광풍의 문화대혁명 시기. 이 시기 주은래는 그 중심에서 중국 국민들을 위해 때로는 바람을 막아주는 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명확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기도 했었다.

## 진정한 지도자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 인도의 초대 총리 네루의 말처럼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상은 저우언라이가 아닌가 싶다.

글. 박영도(북에디터)

# 장창영(張昌榮)회장을 회고하며



동문성

속초고등학교 총동창회 고문

우리는 지난해(2012년) 10월 22일 우리지역 출신 중견언론인(言論人) 중 한분이셨던 장창영회장을 우리 곁에서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은 바 있다. 건강이 지속됐으면 아직도 지역사회를 위해 경륜과 자문, 지도편달을 해줄 수 있는 아까운 나이 향년 75세였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1리에서 출생한 장회장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해인 1949년 8·15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 경찰에 투신한 맡형 현영씨(고인, 화랑무공훈장 수훈자)를 따라 월남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고향에 돌아온 그는 속초중학교(6회)와 속초고등학교(6회)를 졸업하고, 이어 고려대학교 생물학과에 입학하였다. 뒤이어 육군에 소집되어 학보병(學保兵)으로 군무를 마치고, 다시 복학하여 2학년을 수료하고, 가사사정으로 휴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회장은 배움의 열망을 이루지 못한 것이 늘 가슴에 맺혀있었다면서 뒷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강릉대 경영정책대학원을 끝내 졸업한 학구열을 실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장회장의 주 무대는 언론계(言論界)였다. 1966년 경향신문에서 기자(記者)생활을 시작한 그는 68년 중앙일보 지방부로 자리를 옮겼고, 중앙일보 시절 그는 동해안 지역에서 예고 없이 발생했던 산악사고와 해난사고, 어선납북사고, 군함피격침몰사고 등 현장을 뛰면서 사회부기자로서의 지위(地位)를 스스로 굳혀갔다. 신군부(新軍部)의 12·12사태 이후 장회장은 연합통신(聯合通信)으로 이적(移籍)하여 사회부 차장(次長)이 되기도 했다. 그는 연통(聯通)에서 10여 년 간 근무를 끝으로 언론계에 종지부를 찍었다.

필자가 체험한 바로도 기자생활이란 긴장과 스트레스가 뒤엉킨 생활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 고 장창영회장도 자신의 언론계 생활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라고 회고한 바 있



다. 1966년 12월 한국산악회 히말라야원정등반대의 설악산전지훈련 중 전원이 조난당해 사망한 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최초·최대의 산악사고였다. 등반대장 이희성 중령 등 대원 9명이 '죽음의 계곡'에서 폭설이 쏟아지는 가운데 천막을 쳐놓고 자다가 한밤중에 눈사태가 덮쳐 전원 암사한 사고다. 웬만한 산악사고는 사망이 추정될 경우 이듬해 눈이 녹으면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겨울산악사고의 관행인데, 이 사고는 한국산악회가 주최하고 인원도 많아 중앙일간지들이 경쟁과 더불어 10여 일 간 전원의 시신을 수습할 때까지 12일이라는 취재전쟁 끝에 대미를 장식했던 사건이다.

장회장이 기자생활을 시작한 60년대 중반 동해안에서는 봄철에는 꽁치, 여름에는 오징어, 겨울에는 명태잡이 어선 수백 척이 전국에서 몰려들어 어로저지선(漁撈沮止線)까지 올라가 고기잡이를 하는 바람에 북한에 납북되는 사례도 수 없이 발생했다. 1967년 1월 동해어로저지선 근해에서 명태어로보호에 나섰던 56함(당포함)이 북괴 해안포에 격침돼 박태만 대위 등 39명의 장병들이 전사한 참사는 당시의 엄중했던 현실을 증언하고도 남는다.

고인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현장을 뛰었고, 정확히 사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보도했다. 그는 또 고정간첩 조창희(趙昌熙)가 강릉비행장에서 이륙한 YS11기를 납북한 이면사의 추적, MIG16기를 몰고 고성군 거진읍 송포리 해안에 귀순한 박순국 소좌의 위장귀순사건, 거진읍 거진3리에 살고 있던 김상태(金相泰)의 강릉 발 서울행 KAL 여객기 납치미수사건, 1974년 7월 고성군 대진항(大津港)에서 새벽에 출항하여 영원히 입항하지 않은 해경863정의 의문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현장을 발로 쓴 기자여서 필자의 회한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고인은 언론에 재직하면서도 역사적 사실규명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60년 말 당시 단국대 박물관장이었던 정영호(鄭英鎬)교수가 대한불교조계종(曹溪宗) 원찰(源刹)인 진전사(陳田寺, 양양군 강현면 두전리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7년에 걸쳐 발굴 작업에 나섰을 때에도 한해도 거르지 않고 현장취재에 나서서 '陳田'이라고 새겨진 와당(瓦當, 기와)과 오징어 문양이 새겨진 기왓장도 출토되었음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다. 진전사는 신라(新羅)말기 도의국사(道義國師)가 당(唐)나라에서 공부하여 당시 신라에서 처음으로 설파한 불법으로, 도의국사가 조종(祖宗)으로 원찰은 이미 훈적조차 없어지고 절터만 남아있던 사지(寺址)였다. 또 1980년 말 서울대박물관이 양양



뒷줄 왼쪽부터 한국일보 지일권기자, 속초사청 공보실장 마하구씨, 조선일보 동문성기자(본인), KBS 진동열기자,  
경향신문 채근석기자, 앞줄 왼쪽부터 동아일보 사상길기자, KBS 박상용기자, 중앙일보 장창영기자(고인) 1978년 12월

남대천 하구인 동호리 일대 선사유적지(先史遺蹟地) 발굴 작업의 현장취재도 수년간 참여. 선사시대에 불탄 쌀을 탄소측정(炭素測定)한 결과 이 일대의 역사가 2,000년 정도 상회해야한다는 발굴 팀의 역사적 논거를 보도한 바도 있다. 발굴단의 논거가 어떻게 학문적으로 정리되었는지는 확인된바 없지만, 우리나라의 고대사(古代史)는 다시 쓰여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언론계를 떠난 고인은 중앙일보시절 선배인 조동호씨에 이끌려 관광업체인 속초대명관광의 이사가 되어 수년간 근무하면서, 골프장이 없어서 애를 태우던 이 회사에 9홀 골프장을 건설함으로써 '대명'이 명실상부한 관광업체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했다.

이제 우리 곁을 떠난 장회장은 고향사랑에 대한 열정도 남다른바 있었다. 동문회 모임에도 별로 빠지는 일이 없었고, 동기생(속중·속고 6회)끼리 우정을 돈독히 하는데도 정성을 쏟아왔다.



그는 또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해왔으며, 속초고등학교 동창회장(8대)을 맡아 총동창회 장학기금조성사업도 발주하기 시작했다. 고인이 시작한 속고동창회 장학금조성사업이 2013년 12월에 재단법인 「속초고등학교동창회 장학재단」으로 인가를 획득하기까지는 실로 오랜 세월이 흘렀음을 실감하게 된다.

장회장이 걸어온 발자취가 이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쓰여 질 때인데, 그가 오랜 지병으로 우리 곁을 떠나게 된 것은实로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한 사람이 이승에서 차지하는 땅 면적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데, 그가 떠난 자리가 그렇게 넓어 보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고란 말인가? 고인이여! 하늘나라에서 편히 잠드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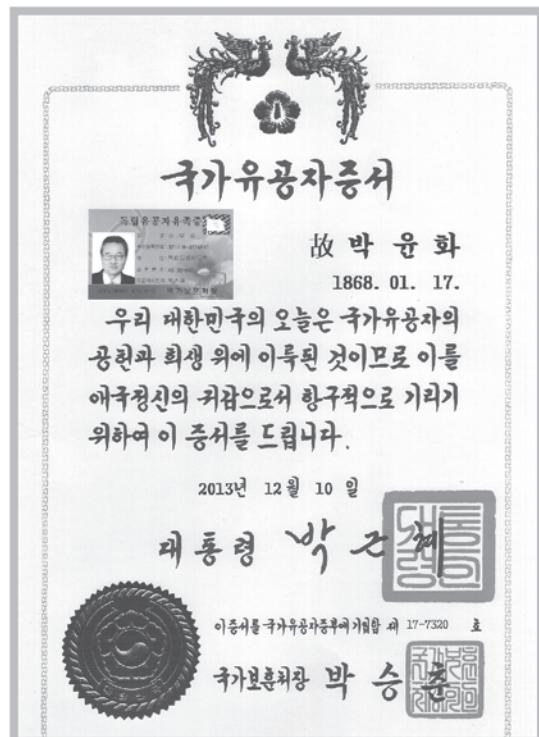
## 문화원 가족 소식

# 뜻밖의 증서, 애국의 길을 돌아보다

천혜의 자원을 가진 속초, 이곳에 문화 예술로 속초의 매력을 더하는 곳이 있다. 석봉도자기미술관이 그곳이다. 이곳은 도 예가인 조무호 관장이 설립한 도자기 전문 미술관으로 지난 1997년 여주에 문을 연 후 2002년 3월 21일 지금의 속초로 자리를 옮겼다.

푸른 청초호반에 자리 잡은 미술관은 등록 작품 1500여 점과 미등록 작품 약 500점 등 2000점에 이르는 소장품을 보여하고 있다.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진품 도자기와 현대 도자기를 두루 감상할 수 있으며 도자기 공방에서 직접 도예작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또한 250명 수용 규모의 도자체험교실 프로그램은 우리 전통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에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작품이 있다. 지름 110cm, 높이 35cm의 〈사계대명(四季大皿) '秋'〉라는 작품으로, 제작 다음 해인 1994년 자기질 환원도자기로서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접시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석봉도자기미술관 설립자이기도 한 조무호 관장이 총 14년에 걸쳐 완성한 사계대명 시리즈(춘하추동) 중 하나로 가을 단풍 이미지가 접시 가득 담겨 있다.





이처럼 자신의 예술혼을 속초에 심어놓은 조무호 관장이 지난 해 국가유공자증서를 받았다. 조관장의 외할아버지인 고 박윤화(朴斎和) 선생의 독립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한 증서이다. 고 박윤화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 3. 1 독립만세운동 후 일제에 항거하는 민족의 투혼이 전국적으로 열화와 같이 번져나가던 시기에 주렴산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애국지사이다. 주렴산 독립만세운동은 3월 16일 밤 보령시 주산면에 있는 주렴산 정상에서 열여덟 분의 애국지사들이 독립만세를 부른 운동이다. 이들은 주렴산 정상인 국수봉(國帥峯)에서 횃불을 밝히며, 태극기를 꽂고, 독립선언서에 헐서 서명을 한 후 징을 치며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튿날 밤인 17일에는 야룡리(野龍里) 복개봉(覆蓋峯)에서 다시 부르자 약속했으나 대부분의 애국지사들이 일제에 체포되었고 유일하게 체포되지 않은 박윤화 선생이 홀로 복개봉에 올라가 태극기를 꽂고 만세를 불렀다. 그러나 바로 일제에 체포되어 수난을 당하게 된다. 일제에 체포된 애국지사들은 매일 3회씩 43일간 일경에 의해 혹독한 고문을 당한 후 모두 보안법위반이란 죄명으로 태형 60~90장씩 맞고 석방되었다. 당시 고문의 정도가 심해 애국지사 중 한 명인 윤용원 선생은 한달 만에 세상을 떠났을 정도였다.

이러한 애국지사들의 활동은 훗날 대통령 표창으로 보상을 받으며 지역 항일운동의 역사에 기록된다. 또한 지난 2013년 1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외손주인 조무호관장에게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하여 애국지사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게 되었다.

한 장의 증서를 통해 우리는 잊혀진 애국지사들의 정신과 활동을 오늘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고, 문화원 가족의 소식을 통해 항구적으로 기리고자 한다.

# 2013 속초문화예술 해적이

'2013 속초문화예술 해적이'는 설악신문의 문화면을 요약하여 지난 1년간 속초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정리했습니다. '속초문화 365'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계의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 ○● 속초민예총 민족극협회 창립

속초민예총 민족극협회(회장 어효은)가 창립했다. 속초민예총은 민족극협회가 1월 3일 (사)한국민족극협회의 인준을 받음에 따라 이날부터 산하 협회로 등록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속초민예총은 국악, 문학, 공예, 사진, 미술, 민족극 등 6개 회원단체로 구성되게 됐다. 민족극협회는 도내에서 원주와 춘천에 이어 세 번째로 창립됐다.

## ○● 예총 '속초예술' 12호 발간

한국예총 속초지회(회장 이반)의 2012년 소식과 활동을 되돌아보는 '속초예술' 12호가 발간됐다.

'속초예술' 12호에는 이반 회장의 '속초 예술거리 산책'을 비롯해 강원여성문인연구 '근대 강원 여성문인의 걸림에서 오는 자의식과 출구 찾기'(권정남), 예술논단 '거문고 산조의 슬픔 철학'(임수철), 국악논단 '축제에 대한 몇 가지 단상'(김청의), '독서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김종현) 등이 실렸다.

## ○● 김태영 도배우협회장, 연극협회 속초지부장에

김태영(54, 사진) 강원도배우협회장이 (사)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장에 선출됐다.

연극협회 속초지부는 1월 15일 예총 속초지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9대 지부장으로 김태영 도배우협회장을 선출했다.

## ○● 속초시 50년대초 사진 순회 전시회

속초시 승격 50주년 기념 순회 전시회가 1월 31일까지 시청 민원봉사실에서 진행된다.

1월 16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 초 속초시 전경을 비롯해 주민들의 생활모습 및 생활형태 등 12점이 전시되며, 1953년 말부터 1954년 까지 속초에서 근무했던 미군 폴 뷔포드 편처 씨가 기증한 사진이다.

설악문화센터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층 갤러리에서 1950년~1970년대 속초시 풍경과 생활상이 담긴 사진전을 개최한다.

## ○● '속초문화' 28호 발간…한해 지역문화예술 정리

이번 <속초문화>에는 속초문화원의 한 해(2012년) 사업을 되돌아보는 '속초문화 365'를 비롯해 '2012 장롱사진공모전' 수상작 6점이 실렸고, 자료와 문헌을 통해 속초의 과거를 조명하는 정상철 씨의 '속초리성지(동명동 365-15번지 일원, 일명 단천마을)에 대한 소고'가 특집으로 게재됐다.

## ○● '속초의 문화상징 50선' 무엇이 선정됐나

속초문화원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향토사안내서 <속초의 문화상징 50선>을 출간했다.

문화원은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100대 문화상징'의 분류법을 활용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속초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생활상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 문화상징을 △자연 △건축 △역사 △사회와 생활 △문화예술 △인물 등 6개 부문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 ○● 민예총 속초지부 5개 협회장 선임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속초지부(지부장 김부영)는 1월 18일 조양동의 한 음식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부지부장 및 산하 5개 협회 회장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날 부지부장에는 원용철(57, 문학협회) 씨가 선임됐으며, 신임 협회장에는 △공예협회 오성숙(39, 풀잎문화센터 원장) △사진협회 박민호(60, 팔도강산회집 대표) △국악협회 전현숙(48, 설악소리연구회 부회장) △미술협회 김정철(43, 속초석재 대표) △민족극협회 어효은(23, 극단 소울시티어 단원) 씨 등 5명이 선출됐다.

## ○● 제13대 속초문화원장에 박무웅 씨 선임

제13대 속초문화원장에 박무웅(71, 돌감자장학회장, 사진) 이사가 선임됐다.

속초문화원은 1월 25일 문화사랑방에서 2013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2월 28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노광복 문화원장의 후임으로 단독 입후보한 박 이사를 차기 문화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4년.

## ○● 김종현 시인, 문인협회 속초지부장에

김종현(58, 영랑초 교감, 사진) 시인이 제5대 (사)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장에 추대됐다.

문인협회 속초지부는 1월 14일 조양동 소재 모 레스토랑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권정남 지부장의 후임으로 김종현 사무국장을 선임했다. 임기는 3년.

2월

## ○● 설악문화센터 오카리나 수강생 모집

설악문화센터가 2월 중순부터 오카리나 강습에 들어가는 가운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속초시민이며 누구나 가능하며, 교육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 ○● 최명길 시인 디지털 영상시집 발간

최명길(73) 시인의 디지털 영상시집이 발간됐다.

최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시인 최명길, <http://cafe.daum.net/mmyng>)를 통해 '잎사귀들과 나와', '신선봉

'고드름상고대', '틸통' 등 자신의 시 33편이 실린 영상시집 <투구 모과>를 공개했다. 디지털 영상시집에 실린 시는 최 시인의 첫 시집 <화접사>를 비롯해 <하늘 불탱>, <콧구멍 없는 소> 등 3권의 시집에서 추려냈다.

## ○● 조오현 스님 시세계 해설집 발간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 조실 조오현(81, 법명 무산, 시인) 스님의 미오(迷悟)의 시세계를 망라한 작품 해설집 <빈 거울을 절간과 세간 사이에 놓기>(송준영 편저, 도서출판 시와 세계)가 발간됐다.

책은 산중과 재가의 문도들로 구성된 설악산 신흥사 조실 무산 스님 문도회가 조오현 스님의 세수 80(2012년)을 맞아 스님의 덕과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발간됐다.

## ○● 향토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속초문화원이 2월 4일부터 제21기 향토문화학교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올해 문화학교는 3월 12일부터 11월 27일까지 9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고전무용 등 7개 강좌가 운영된다.

## ○● 설 연휴 재래시장·박물관으로 오세요

2013 계사년 설을 맞아 속초관광수산시장과 속초시립박물관이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기득한 문화행사를 마련한다. 속초수산관광시장에서는 설을 앞둔 2월 8~9일 영북한우 앞 슬터에서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로 꾸며진 '2013 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속초시립박물관에서는 설날 당일인 10일 다양한 세시풍 속행사를 체험하는 '설날 민속체험' 행사를 갖는다.

## ○● 영랑원드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영랑초등학교 관악부 '영랑원드오케스트라'가 2월 13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4회 정기 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연주회는 본교 제67회 졸업식(15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디카하시 신야의 Beyond the critical point'로 막이 올라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OST 메들리', '제임스 스웨어린젠의 대표곡 INVICTA', '트로트 메들리', '아바의 Dancing Queen' 등 9개 무대로 꾸며진다.

## ○● 속초서 독주회 연 원승식 씨

아버지(원영백 한국기타협회 속초지부장)의 뒤를 이어 기타리스트의 길을 걷고 있는 원승식(21)씨가 2월 24일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독주회를 가졌다.

○● 설악문화축제위원회, '속초축제위원회'로 변경  
(사)설악문화축제위원회(이사장 백영철)는 2월 21일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1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 임원 선임의 건 등을 승인했다.

설악문화축제위원회는 이날 공식 명칭을 사단법인 속초축제위원회로 변경했으며, 감사에 고영진 설악신문 사장을 새로 선출했다.

### ○● 김귀선씨 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에

김귀선(50, 사진) 한국연극협회 강원도지회장이 (사)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김 지회장은 2월 25일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열린 한국연극협회 제52차 정기총회에서 24대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으로 출마한 윤봉구 한국예총 부회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당선됐다.

3월

### ○● 서양화가 정광섭 화백 작품전시회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소재 갤러리 펜션 원암화옥에서 작품 활동 중인 서양화가 정광섭(58) 화백이 설악의 아름다움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전시회를 3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설악문화센터 전시실에서 갖는다.

### ○● 제2기 음악소리 드럼반 수강생 모집

설악문화센터가 3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제2기 음악소리 드럼반'을 운영하는 가운데 무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음악소리 드럼반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정오(A)까지, 정오부터 오후 1시(B)까지 2개 반으로 나눠 설악문화센터 지하 음악소리에서 진행된다.

### ○● 1950년대~현재 속초항 변천 과정 사진전

속초시립박물관이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속초항 변천 과정과 주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시립박물관이 속초~자루비노~훈춘 항로의 재취항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 순회전으로, 3월 19일부터 이달 말일까지는 속초항 로비에서, 4월부터는 속초문화회관 대강당 로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 속초문화원 '영상 인문학 교실' 참가 학교 모집

속초문화원이 속초·고성·양양지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영상 인문학 교실'을 운영하는 가운데 3월 29일까지 참가 학교를 모집한다.

영상 인문학 교실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영상문화(극영화, 다큐멘터리, 비디오아트, CF)를 교육 교재로 활용,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영화 감상, 외부 초청 강사를 통한 인문학 강의, 문화예술교육, 직업체험, 토론수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환경, 전통문화, 평화, 인권, 예술, 다문화 등을 주제로 다룬다.

### ○● 이동수 화가 파리 국제 아트 페어 참가

속초에서 활동 중인 화가 이동수 씨가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프랑스 파리 소재 미술관 그랑 팔레에서 열리는 파리 국제 아트 페어에 출품한다.

이 씨는 올해 파리 아트 페어에 5점을 출품한다. 출품작은 'flow-bowl', 'flow-book' 등으로, 그릇과 책이란 일반적인 소재를 무채색 느낌의 정물화 방식으로 담아냈다.

4월

### ○● 속초시립박물관 토요문화학교 '어린이 아뜰리에' 참가자 모집

속초시립박물관이 4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13년 상반기 토요문화학교 '어린이 아뜰리에'를 운영하는 가운데 7일까지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속초지역 초등 2~6학년생으로, 4월은 2·3학년, 5월 4학년, 6월 5·6학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4월 '박물관 속, 지도 이야기'와 '심메마니(심마니의 강원도 방언) 이야기' '나무야 안녕' △5월 '속초의 역사 속으로' '내가 엮는 서책 이야기' '우리를 위한 멋진 단청' △6월 '조각보에서 찾아보자' '단오 날의 아름다운 염색' '박물관 속 문양을 찾아라' 등 9회가 진행된다.

### ○● 속초기상대 '기상·기후사진전'

속초기상대(대장 이광주)가 과학의 달을 맞아 4월 4~6일 속초시립박물관 밸해역사관에서 '날씨를 느끼다!'를 주제로 기상·기후사진전을 개최한다.

## ○● 도 연극인 최대 축제 '제30회 강원연극제' 13일 개막

강원도 연극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0회 강원연극제가 4월 13일 연극의 고장 속초에서 개막된다. (사)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지부장 김태영) 주관으로 열리는 올해 강원연극제는 속초지역 극단 굴령쇠와 청봉을 비롯해 9개 극단이 참가, 21일까지 속초문화회관 대강당과 두드림소극장에서 개최된다. 대상 수상 극단은 오는 6월 충남 홍성에서 열리는 전국연극제에 도 대표로 출전한다.

강원연극제는 13일 오후 7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극단 굴레의 '아카시아 꽃이 피었습니다' (방성창 작, 박선영 연출)를 시작으로 굴령쇠의 '삼도봉 미스테리' (김신호 작, 변유정 연출), 우리나라 농기계 '모기' (하우 작, 김봉열 연출), 청봉 '오래된 우물' (강석현 작, 김일태 연출) 등 9개 극단이 21일까지 하루 1팀 씩 공연을 갖는다.

공연은 출수 날은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짹수 날은 두드림소극장에서 매일 저녁 7시에 진행된다.

## ○● '속초시정의 가까운 옛날' 특별전

속초시립박물관이 6월 30일까지 속초의 옛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 전시한 특별전 '속초시정의 가까운 옛날'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 전시물은 시립박물관이 그동안 구입 및 기증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로,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속초시가 발전해 온 과정을 보여주고자 마련됐다. 전시회에는 19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비롯해 생활용품, 문서류 등이 전시됐다.

## ○● 파리 아트 페어 참여 '이동수 작품 전람회'

'이동수 작가 추원회'(회장 원창덕)가 4월 15일부터 21일 까지 설악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이동수 작품 전람회'를 연다.

## ○● 청소년 축제기획단 '이을' 창단

청소년들로 구성된 축제기획단이 창단될 예정이다.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은 4월 20일 오후 2시 문화사랑방에서 청소년 축제 기획단 '이을' 창단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를 갖고, 이달 말까지 참여 청소년을 모집하기로 했다.

문화원에 따르면 '이을'은 다양한 특성화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지역 축제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청소년들이 축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 ○● 미술학도 자매가 꾸민 합동전시회

박하예슬(경희대 산업디자인 3년)·박하예린(속초여고 2년) 자매는 4월 20일부터 설악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기획전시실에서 작품전 '꿈을 찾아'를 연다. 작품전에는 설악산 비선대 탐방로에서 만난 어린 아이가 나뭇가지로 바닥을 쓸고 있는 모습을 담은 '꿈을 찾아가는 길에 만난 아이'를 비롯해 설악산의 꽃과 나무, 사람이 어우러진 그림, 자매가 일상에서 인상적으로 느꼈던 이미지를 화폭에 옮겨 담은 작품 등 20여 점이 전시된다.

## ○● 이상국 시인 제2회 박재삼 문학상 수상

속초에서 활동 중인 이상국(67, 사진) 시인이 시집 〈뿔을 적시며〉로 제2회 박재삼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재삼 문학상 운영위원회는 "향토의 서정과 서민의 삶에 뿌리내린 이상국 시인의 작품들은 남성적 어조의 소박한 육성을 들려준다. 또 시인 특유의 진솔한 시세계를 형상화해 친숙하게 읽히고 폭넓은 공감을 자아낸다"고 평했다.

## ○● "다양한 취미생활 배우고 즐겨요"

속초에 다양한 취미생활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다. 조양동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풀잎문화센터 속초지부(지부장 오성숙)가 그 곳이다.

풀잎문화센터는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취미나 부업, 창업,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강의도 들을 수 있다. 개인이나 소규모 강의도 가능하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도 있다.

속초지부에서는 현재 홈페션, 월트, 신생아용품, 꽃꽂이, 선물포장, 리본아트, 톤페인팅, 포크아트, 양말인형, 토피어리, 네일아트, 천연비누·화장품, 점핑클레이, 아로마향초, 가죽공예, POP, 넵킨아트, 우드아트 등 6개 분과 36개 강좌가 개설돼 있다.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10명의 강사가 강의를 한다.

## ○● 속초시립합창단 26일까지 모집

속초시는 4월 26일까지 속초시립합창단원을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4월 16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속초시민이다.

## ○● 서울예술가곡연구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서울예술가곡연구회(회장 강은규)가 4월 26일 오후 7시 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연다.

공연에는 소프라노 국은선·박지연·허미경을 비롯해 메조소프라노 국장민, 테너 정재환, 바리톤 박승혁·이정희, 베이스 강은규·조병욱, 피아노 양기훈·김민자 씨가 출연한다.

프로그램은 '내 영혼 바람이 되어', '진홍꽃잎 방금 잠들고', '장미와 버드나무', '백학', '호두나무', '천사같이 아름다운 그녀', '그대 있음에', '남촌' 등 국내외 명곡들로 꾸며진다.

### ○● 민예총, 속초등대 문화행사 27일 첫 선

속초민예총(회장 김부영)이 4월 27일 속초등대해양문화 공간에서 '희망으로 만나는 등대, 레인보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 페스티벌은 민예총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함께 진행하는 해양문화축제로, 이달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풍물, 가요, 미술, 안데스음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진다.

### ○● 어린이 대상 문화봉사 '풀무음문화나눔봉사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노인봉사단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속초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수료생들로 구성된 '풀무음 문화나눔봉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지역 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을 찾아 다양한 문화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풀무음문화나눔봉사단은 지난해 문화원에서 문화봉사활동 소양교육을 이수한 14명으로 구성됐으며, 4월 16일까지 모두 21회 활동에 나섰다. 노인들은 전담 파트를 정해 동화구연, 종이접기, 사물놀이, 무용 등의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 ○● 김영복 화백, 설악신문 연재소설 '날아라 곱새기야' 삽화전

〈설악신문〉에 연재 중인 장편 소설 〈날아라 곱새기야〉에 수록된 삽화를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가 종합예술제 기간에 마련된다.

예총 속초지회는 종합예술제 개막과 함께 3대 회장을 지낸 김영복(사진) 화백의 '날아라 곰새기야 삽화전'을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문화회관 2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첫 회에 실렸던 작품 등 삽화 70여 점과 별도로 제작한 유화 20점이 함께 전시된다.

### ○● 마당극으로 만나는 '햄릿' 관객들 큰 호응

민예총 속초지부 민족극협회(회장 어효은)가 5월 11일 열린 2013년 속초민예총 예술축전에서 '마당극 햄릿'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민족극협회는 이날 근로자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세이스피어의 비극 '햄릿'을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재구성한 마당극을 선보였다. 작품은 장진 감독이 우리 정서에 맞게 작품을 쓰고 연출한 '리턴 투 햄릿'을, 마당극 형태로 다시 각색했다.

### ○● 청소년들 향토문화 조사해 책으로 엮는다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은 5월부터 지역 청소년들이 향토문화를 탐방해 책으로 엮는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속초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생들이 도문동마을을 탐방 조사해 얻은 결과물(글, 사진 등)을 스토리북으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작된 책은 초등 학생들의 지역 문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는 도문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직업과 인물을 탐구하는 '내가 달인이다'를 비롯해 사라져가는 마을문화를 찾는 '내가 찾은 미래의 전통', 마을의 특색을 알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이야기(설화)를 제작하는 '트레저 헌터' 등 3가지 콘텐츠로 진행된다.

### ○● 극단 굴렁쇠 3년 만에 전국연극제 출전

극단 굴렁쇠(대표 황현중)가 제30회 강원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 3년 만에 전국연극제에 출전한다.

굴렁쇠는 5월 13~21일 속초문화회관 대강당과 두드림 소극장에서 열린 제30회 강원연극제에서 농민들이 겪고 있는 삶의 애환을 해학적으로 접근한 '삼도봉 미스테리'로 대상을 차지했다.

연출을 맡은 변유정 씨는 연출상을, 노상술(충청도 농민) 역을 열연한 석경환 씨는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 ○● 풀무음문화나눔봉사단 2기 교육생 모집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어르신문화학교 풀무음문화나눔봉사단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는 책을 활용한 문화자원봉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5월 13일 오후 1시30분 문화사랑방에서 사업설명회 및 참가자 접수가 진행된다.

'풀무음문화나눔봉사단'은 60세 이상 주민들이 일정 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서 문화자원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교육비는 무료며 정원은 30명이다.

## ○● 2013 예술축전 주말마다 색깔있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속초지부(지부장 김부영)가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2013 예술축전'을 개최된다. 올해 예술축전은 '참여', '소통', '나눔'을 주제로 3주간 주말 동안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과 두드림소극장, 엑스포주제관, 설악로데오거리 등지에서 공연 및 체험, 찾아가는 문화 활동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 ○● 속초예총 제24회 종합예술제 22일 개막

제24회 속초종합예술제가 5월 22일 개막, 6월 16일까지 한 달 가까이 진행된다.

(사)한국예총 속초지회(회장 이반)가 주최하고 산하 8개 협회(문인·미술·연극·음악·국악·사진작가·무용·연예예술)가 주관하는 종합예술제는 '예술, 세상 속으로…통섭과 화합'을 주제로 전시와 공연, 경연 등 16개의 행사가 펼쳐진다.

## ○● 정미 화백 설악문화센터서 전시회

정미(사진) 화백이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설악문화센터 2층 전시실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꽃과 나비, 새 등 자연의 모습을 기하학적 패턴으로 담아낸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등 모두 20점이 전시된다.

## ○● 영화감상과 인문교양이 함께 만난다

속초교육도서관이 영화감상과 인문교양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영화문학교실'을 개설한다.

속초교육도서관에 따르면 영화문학교실은 국내·외 유명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가 전달하는 인문학적 지식을 관련 서적과 함께 공부하는 교양강좌로, 도서관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특히 누구나 쉽게 인문교양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영화문학교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 협회가 주관하는 '2013년 도서관, 문학관 문학 작가 파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최동훈(민예총 속초지부 문학협회장) 작가가 강사로 나선다.

## ○● 국내 정상급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속초 공연

'하이원리조트와 함께하는 서울팝스오케스트라 팝스콘서트'가 5월 23일 오후 7시 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하이원리조트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팝스콘서트'는 4월 25일 강릉 공연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도내 8개 시·군에서 펼쳐진다. 속초 팝스콘서트에는 일반시민 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문화소외계층이 초청된다.

## ○● 속초시립품물단 전국 유명세…각종 행사에 초청

속초시립품물단이 각종 전국 및 도 단위 행사에 초청돼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시박물관에 따르면 시립품물단은 4월 24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립예술(무용)단 정기공연에 초청된데 이어, 5월 23~26일 경북 안동에서 개막한 2013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개막 공연에도 초청돼, 전국에 속초의 이름을 알렸다.

또 오는 6월 10일 정선에서 개최되는 강원도민체육대회 개막 공연에 초청되는 등 각종 초청공연을 다니느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 ○● 속초 찾아가는 문화활동 7개 단체 선정

속초시의 '2013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런갯마당 등 7개 문화예술단체가 선정됐다. 시는 5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28개 신청단체 중 연극·국악·음악 등 3개 부문 7개 단체를 선정했다. 시는 선정 단체에 200만~300만원 규모로, 총 144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 단체는 △런갯마당 △국악밴드 소름 △탁투스 타악기 양상블 △잼스틱 △극단 청봉 △꿈꾸는 아이 △극단 소통 울림 시어터 등이며,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연을 펼치게 된다.



## ○● 설악윈드오케스트라 시민과 함께 작은음악회

설악윈드오케스트라(악장 함상균)가 6월 1일 엑스포상징 탑 광장에서 '2013 속초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설악윈드오케스트라는 현직 음악교사 및 강사, 학창시절 관악부 출신, 일반인 등 50여 명으로 지난 2011년 1월 결성,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어린이날 특별연주회, 가정의 달 음악회, 작은 음악회 등을 열고 있다.

## ○● 국악협회 열 번째 정기연주회 '얼쑤'

속초예총의 제24회 종합예술제가 한창인 가운데 (사)한국 국악협회 속초지부가 6월 1일 오후 7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 번째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다섯마당으로 꾸며지는 국악협회 정기연주회는 퓨전국악 그룹 나래, 신천무용단, 북청사자놀음보존회와의 협연도 마련된다.

#### ○● 흥의연 도예교실 문하생 전시회 '그릇전'

'흥의연 도예교실' (Terra Space) 문하생들이 여섯 번째 생활도자기 전시회 '그릇전'을 오는 7~11일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도예가 흥의연 씨 문하생 11명이 출품하는 이번 도자전에는 우리나라 전통의 향이 물어나는 찻그릇을 비롯해 사발, 접시, 화분, 조명등, 찻그릇세트 등 550여 점이 전시된다. 작품은 문하생들이 1년 간 제작한 것으로, 1만원 ~30만원에 판매된다.

#### ○● 청호동 성당 건립 소리꾼 장사의씨 공연

소리꾼 장사의(64, 사진) 씨가 속초를 찾아 심금을 울리는 애절한 목소리를 들려준다.

천주교 춘천구교 청호동성당은 6월 14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새 성당 건립 성공 및 기금 마련을 위한 '여는 음악회'를 연다.

○● 속초고 이정민(가요) · 속초여중팀(댄스) 대상 속초예총의 '제24회 속초종합예술제' 행사로 연예예술인 협회가 6월 9일 개최한 '제24회 설악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에서 김동률의 '오래된 노래'를 멋지게 부른 속초고 이정민(2년)이 가요부문 대상(신흥사)을 차지했다. 상금은 100만원.

댄스부문 대상(속초양양교육장, 상금 50만원)은 속초여중 박송이(2년) · 박소희(1년) · 김정하(2년) · 김수빈(2년) · 이수정(3년)이 차지했다.

금상(속초예총회장)은 댄스부문의 거진정보공업고 임종국(2년) · 박승현(2년) · 김기배(2년) · 하진욱(1년)이, 은상(속초경찰서장)은 가요를 부른 속초여고 김수현(1년)과 양양 여고 전린(1년)이 각각 수상했다.

동상은 속초고 최승우(2년, 가요), 장려상 속초여중 윤세리(2년, 댄스), 응원상 속초고 장동일(1년, 댄스)에게 돌아갔다.

#### ○● '이상국 시인 이야기 한마당' 마련

속초에서 활동 중인 이상국 시인의 제2회 박재삼 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김종현 (사)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장과 극작가 최재도 씨는 6월 11일 오후 6시30분 먹거리단지 내 카페 소설에서 '사람과 시와 그 의미-이상국 이야기 한마당'을 연다.

#### ○● 세계적 아카펠라 그룹 '비 보컬' 속초 공연

세계적인 아카펠라 5인조 남성 그룹 '비 보컬(B vocal)'이 6월 17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을 갖는다.

비 보컬은 속초 공연에서 모차르트와 헨델의 '오페라 아리아' 모음부터 마이클 잭슨의 대표곡 메들리,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운드독', 아델의 '썸원 라이크 유' 등 친숙한 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 ○● 극단 굴렁쇠 제31회 전국연극제 금상 수상

극단 굴렁쇠(대표 황현중)가 제31회 전국연극제에서 '삼도봉 미스테리'(김신후 작, 변유정 연출)로 단체부문 금상(충청남도지사상)을 수상했다. 노상술 역을 열연한 석경환 씨는 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 ○● '한국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의 밤'으로 초대

(재)설악문화재단이 6월 27일 저녁 7시30분 설악문화센터 2층 카페소리에서 '한국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의 밤' 음악회를 연다.

소프라노 박순복 경희대 음악대학 교수와 6명의 제자들이 꾸미는 음악회에서는 우리나라 가곡과 서양의 오페라를 함께 감상할 수 있으며, 설악산케이블카(주)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 ○● 소시민 인생살이 뮤지컬 '빨래' 29일 공연

속초시가 대한민국음악대향연 사전 불 조성 및 시 승격 50주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6월 29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뮤지컬 '빨래'를 선보인다.

뮤지컬 '빨래'는 사장 눈치 보는 직장인, 외상값 손님에 속 썩는 슈퍼아저씨, 순대 속처럼 미어터지는 미을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 등 오늘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인생살이가 담겨있다.

공연은 이날 오후 3시, 오후 7시 2회 열리며, 24일 오전 9시부터 속초문화회관 관리사무소에서 1인 2매까지 좌석을 지정해 무료로 배부한다.

#### ○● '꿈 다락 토요문화학교' 2기생 모집

속초문화원이 '꿈 다락 토요문화학교' 2기생을 6월 24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속초지역 초등학생 3~6년생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16회 열리는 토요문화학교는 영랑호를 배경으로 한 지역생태 알기를 비롯해 다양한 예술체험으로 진행된다. 운영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정오까지로, 참여 학생은 재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 ○● 과거 속초 사진 254점 시립박물관에 기증

속초시 청학동에서 설악칼라디지털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신자(69, 사진) 씨가 최근 시립박물관에 과거 속초의 모습을 담은 사진 254점을 기증했다. 이 씨가 기증한 사진은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 속초시의 모습을 담고 있어, 그동안의 발전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진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 속초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순조'

속초지역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국비 1억1100만원을 비롯해 도비 8억5800만원, 시비 12억4800만원 등 22억1700만원을 들여, 신봉사 보제루 정비 공사, 설악동소나무 보호 사업 등 10건의 문화재 보존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월

## ○● 주민·우정가족 함께 제2회 작은 음악회

속초우체국(국장 김기덕)의 '지역주민과 우정가족이 함께하는 제2회 작은 음악회'가 7월 1일 오후 7시 속초우체국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됐다.

'예사모'(회장 한기학)와 '속초우체국 고객대표자회'(회장 조수웅) 주관으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지역 전령사로 일하는 집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악회에서는 지역 가수 이명우, 이재환, 김현미 등과 연변가수 최덕준 씨, 속초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모임 '예사모'가 공연을 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과 직원 노래자랑 등도 펼쳐졌다.

## ○● 속초문화원 어름캠프 참가자 모집

속초문화원(원장 박무웅)이 청소년 문화기획 아카데미 어름캠프 '작은 예술가의 자연스케치'에 참가할 초등 4~6년생 35명을 7월 5일까지 모집한다.

7월 26~28일 2박3일 일정으로 인제 넷강마을에서 진행되는 '작은 예술가의 자연스케치'는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생태 및 음악, 연극 등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행사다.

## ○● 생명 존중 교육연극 속초 공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연극이 속초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대에 오른다. 극단 치악무대는 7월 8일과 9일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연극 '훈자가 아니다'를 공연한다. 공연 시간은 오전 11시와 오후 3시이다.

## ○● 우크라이나 크리미아공화국 국립오케스트라 공연

속초시 승격 50주년 기념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공화국 국립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7월 7일 오후 7시30분 경동대학교 설악2캠퍼스(구 동우대)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속초시와 강릉MBC가 공동 주최하고, 국제음악교류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만 6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은 요한 쉬트라우스의 '풀카-천둥과 번개'로 막이 오른 뒤, 브림스 '헝가리안 춤곡 1번', 마스카니 '끼랄레리아 루스띠끼나 간주' 등이 연주된다.

## ○● 대관령국제음악제 '저명연주가 시리즈' 공연

대관령국제음악제(예술감독 정명화·정경화) '저명연주가 시리즈'가 7월 19일 오후 7시30분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을 찾아온다.

속초 공연은 2008년 프랑스 롱-티보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고 동시에 오케스트라상 및 리사이틀상, 파리 음악원 학생들이 주는 최고상까지 수상하며 4관왕을 달성한 신지아(바이올린)를 비롯해 2006년 가스파르 카사도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하고 독일 다비브 게링가스를 사사하고 있는 강승민(첼로), 뮌헨ARD 콩쿠르 등 여례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신수정(피아노),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일본과 한국 등지에서 반주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영경(피아노) 등이 출연한다.

이들은 베토벤의 '로망스 2번 F장조 op.50'을 시작으로, '르 그랑 탱고'(피아졸라), '푸른 악마의 춤'(카사도), '카르멘 환상곡 op.25'(사라사테), '피아노 삼중주 1번 D단조 op.49'(멘델스존)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 ○● 속초시립박물관 토·금요일 무료 야간개장

속초시립박물관이 피서 성수기를 맞아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무료 야간개장에 들어간다. 방학 기간인 26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금요일에도 야간개장을 한다.

야간 개장 시간은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다.

야간개장 기간 동안 시립박물관에서는 '고향의 밤 콘서트'와 '고향의 밤 생활민속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 ○● 채재순 시인 세 번째 시집 '바람의 독서'

속초에서 활동 중인 채재순(50, 사진) 시인이 세 번째 시집 〈바람의 독서〉(황금알)를 폴냈다. 2008년 이후 5년 만에 폐낸 채 시인의 이번 시집에는 '물소리 짖아들 무렵', '말지도', '백마흔네 번째 날의 아침', '광야의 그 나무', '외옹자', '개복숭아 나무 그늘에 가자' 등 64편의 시가 담겼다.

## ○● "속초 미묘화랑서 동트기 전 대진 새벽바다 만나요"

지난 10여년 간 바다사진만 찍어 '블루작가'로 잘 알려진 김태균(57) 작가가 속초 미묘화랑에서 사진전 'Blue'를 열고 있다.

7월 3일 개막해 다음달 1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올해 촬영한 대진 앞바다 작품 18점을 만날 수 있다.

## ○● 설악문화센터 피서철 작은음악회로 초대

설악문화센터가 피서철 성수기인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 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은 음악회를 연다.

설악문화센터는 7월 27일 젊은 감성의 재즈밴드 이든(Eden)의 '재즈콘서트'를 열고, 8월 1일에는 브로드웨이 뮤지컬곡과 추억의 포크송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뮤지컬&포크송 콘서트', 2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진주 교수의 영화음악 연주회 '영화처럼'을 마련한다.

음악회는 오후 7시30분부터 2층 카페소리에서 열리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 설악청소년국악관현악단 여름방학 국악캠프

설악청소년국악관현악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속초시청소년수련관에서 국악캠프를 가졌다.

대포초교가 마련한 이번 캠프에는 '서울시교육청 문화예술실천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전통연희예술단' 41명이 함께 했다.

## ○● 이반 속초예총 회장 '아시아 기독문학상'

아시아 기독문학상은 동북아시아 기독교 작가들이 우의

와 친선을 도모하고 기독교 신앙을 아시아적 정서로 표현하자고 1987년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기독교작가 포럼(현 동북아시아 기독작가회의)을 통해 결의, 2년을 주기로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업적이 뛰어난 작가를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시상식은 8월 1일 대한성서공회 로스기념관에서 개최된다.

## ○● 설악문화센터 '음악소리 드럼반' 모집

설악문화센터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드럼을 가르쳐주는 '음악소리 드럼반'을 개설하는 가운데 8월 9일까지 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음악소리 드럼반 3기는 8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A반과 2시에 시작하는 B반 등 2개 반이 운영된다. 교육실은 지하1층 음악소리.

## ○● 케이 팝(K-POP) 열기 속초 청초호유원지서 도살린다

대한민국 대표 음악축제인 '2013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이 8월 9일~12일 청초호유원지를 뜨겁게 달군다.

올해로 10회째인 '2013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은 '절정의 반세기, 음악특별시 속초를 즐겨라'를 주제로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속초를 한 여름밤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 ○● 극동방송 전국어린이합창단 연합합창제

2013 극동방송 전국어린이합창단 연합합창제가 8월 13일 오후 7시30분 엑스포유원지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영동극동방송 개국 12주년 기념 및 '파이팅! 나라사랑축제 2013'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합창제는 서울·대전·창원·제주·포항·울산·목포·영동·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11개 지사 어린이합창단 550여 명이 무대에 오른다.

## ○● 조월희 화가 미묘화랑서 첫 개인전

속초 미묘화랑(대표 김주용)이 떠돌이 조월희(서양화) 작가의 첫 개인전 '현실과 혼돈'을 연다.

8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전시회에는 조 작가가 전국을 돌며 그린 자연 풍경 20여 점과 광화문 촌불집회 현장의 민중들의 염원을 화폭에 담은 작품 10여 점 등 30여 점이 전시된다.

## ○● 설악산 무심선원 일련 원장스님

일련(사진, 이지연) 설악산 무심선원 원장스님이 일곱 번째 시집 〈무상초 스치는 바람〉을 폴냈다.



## ○● 이반 속초예총 회장 '아시아 기독문학상'

아시아 기독문학상은 동북아시아 기독교 작가들이 우의

9 월

### ○● “제3회 여미 창작 애니페스티벌에 초대합니다”

‘인디애니유랑단과 함께하는 제3회 여미 창작 애니페스티벌’이 8월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속초시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유일의 독립애니메이션 영화 제인 ‘인디애니페스트 영화제’를 끝내고 전국순회상영회에 나선 ‘인디애니유랑단’이 속초를 찾아 여미와 함께 한다.

### ○● 국립민속국악원 창극 ‘춘향전’ 속초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의 창극 ‘춘향전’이 속초를 찾는다.

8월 31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과 함께 하는 봉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의 일환 및 속초시 승격 50주년 기념 이벤트로 마련됐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병창 이수자며 마당놀이 최고 배우인 김성녀(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국악원 소속 창극단과 기악단, 무용단 등 모두 50명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웅장하고 흥미진진한 볼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 오현 스님 고산문학대상 시조부문 수상

설악산 신흥사 조실 오현 스님(사진)이 제13회 고산문학대상 시조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 ○● 속초북청사자놀음보존회 정식 발족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던 ‘속초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비영리법인으로 정식 활동에 나선다.

속초북청사자놀음보존회는 지난 4월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친데 이어, 8월 27일 속초 한 음식점에서 속초시립박물관과 영북민속연구회 갯마당, 신천무용단 등 지역문화예술단체 단원들과 지역주민 등 33명으로 구성돼 정식 발족했다.

### ○● 영랑초교 학생오케스트라 제11회 춘천 전국관악경연대회 금상

영랑초등학교(교장 이삼현) 학생오케스트라가 ‘2013 제11회 춘천 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8월 27~28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경연대회에는 초등부 18개 팀, 중등부 11개 팀, 고등부 8개 팀, 혼성 고등부 10개 팀 등 47개 팀이 참가했다. 영랑초교는 춘천 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에 이어 3등 격인 금상까지 받았다.

### ○● 박동국 미협 속초지부장 풍경 그림전

박동국 (사)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장의 수채화 풍경 그림전 ‘풍경, 발길을 멈추고 보다’가 9월 3일부터 11월 3일 까지 두 달간 속초시립박물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 ○● 가족 전시회 · 친구들 음악회 ‘춘춘’

설악문화센터가 주최한 ‘가족이 함께 펼치는 전시회’, ‘친구들이 함께 선보이는 음악회’ 등 훈훈한 문화행사로 주민들을 만난다.

먼저 9월 1일 개막, 14일까지 설악문화센터 2층 전시실에서 진행하는 ‘아름다운 동행 전’은 속초 출신 사진작가 이영숙 씨와 동양화가 이영자 씨, 도예가 임상연 씨 등 가족 및 친척 지간인 3명의 예술인이 자신들의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전시회로 꾸며진다.

14일 오후 7시30분 카페소리에서는 음악을 매개로 친구의 연을 맺은 송현주(피아노), 조현자(바이올린), 우재은(첼로) 씨 등 3명이 수놓는 연주회 ‘Philia 피아노 3중주’가 펼쳐진다.

### ○● 탁명원 씨 ‘계간 환경문학’ 신인상 수상

16년 째 속초지역에서 수자침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탁명원(68, 사진) 씨가 〈계간 환경문학〉 신인상을 수상했다. 〈계간 환경문학〉은 2013년 여름호(통권 2호)를 통해 ‘아버지의 노래’, ‘용돈’, ‘인생론’, ‘비전’,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 등 5편의 시를 발표한 탁 씨를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전문을 실었다. 시 부문 신인상에는 탁 씨를 포함, 4명이 선정됐다.

### ○● 속초도문농요전수관 첫 삽…내년 개관

속초시는 9월 11일 도문동 학무정 인근에서 채용생 시장, 박명수 시의장, 속초도문농요보존회 오순석 회장과 보존회원,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도문농요전수관 신축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 ○● 추석 연휴에 전통체험행사 · 웰빙콘서트

민족 명절 추석을 맞아 구성객과 주민들을 위한 전통체험행사와 문화공연이 열린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추석인 9월 19일 다양한 세시풍속 및

체험행사 등을 마련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립박물관과 실향민문화촌에서 열리는 추석행사는 차례상을 전시하고 차례를 지내보는 체험을 비롯해 색 속임으로 송편 빙기, 솟대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가 준비된다.

### ○● 젊은 극단 '소울시어터' 세 번째 정기공연

젊은 극단 소울시어터가 9월 27일과 28일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김유정의 소설 '산골'을 각색한 작품으로 정기공연을 갖는다.

공연작은 순수한 시골 소녀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김유정의 소설 '산골'을 각색(변유정)한 작품으로, 남호섭 대표가 연출을 맡는다.

### ○● 탁명원 씨 '계간 환경문학' 신인상 수상

16년 째 속초지역에서 수자침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탁명원(68, 사진) 씨가 〈계간 환경문학〉 신인상을 수상했다. 〈계간 환경문학〉은 2013년 여름호(통권 2호)를 통해 '아버지의 노래', '용돈', '인생론', '비전',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 등 5편의 시를 발표한 탁 씨를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전문을 실었다. 시 부문 신인상에는 탁 씨를 포함, 4명이 선정됐다.

### ○● 속초 출신 음악 영재들 한 무대에

속초 출신 음악 영재들이 선보이는 '영 아티스트 연주회'가 9월 28일 오후 7시30분 설악문화센터 2층 카페소리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는 소야초교 출신으로 2009년 음악세계콩쿠르에서 초등부문 전체 대상을 수상하고 현재 서울 예원중(1년)에서 바이올린을 수학하고 있는 김이수와 2010년 관동대 음악 콩쿠르 현악 부문 1위 수상자 바이올린 이주희(강원예술고 3년)가 무대에 오른다. 또 2010년 강원도 실기대회 2위 피아노 김다인(강원예술고 3년)과 2012년 설악청소년음악콩쿠르 금상 임호석(강원예술고 2년)이 출연한다.

### ○● '그림 그리는 의사들' 속초서 작품전

한국의사미술회(회장 최인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 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제8회 그림 그리는 의사들 展'을 개최한다.

전시회에는 김정일(서울) · 어영대(전주) · 이계용(대전) · 이길환(서울) · 임종식(영천) · 정채식(평택) · 최중환(서울) 등 전국에서 활동 중인 23명의 의사 작가들이 참가, 유화를 비롯해 수채화, 펜화 등 개인당 2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속초에서는 김봉수 외과의원 원장이 책(유화) 등을 전시했다.



### ○● 서양화가 이동수 씨 미묘화랑 개인전

속초에서 활동 중인 서양화가 이동수(사진) 씨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갯배 선착장 안근 미묘화랑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미묘화랑 전시에는 파리 아트 페어에서 호응을 얻었던 'Flow-Bow' (유화) 시리즈 20여 점을 내놓았다. 작품은 그릇, 책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가운데 몽환적 채색이라는 자신만의 기법을 통해 이계의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 〈설악문화제〉 [산악페스티벌] 10월, 단풍 물든 설악산으로 가자!

산악페스티벌의 메인 행사로 오는 6일 열리는 '공룡능선 하늘 길 걷기'가 올해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볍게 산행을 다녀오고 싶다면 5~6일 이틀간 열리는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설악산 숲길 힐링 체험'에 참가하길 권한다.

설악산악연맹은 산악페스티벌 기간 동안 설악산 소공원 내 산악인의 광장에서 산악인 주모행사를 갖는다.

### ○● 〈설악문화제〉 설악산신제 · 용왕제 10월 5일 거행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설악산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제례의식은 강원도 내에서는 태백의 종사와 더불어 현존 문헌상 가장 오래된 역사적 제의로 설악문화제의 역사와 정통성을 증명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설악산신제를 비롯해 동해용왕제, 영신(삼신합동)제, 송신(삼신합동)제가 개최된다.

### ○●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 설악로데오거리 다양한 퍼포먼스로 '물결'

제48회 설악문화제 거리페스티벌은 10월 11~13일 3일간 설악로데오거리에서 열린다.

주요 행사로 매년 관심을 더하고 있는 거리퍼레이드를 비롯해 각종 경연대회로 꾸며지는 속초시민한마당,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지는 거리에서 예술을 만나다,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전시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설악로데오거리에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과학 싹 잔치, 시민건강대체험 한마당이 열리고,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먹거리축제가 열린다.

올해 거리퍼레이드는 가나와 콜롬비아 해외공연단과 지역의 기관 단체 전문예술단, 8개 동위원회 등 모두 25개 팀이 참가해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예정이다.

### ○● 설악의 향기…무용과 해금의 어울림

무용과 해금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공연이 펼쳐진다. 양숙희 무용단은 오는 10월 5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정기공연 '설악의 향기…무용과 해금의 어울림'을 선보인다.

### ○● 박동국 미협 속초지부장 열세 번째 개인전

박동국(사진) (사)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장이 10월 2일부터 15일까지 설악문화센터 2층 전시관에서 열세 번째 개인전(수채화) '발길 따라 잉태한 풍경'을 연다. 전시작은 박 지부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해 제주도, 강원도 산골짜기 등지를 여행하고 담은 풍경 그림들로, '자작, 싱그러움에 물들다' 등 최근 1년간 작업한 작품 33점이 전시된다.

### ○● '연극으로 어울리는 사람들' 일곱 번째 공연

속초·고성·양양 초등교사 교육연극연구회 '연극으로 어울리는 사람들'(회장 원영근, 이하 연어)이 일곱 번째 정기 공연으로 주민들을 찾아간다. 연어는 매년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하는 연극 축제로 정기 공연을 열고 있으며, 올해 공연은 10월 10일과 11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펼쳐진다. 연어는 이날 회원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꿈꾸지 않으면'과 학생들이 준비한 '왕자와 거지' 등 두 편을 선보인다.

### ○● 네 손의 피아노&첼로 연주회

네 손으로 들려주는 피아노 듀오 연주회가 열린다. 피아니스트 정영철·김자은 씨는 10월 12일 오후 7시30분 설악문화센터 2층 카페소리에서 '네 손의 피아노&첼로 연주회'를 갖는다.

### ○● 설악바다 일요화가회 정기전시회

속초도서관에서 유화수업을 받는 수강생들로 구성된 '설악바다 일요화가회'(회장 황경희)가 일곱 번째 정기 전시회를 개최한다.

회원(주간·직장인) 20명은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각 2점 씩 40점을 전시한다.

### ○● 제1회 전국 색소폰 앙상블 어워드 in 강릉

속초지역 색소폰 동호회 '설악드림팝스'가 '제1회 전국 색소폰 앙상블 어워드 in 강릉'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설악드림팝스(단장 한기학·지휘 최경복)는 10월 20일 강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1회 전국 색소폰 앙상블 어워드 in 강릉' 본선에서 12개 팀 가운데 동상을 차지했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본상을 수상했다.

### ○● 설악수채화 여섯 번째 정기 작품전

속초·고성·양양지역 수채화 동호회 설악수채화(회장 박귀례)가 10월 24~28일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여섯 번째 정기 작품전을 갖는다.

조양동주민자치센터 수채화교실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지난 2005년 결성된 설악수채화는 현재 고성과 양양지역 동호인들도 함께 참여해 속초문화회관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시회는 2008년부터 매년 가을 정기 작품전으로 열어오고 있다.

전시회에는 박귀례 회장의 '자작나무'를 비롯해 16명의 회원들이 한 해 동안 제작한 작품 중 3점씩을 추려 48점이 전시된다.

### ○● 소프라노 이병렬·테너 황태경 한 무대에

소프라노 이병렬 교수와 테너 황태경이 펼치는 성악 공연이 10월 25일 오후 7시30분 설악문화센터 2층 카페소리에서 열린다.

한국가곡을 비롯해 오페라아리아, 뮤지컬 곡 등으로 꾸며지는 이날 공연은 소프라노 이병렬(현대성악양상불 대표) 성결대 예술학부 교수와 독일 아우구스부록 음악대학 최고연주과정을 졸업한 테너 황태경이 선보이는 솔로와 듀엣 공연으로 펼쳐진다.

### ○● "서울원드양상불과 세계 음악여행 떠나요"

39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원드양상불'(지휘자 김응두 송실대 음악원 주임교수)이 10월 26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관악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사한다.

'서울원드양상불과 떠나는 세계음악여행' 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작곡가 이문석 씨가 창작한 해금아리랑과 레미제라블 OST(편곡 이문석)를 비롯해 야콥 데 한의 'Ross Roy', 아바의 'Mamma Mia', 오토 엠 슈바르츠 'roller coaster', 리처드 로저스 '사운드 오브

뮤직'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뮤지컬곡과 팝송, 국악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이 연주된다. 종묘제례악 전수자로 한 양대학원에서 해금을 공부 중인 김예소리 씨도 이번 공연에 협연한다.

이번 공연은 속초시가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마지막 문화공연 이벤트다.

### ○● 고 박수근 화백 작품 갯배 선착장서 재현

실향민 작가로 알려진 우리나라 미술계 거장 고 박수근 화백을 기리는 퍼포먼스가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극단 청봉(대표 최은희)은 강원문화재단의 후원으로 10월 26~27일 청호동 갯배 선착장 일대에서 실향민작가 미술 작품과 함께 즐기는 퍼포먼스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박 수근'을 공연했다.

### ○● 박경심 씨 '속초항, 사진으로 말하다'

〈설악신문〉 '사는 이야기' 필진으로 활동했던 박경심 씨가 두 번째 개인 사진전을 연다. 박 씨는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 전시실에서 '속초항, 사진으로 말하다'를 개최한다. 박 씨는 속초지역 겨울철 별미 도루묵을 그물 한 가득 끌어 올리는 전통경을 비롯해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맹크고래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의 모습, 생선을 나르는 어민들의 모습, 분주한 입찰 과정 너머로 호시탐 탐 생선을 노리고 있는 갈매기떼 등 속초항에서 펼쳐지는 광경들을 렌즈에 담았다.

### ○● 속초미협 '2013 사랑 나눔 자선미술전'

(사)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지부장 박동국)가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작품 구매를 통해 어려운 이웃도 돋는 '2013 사랑 나눔 자선미술전'을 개최한다.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노학동 설악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서예, 문인화 등 6개 장르 26명의 회원들이 작품을 출품 한다.

### ○● 섬유공예가 고주리 씨 강원미술상 수상

섬유공예가로 활동 중인 고주리(57, 사진) 속초여중 미술 교사가 10월 31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51회 강원도미술협회전 개막식 및 제28회 강원미술상 시상식에서 창작상을 받는다.



### ○● 엄상빈 씨 청호동 사진 기록 30년 토크콘서트

속초민예총(회장 김부영)의 '제16회 통일문화제'가 11월 1일 오후 7시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올해 통일문화제는 접경지 속초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실향민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해 '통일과 예술'을 주제로 다양하게 펼쳐진다.

### ○● 김명기 시인 첫 시집 '등이 가렵다' 폐내

속초에서 활동 중인 김명기 시인이 첫 시집 〈등이 가렵다〉(문학의전당)를 폐냈다.

### ○● 원로 연극인 신원하 극단 프리랜서 대표 세 번째 모노드라마 '운수 좋은 날' 공연

속초의 원로 연극인 신원하(72) 극단 프리랜서 대표가 세 번째 모노드라마(1인극) '운수 좋은 날'(홍은진 각색, 서정숙 연출)로 주민들과 만난다.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11월 2일과 3일 오후 4시에 여는 '운수 좋은 날'은 한국 단편소설의 개척자로 일컬어지는 현진건의 작품으로, 좋은 운수는 곧 나쁜 운수와 연결돼 있다는 반어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속초시와 속초예총, 연극협회 속초지부, 강남베드로병원, 속초여고총동문회 등이 후원하며, 무료공연이다.

### ○● 뮤지컬·재즈·성악공연 잇달아 마련

설악문화센터는 11월 9일 '나정윤 교수의 뮤지컬 이야기'를 비롯해 15일 '이경우의 재즈 콰르텟', 23일 '성악 콘서트'로 이어지는 트리플 음악회를 마련한다.

모든 공연은 오후 7시30분 설악문화센터 2층 카페소리에서 진행된다.

### ○● 속초서우회 열여덟 번째 정기 회원전

서예를 사랑하는 지역 원로인사들의 모임 속초서우회(회장 박학성)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제2 전시실에서 열여덟 번째 정기 회원전을 갖는다.

속초서우회 회원전은 모두 한문 작품만 전시되는 것이 특징으로 이번 정기 회원전에는 15명이 48점의 작품을 출품한다.

## ○● 속초민예총 '제18회 민족예술제' 개막

속초민예총(회장 김부영)의 한 해 활동을 되돌아보는 '제18회 민족예술제'가 11월 15일 개막, 19일까지 속초문화회관 1전시실과 갤러리 이발소 등지에서 펼쳐진다. 올해 민족예술제는 국악·민족극·풍물·문학·미술·공예·사진 등 7개 협회가 참여, 전시와 공연으로 마련됐다.

## ○● '갯마당' 스물 한 번째 정기연주회

속초지역 풍물파 '갯마당'이 11월 16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스물 한 번째 정기연주회 '오(娛)락(樂)가락'으로 주민들을 찾아간다. 갯마당은 올해 정기연주회 타이틀을 '즐겁고 즐거운 우리 가락' (오락가락)으로 정하고, 1992년 첫 발을 내딛은 이후 2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체계를 짜야하고 완성 단계에 이른 갯마당의 모습을 춤과 소리로 표현했다. 공연은 무(無), 금(今), 시나위, 련(戀), 합(合) 등 5개 마당으로 구성된다.

## ○● 일요화가회 '물향기' 수채화 세계로 초대

일요화가회 '물향기'(회장 안복삼)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속초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두 번째 전시회를 갖는다.

## ○● 제3회 설악향토소리 경창 '원주아리랑' 대상

민예총 속초지부(지부장 김부영)가 개최한 '제3회 설악향토소리 경창대회'에서 '원주아리랑'이 대상을 차지했다. 11월 23일 속초시근자부지회관 문화공간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지역별로 예선을 통과한 도내 단체 및 개인 11개 팀이 참가, 지역 향토소리와 아리랑 등 2개 부문에서 경연을 펼쳤다.

## ○● 설악원드오케스트라 세 번째 정기연주회

속초지역에서 활동 중인 설악원드오케스트라(악장 함상균, 지휘 지용호)가 11월 23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세 번째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올해 정기연주회는 속초시 승격 50주년 기념 공연으로 마련돼, 서양 고전 클래식부터 유명 오페라까지 다양한 곡들이 연주된다.

## ○● 속초문화원 21기 향토문화학교 27일 작품발표회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문화학교 21기 수강생들이 작품발표회를 갖는다. 속초문화원은 11월 27일 오전 10시 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서예 및 한지공예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개막하고, 소강당에서 장구·노래 수강생들의 작품 발표회를 연다. 이어 11시에 소강당에서 수료식을 갖고 우수 수강생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 ○● 다문화가족 축제한마당

속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배영란)는 11월 28일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013 다문화가족 축제한마당'을 개최했다.

다문화가족 축제한마당은 1년간의 지원센터 활동을 되돌아보는 영상을 상영을 시작으로, 우수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 장기 자랑 등으로 진행됐다.

## ○● 속초시립합창단 관광수산시장서

### '찾아가는 음악회'

속초시립합창단(지휘자 송은희)이 11월 30일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고 올해 공식 일정을 마쳤다.

올해 7월 30명의 단원이 위촉된 시립합창단은 지난 10월 4일 속초시청 로비 광장에서 '미니 콘서트'를 연데 이어, 10월 12일 설악문화제 개막행사에서 축하공연을 가졌으며, 병원 및 요양원 등을 찾아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시립합창단은 12월 13일에는 속초시자원봉사자대회 개막 공연, 21일 설악프라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찬조 출연하는 등 비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 ○● 소리울림 학생합창단 두 번째 정기 공연

속초와 양양지역 초·중학생들로 구성된 '소리울림 학생합창단'(지휘 김현정)이 11월 30일 오후 3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두 번째 정기 공연으로 주민들을 찾아간다.

'소리울림합창단'은 지난해 5월 창단,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등 6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말을 이용해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청렴관에서 호흡을 맞춰오고 있다. 합창단은 이날 슈베르트의 '들장미'로 막을 올린 뒤, 슈만의 '아름다운 5월에', 바흐 '미뉴엣' 이탈리아 민요 '치리비리빈', 아일랜드 민요 '깰 웨이의 피리사', 민요 '천안삼거리', '신고산타령', '봉금포타령' 등 16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 ○● 설악문화예술포럼 4번째 행사로 연 강원문학작가상 수상 채재순 시인 시 세계

설악문화예술포럼 4번째 행사인 '제11회 강원문학작가상 수상기념 채재순 시인의 시 세계' 행사가 11월 30일 오후 6시 카페 다량에서 열렸다.

설악신문 프리랜서기자 이수영 씨의 사회로 설악문화예술포럼 좌장인 이반 속초예총 회장이 수상축사와 함께 그동안 포럼의 진행과정을 설명했고, 사회자의 '채재순 시인의 시 작업'에 대한 소개에 이어 정호남씨와 정영애 시인이 채재순 시인의 시 중 '사람 도서관'과 '맡지도'를 낭송했다.



### ○● 설악문우회 동인지 〈갈뫼〉 제43호 발간

설악문우회(회장 권정남)의 동인지 〈갈뫼〉 제43호가 발간됐다.

올해 〈갈뫼〉에는 속초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전 회원이 '속초'를 테마로 한 작품 한 편씩을 실어 의미를 더했다. '속초' 작품 시리즈는 이번 속초예총 회장의 '동전 두닢'과 박무웅 속초문화원장의 '갈뫼와 함께 했던 추억의 나날들' 등 초대 글을 비롯해 회원들의 시, 수필, 평론 등 20개 글로, 책머리 쪽에 배정됐다.

이와 함께 박명자 회원의 '5월 나무들의 행진' 등 회원 27명의 시 150여 편과 서미숙 회원의 '나눔' 등 7명의 수필 9편, 강호삼 회원의 '이런 시벌놈들이…' 등 2명의 소설 2편이 차례대로 실렸고, 이희갑 회원의 동화 '청대산의 소나무', 최재도 회원의 평론 '바다의 언어로 하늘과 어울리다'도 수록됐다. 이외 〈갈뫼〉 44년의 발자취, 사진으로 보는 2013년 설악문우회, 〈갈뫼〉 동인 작품집 소개 등도 만날 수 있다.

### ○● '영랑윈드오케스트라' 다섯 번째 정기 연주회

영랑초등학교 관악부 '영랑윈드오케스트라'가 12월 4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다섯 번째 정기 연주회를 연다.

'영랑윈드오케스트라'는 클라리넷, 튜바, 트롬본, 트럼펫, 호른, 플롯, 색소폰 등의 관악기와 타악기로 구성, 현재 70명의 재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연주회에는 재학생과 함께 10명의 강사들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

### ○● 지적장애인들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공연

지적장애인들이 꾸미는 뮤지컬 공연이 열린다.

뮤지컬극단 '금강'은 12월 6일과 11일 오전 11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정은선 극본, 정경숙 연출)를 공연한다.

'금강'은 금강장애인복지센터가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운영 중인 장애인 뮤지컬극단으로, 현재 8명의 지적장애인들이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 ○● 서른 살 청봉사진동우회 정기 회원전

창립 서른 돌을 맞은 청봉사진동우회(회장 안두성)가 정기 회원 작품전을 연다.

청봉사진동우회는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속초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16일부터 30일까지 설악문화센터에서 '서른 번째 회원 작품전'을 개최한다.

### ○● 속초음악협회 '음악으로 떠나는 겨울 여행'

(사)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지부장 강은희)가 12월 12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정기음악회 '2013 음악으로 떠나는 겨울 여행'으로 주민들을 찾아간다.

### ○● 설악산 배경 '자연 치유' 콘서트 연다

'자연 치유'를 테마로 한 콘서트가 설악산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동해안예술인네트워크와 등대영화제조직위원회, 예술법인 스토리양양, 강원국악연구소는 12월 21일 쌍천면 2만 평의 약초농원(설악산로 287)에서 '자연 치유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콘서트는 소리 시인 정토의 '소리 시 공연'을 비롯해 대금연주가 심원섭 독주와 퓨전 연주, 무예단장 지성철의 풍류기칠선 검무, 관객과 함께 하는 육성 기천무 등의 문화공연과 설악 육 경연대회, 자연 치유 체험행사 등으로 꾸며진다.

### ○● RUN갓마당 도 전역 무대로 왕성한 활동

갓마당 2세대 주자들로 꾸려진 RUN갓마당(대표 최종현)이 설악권을 넘어 도 전역을 무대로 삼아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강원도를 대표하는 풍물패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

RUN갓마당은 지난해 8월 20~30대 젊은 단원들 중심의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재탄생, 올해 초부터 도내 작은 학교와 벽지학교를 순회하며 '이야기가 있는 학교문화 콘서트-바람찬 교실'과 '소(리내고)나(가눌고)기(분좋은) 콘서트' 등 찾아가는 문화공연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속초지역에서는 응끌딸기마을을 소재로 한 마당극 '응끌이야기' 제작에 나서, 최근 발표회도 앞두고 있다.

### ○● 연예협회속초지회 '장애인과 함께 하는 음악회'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속초지회(지회장 한지혜)가 12월 20일 오후 2시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 문화공간에서 '2013 장애인과 함께 하는 음악회'를 연다.

### ○● 설악프라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설악프라임오케스트라가 12월 21일 오후 7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로 주민들을 찾아간다.

연주회는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 1악장'으로 막이 올라,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바이올린 협주곡 5번',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웨버 '오페라의 유령', 모건 '엘비보' 등 의 곡을 연주한다. '아리랑' 등 우리나라 민요 모음도 선 보이며, 소프라노 김사은, 테너 임민선도 함께 한다.

### ○● 속초시립박물관 22일 동짓날 행사

속초시립박물관은 동지를 맞아 오는 22일 세시풍속 체험 행사를 마련한다.

시는 이날 동지팥죽 만들기 및 시식을 비롯해 동지부적 만들기, 소원 고리 만들기, 아트 풍선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를 갖는다.

### ○● 프랑스 작가 원작 연극 두 편 무대에

(사)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지부장 김태영)가 연말을 맞아 프랑스 작가 원작의 연극 두 편을 차례로 선보인다.

극단 청봉(대표 최은희)과 극단 소울시어터(대표 남호섭)가 '2013 소극장 페스티벌' 린 이름으로 12월 27일부터 30일 까지 4일간 두드림소극장에서 잇따라 공연을 갖는다.

먼저 극단 청봉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가 보부아르의 소설 '위기의 여자'를 각색한 작품을 27일 오후 7시, 28일 오후 4시와 7시 등 3회 무대에 올린다.

극단 소울시어터는 1990년대 프랑스 논단에 신드롬을 일으킨 아델리 노통의 소설 '살인자의 건강법'을 각색한 작품으로 29일과 30일 오후 7시 2회 공연한다.

## 속초문화의 힘!

문화예술부문 / 노광복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부문 / 서옥순

체육부문 / 박충근

### 문화예술부문



노광복 | 속초문화원 고문

지역의 문화예술 환경개선을 위한 청구문화재단의 설립을 주도하고, 향토사와 향토민속의 체계적 정리로 향토문화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속초도문농요의 강원도무형문화재 지정 등 지역전통문화의 보전과 전승에 기여함

###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부문



서옥순 |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불우한 이웃을 위한 밥사랑 공동체 급식소 설립으로 사랑 실천의 모범을 보였으며, 지역여성의 역량배양과 설악문화제 등 지역행사시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 체육부문



박충근 | 속초시축구협회 회장

지역 야구인재들을 위한 지원 및 축구부 발전기금 지원, 축구동호인 활성화를 위한 발전기금 지원 등 속초시 체육활성화에 기여

## 2013 속초문화원 임·직원 명단

직위	성명	주 소	비 고
원장	박무웅	속초시 도문동 200	돌감자 장학회장
부원장	김계남	속초시 금호동 이면한아파트 104-604	아시아항공여행사 대표
부원장	최현식	속초시 조양동 코아루APT 102동 606호	강원도문화재전문위원
이사	고재양	속초시 교동 780-60 15/3-	전) 교사
이사	곽철신	속초시 교동 럭키2차APT 103-1205	영북지구 총청향우회 대표
이사	구영모	속초시 대포동 934-5 대포농공단지내 파이프랜드	(주)파이프랜드 대표
이사	권영석	속초시 조양동 대광로제비양아파트 101-201	순오텐트 대표
이사	김계양	속초시 대포동 470-3	속초대포하우스 대표
이사	김상복	속초시 조양동 삼성쉐르빌 104동 901호	속초연탄은행 대표
이사	김순옥	속초시 장사동 577-38 남북횟집	남북횟집 대표
이사	김태성	속초시 교동 767-257 프레지던트인텔빌라트 102호	전) 청초동장
이사	문광철	속초시 조양동 1292-1 동명아파트 나동 205호	속초시초등학교 총동창회연합회장
이사	박정기	속초시 조양동 230 연희동	연희동 대표
이사	박정은	속초시 금호동 484-7 동제약국	동제약국
이사	양재호	속초시 교동 627-32	전) 교육행정공무원
이사	어재석	속초시 중앙동 468-67	전) 속초시의회 과장
이사	윤광훈	속초시 교동 1021-4 디자인미디어	이정종합광고 대표
이사	윤숙자	속초시 교동 627-42 설악유치원	전) 설악유치원 원장
이사	윤장원	속초시 교동 794-2(미시령로 3275)	장원주유소 대표
이사	이영순	속초시 금호동 484-25 속초나이키대리점	나이키 속초점 대표
이사	이춘실	속초시 노학동 설악럭키1차APT 2-606	전) 속초시 기획감사실장
이사	이태자	속초시 교동 830-2 남부새마을금고	남부새마을금고 전무
이사	임동환	속초시 대포동932-8 대포농공단지내	두산유리시스템창호 대표
이사	장용근	속초시 대포동 947-14	금강기획에이피주 대표
이사	정봉재	속초시 교동 동부아파트 102-803	전) 속초예총 부회장
이사	조동대	속초시 조양동 1034-49 청초프라자 117호	설악산단풍빵 대표
이사	최용석	속초시 조양동 성호아파트 202-105	보배이에스씨 대표이사
이사	탁동식	속초시 교동 하우스토리 104-801	설악여자중학교 교장
이사	한기학	속초시 중앙동 8동 5반	전) 예총회장
이사	함봉식	속초시 교동 럭키설악타운 1-1108	주)세림 대표
감사	한남호	속초시 영랑동 대양연립 나-103	설악고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
감사	허우린	속초시 교동 908-10 두산교육센터-	해오미속초21실천협회장
명예이사	백광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497-13 401호	재경속초건설인협회 사무국장
명예이사	손문영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67-53 수기미을 힐스테이트아파트 216-1001	재경속초시민회 회장
명예이사	윤금준	서울 강남구 도곡동 910-27 강남베드로병원	강남베드로병원 원장
명예이사	전호성	서울 노원구 상계3동 172 대림아파트 106-502	한양타일상사 대표
명예이사	조명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미을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1211-1802	농협중앙회 상무
명예이사	홍욱	서울 중구 을지로 19길 31번지 주) 코엑스텔콤 대표	전) 재경속초건설인협회장
명예이사	서성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99 진극아파트 9동 1012호	재경속초건설인협회장, 주)의종
명예이사	백광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497-13 401호	재경속초건설인협회 사무국장
명예이사	이경우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8번지 한강현대아파트 107동 1201호	하사와병장 출신 재즈가수
명예이사	이승열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7-4 강원도민회관 402호	재경속초시민회 사무국장
사무국	김인섭	속초시 조양동 부영아파트 311동 506호	사무국장
사무국	이정무	속초시 교동 동부아파트 102-401	사업과장
사무국	김은중	속초시 교동 대명늘푸른 104동 103호	사무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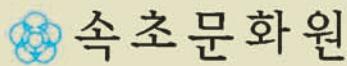
속초문화원

[www.sokcho-culture.com](http://www.sokcho-culture.com)

# ( 농촌도 도시도 행복의 크기가 같은 나라 )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농협이 언제나 당신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영랑동 570-5)  
Tel. 033) 632-1231, 639-2439 Fax. 632-1241  
[www.sokcho-culture.com](http://www.sokcho-culture.com)